

墓

碣



이세정(李世貞) 묘갈

所在地…中院區 下大院洞 山3-1
 建立年代…朝鮮 中宗 28年(1533)
 撰…李 思 鈞
 書…李 秀 莞
 篆…尹 安 仁
 規 模…總高…159cm, 碑高…149cm, 幅…55cm, 厚…22cm
 材 質…碑身…大理石, 臺石…花崗岩

이세정 묘갈은 공단로에서 우회전하여 대하초등학교로 올라가면 이집(李集)의 신도비가 있고, 그 좌측길로 가면 무심정사 뒤 우측산 남서쪽에 있다.

1533년에 건립된 이 비는 비좌 원수(碑座圓首)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대석은 마멸이 심해 문양을 알 수 없다.

제액(題額)은 『觀察使李公墓碣銘(관찰사 이공묘갈명)』이라고 윤안인(尹安仁)이 전서(篆書)로 썼는데 자경(字徑)은 6·0cm이고, 앞면의 글씨 자경은 4·5cm, 음기(陰記) 자경은 1·5cm의 해서로 아들 이수완(李秀莞)이 썼으며, 비문은 이사균(李思鈞)이 지었다.

비의 상태는 뒷면 상부가 마멸이 심해 일부 관독이 난해한 곳이 있으며, 묘소는 정부인 전주이씨(全州李氏)와 쌍분, 호석·상석·족석·향로석·훈유석·계체석·장명등·문인석·망주석이 있다. 그리고 1987년 5월에 개수한 비좌 관석의 묘갈은 13대손 이영휘(李永輝)가 구(舊) 묘갈문을 이기(移記)한 것이다.

이세정(1461~1522)은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광주(廣州)。자는 중권(仲權)。참의(參議) 지직(之直)의 증손, 우의정 인손(仁孫)의 손자, 극돈(克墩)의 아들이다。

음직(蔭職)으로 관직에 나아가 와서 별제(瓦署別提)·장악원 주부(掌樂院主簿)·사헌부 감찰(司憲府 監察) 등을 역임하고, 충훈부 경력(忠勳府經歷)으로 재직 중 1501년(연산군 7) 식년문과에 4등으로 급제하여 세자시강원 모덕(世子侍講院輔德)에 제수되었다.

1504년 임사홍(任士洪)이 연산군의 생모인 윤비(尹妃)가 폐모(廢母)되고, 사사(賜死)된 사실을 왕에게 밀고함으로써 일어난 갑자사화(甲子士禍)로 인하여 남해로 귀양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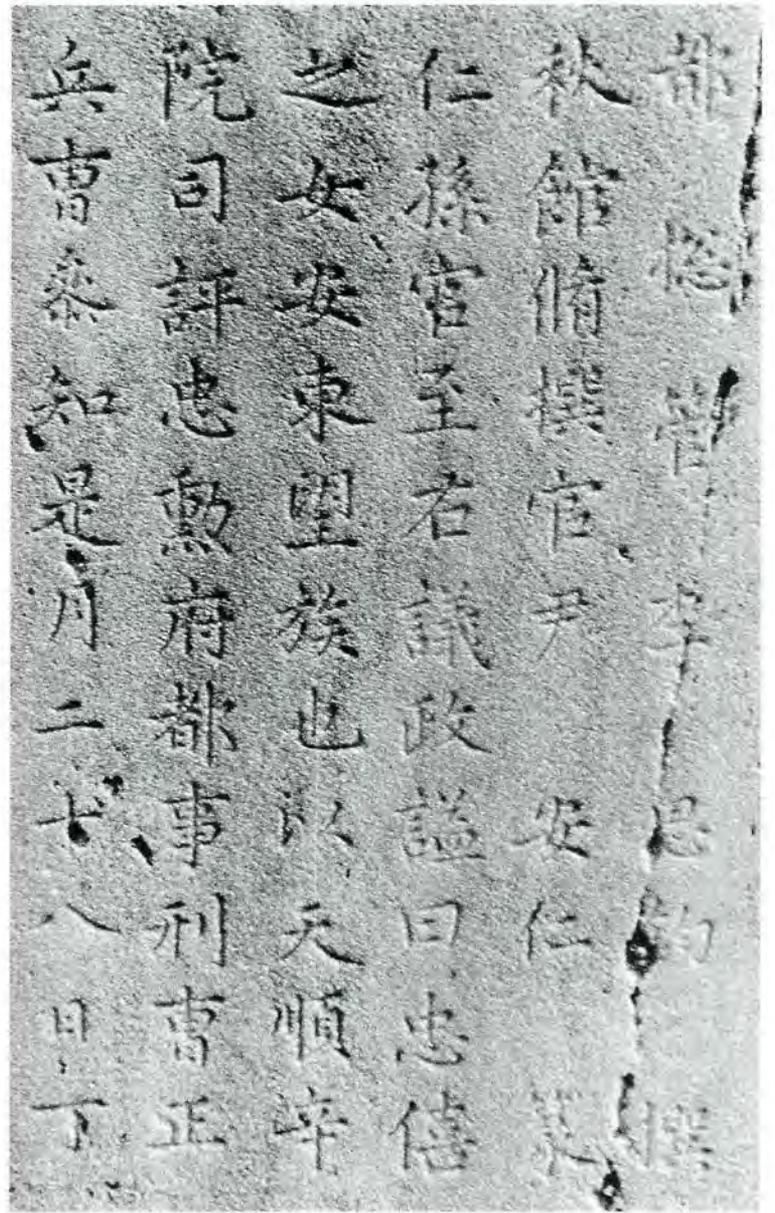
1506년(중종 1) 중종반정으로 재등용되어 판결사, 광주·해주의 목사, 전주판윤 등을 역임하고 1520년(중종 15) 전라도 관찰사에서 도승지로 옮겼으며 이후, 이조·예조·병조·형조의 참의를 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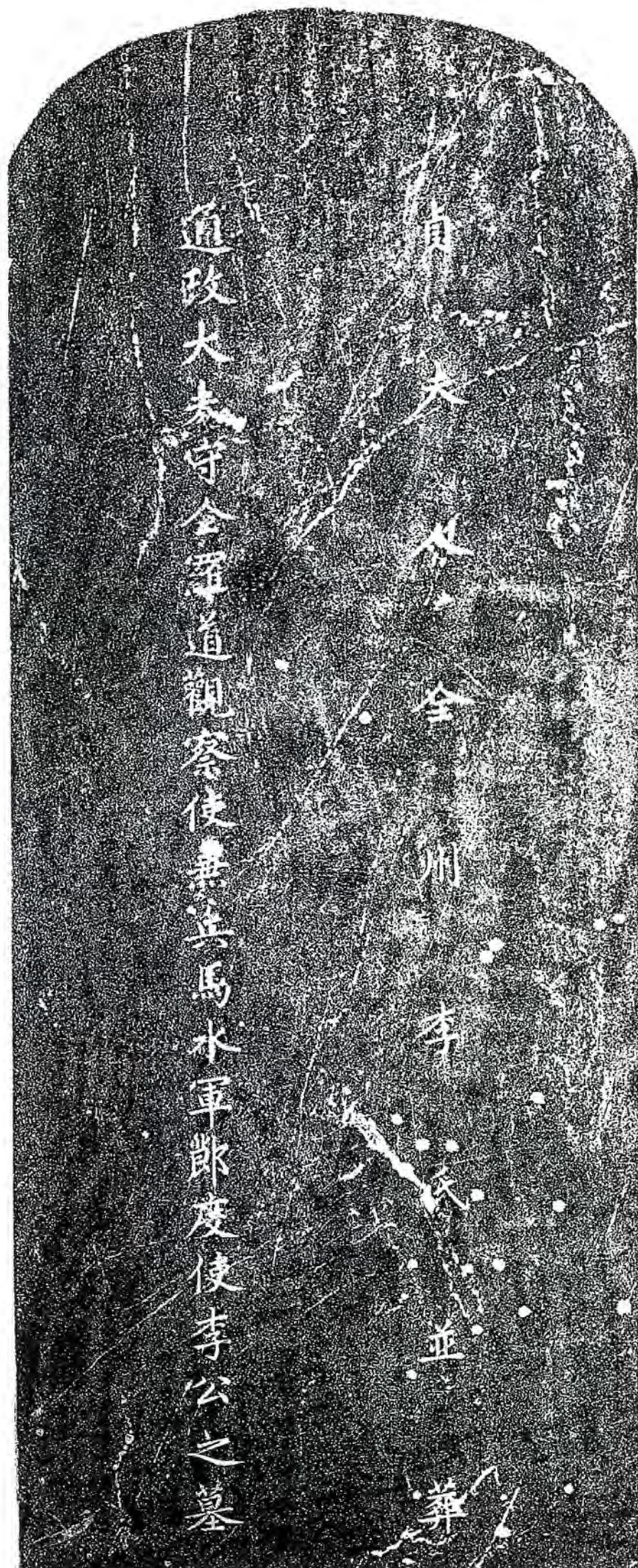
이세정 묘소 전경



묘 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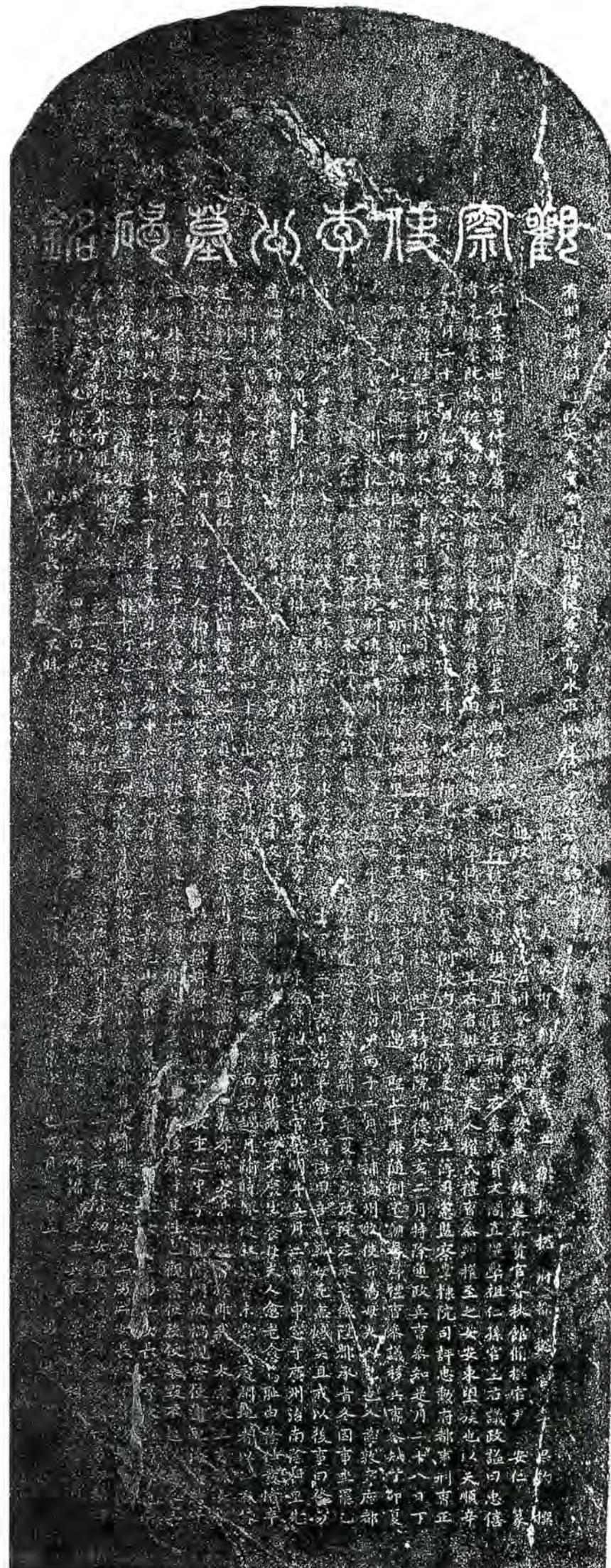
묘갈 비문 일부



道政大夫守全羅道觀察使兼兵馬水軍節度使李公之墓

貞夫公全州李氏並葬

55×149



55×149

【前面】

貞 夫 人 全 州 李 氏 並 葬

通政大夫守全羅道觀察使兼兵馬水軍節度使李公之墓

【後面】

觀察使李公墓碣銘（篆額）

有明朝鮮國通政大夫守全羅道觀察使兼兵馬水軍節度使李公墓碣銘并序

資憲大夫吏曹判書兼五衛都摠府都摠管李 思鈞 撰

通政大夫承政院左副承旨知製 教兼 經筵參判官春秋館修撰官尹 安仁 篆

公姓李諱世貞字仲權廣州人高祖集仕高麗官至判典校寺事有文行號遁村曾祖之直官至刑曹右參議寶文閣直提學祖仁孫官至右議政諡曰忠僖考克敦策純議佐理功臣議政府左贊成廣原君諡曰翼平亦由文進學博辭敏無出其右者妣貞敬夫人權氏禮曹參判權至之女安東望族也以天順辛巳五月二十一日乙酉生公公學久無成於弘治三年庚戌蔭補瓦署別提丙辰春例授內資主簿遷掌樂主簿司憲監察掌隸院司評忠勳府都事刑曹正郎忠勳府經歷猶力學不懈中辛酉文科陞司憲府掌令轉軍器寺僉正承文院參校 世子侍講院輔德癸亥二月特除通政兵曹參知是月二十八日丁外艱會燕山政亂一時朝臣流竄殆無公亦謫居南海實弘治甲子歲也正德元年丙寅九月遇 聖下中興隨例還朝尋拜禮曹參議移兵曹參知丁卯夏以母老乞養得光州牧使秩滿授掌隸院判決事轉刑兵禮三曹參議壬申二月出補全州府尹丙子二月又補海州牧使皆爲母夫人乞也入爲敦寧府都正判決事庚辰夏陞全羅道觀察使皆如舊冬復以母老轉官入爲僉知中樞府事遷禮曹參議嘉靖三年夏拜承政院左承旨俄陞都承旨冬因事坐罷乙酉夏起爲戶曹參議丙戌冬以病辭戊子秋拜吏曹參議冬丁內憂哀毀成疾十一月二十六日病革會子壻語曰吾已葬母死無憾矣且戒以後事曰祭勿用油蜜斂勿用綵緞事皆從約蓋得於性者然也精神言語不少爽尋卒享年六十八吊祭賻贈一出於官越明年五月二日丙申窆于廣州治南陰村里先塋之側公勁直儉素惡姘喜淡居官以謹律身以正事父母孝處兄弟友每遇俗節必躬奠翼平墳所雖雨雪不廢生養母夫人愈老愈篤恥由蔭仕發憤卒業捷科顯揚爲父母榮人多以宰補望之仕官幾四十年出入中外辭官乞養之際或授西曹之職而不越月踰時輒復叙東曹未嘗久處閑地者以公有練達理劇之才爾然秩不踰通政位不得稱器惜哉公之內貞夫人李氏宗室藥川君蒨之女瑞原君□之孫孝寧大君補之曾孫卽我 太宗大王玄孫女也母朴氏陰城人生夫人未閱月而逝夫人鞠於外家既長爲翼平公婦事舅姑以禮御婢僕以恩翼平深敬重之甲子之亂闔門被禍觀察使遠配海島諸子并黜外郡夫人獨守京家雖在窮苦之中奉養姑氏益謹得其歡心觀察使在島猶在側也不喜容飾不服侈麗皆其性也觀察使沒便哀毀不起以壬辰三

月初九日戊午卒享年七十一卜是年五月十三日庚申與翁並葬有五男一女長兎山縣監秀綦娶忠義衛李晟之女生三男五女長益亨次益昌女適南
 弘壽餘幼次造紙署別提秀苓娶忠順衛卞玎之女生四男二女長仲亨餘幼次栗峰道察訪秀華娶直長鄭熙慶之女生二男二女長叔亨餘幼次 璿源
 殿參奉秀封娶郡守羅叔聘之女生四男一女長秀亨餘幼次生員秀莞娶宗室任城副守彥廷之女生一男三女皆幼女適大護軍李世璉生一男幼銘曰
 賢哉大夫 又得賢內 處家雍雍 曰孝曰愛 位不滿德 天道惡在 馬氏五常 餘慶未艾 一女作媚 吉士其配 累累陰村 金章玉珮
 生百年養 沒萬古對 其存者長 愈久不昧

皇明嘉靖十二年歲次癸巳四月 日立 男 生 員 秀 莞 書

【譯 文】

정부인전주이씨병장 통정대부수전라도관찰사겸병마수군절도사이공지묘

관찰사이공묘갈명

유명 조선국 통정대부 수 전라도관찰사 겸 병마수군절제사 이공(李公) 묘갈 명명서

자헌대부(資憲大夫) 이조판서(吏曹判書) 겸(兼) 오위도총부도총관(五衛都總府都總管) 이사균(李思鈞)은 글을 짓고,

통정대부(通政大夫) 승정원좌부승지(承政院左副承旨) 지제교(知製敎) 겸(兼) 경연참찬관(經筵參贊官) 춘추관수찬관(春秋館修撰官) 윤안인(尹安仁)은 전액을 쓰다.

공은 이름은 세정(世貞), 자는 중권(仲權), 본관은 광주(廣州)이다. 고조부는 이름이 집(集)인데, 고려(高麗)에서 벼슬하여 관직이 판전교시사(判典校寺事)에 이르고 문학과 행실이 뛰어난 분으로 이름이 났으며, 호는 둔촌(遁村)이다. 증조부는 이름이 지직(之直)인데, 벼슬이 형조 우참의(刑曹右參議)와 보문각 직제학(寶文閣直提學)에 이르렀다. 조부는 이름이 인손(仁孫)인데, 벼슬이 우의정(右議政)에 이르고 시호는 충희(忠僖)이다. 아버지는 이름이 극돈(克墩)인데, 순의좌리공신(純議佐理功臣)에 책봉되고 의정부 좌찬성(議政府左贊成)이 되고 광원군(廣原君)에 봉해지고 시호는 익평(翼平)이다. 이 분 또한 문장으로 출세하였기 때문에 학문이 넓고 문사(文辭)가 통달한 것으로 말하면 그 분을 앞설 사람이 없었다. 어머니는 정경부인(貞敬夫人) 권씨(權氏)로 예조 참관(禮曹參判)을 지낸 지(至)의 딸인데, 안동(安東)의 유명한 집안이다. 친순(天順) 신사년(辛巳年) 5월 21일 을유(乙酉)에 공을 낳았다.

공은 학문을 오래하였으나 과거에 급제하지 못하고, 홍치(弘治) 3년인 경술년(庚戌年)에 문음(門蔭)으로 와서 별제(瓦署別提)에 보임되고, 병진년(丙辰年) 봄에 규례에 따라 내자시 주부(內資寺主簿), 장악원 주부(掌樂院主簿),

사헌부 감찰(司憲府監察), 장례원 사평(掌隸院司評), 충훈부 도사(忠勳府都事), 형조 정랑(刑曹正郎), 충훈부 경력(忠勳府經歷)을 차례로 역임하였다.

공은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꾸준히 학문에 힘써서 신유년(辛酉年)에는 문과에 급제하여 사헌부 장령(司憲府掌令)에 오르고, 이어 군기시 첨정(軍器寺僉正), 승문원 참교(承文院參校), 세자시강원 보덕(世子侍講院輔德) 등으로 전직되었으며, 계해년(癸亥年) 2월에는 특명으로 통정대부(通政大夫) 병조 참지(兵曹參知)에 임명되었다. 이 달 28일에 부친상을 당하였다.

이 당시 연산군의 정치가 문란하여 한때 조정 신하들이 모두 유배되어 거의 없어졌는데, 공 또한 남해(南海)에서 귀양살이를 하였으니, 이 때는 바로 홍치(弘治) 갑자년(甲子年)이었다.

정덕(正德) 원년(元年)인 곧 병인년(丙寅年) 9월에는 성상(聖上) 중종(中宗)의 중흥(中興)을 만나서 규례에 따라 조정으로 돌아왔고, 얼마 후에는 예조 참의(禮曹參議)에 임명되었다가 병조 참지(兵曹參知)로 옮겼다.

정묘년(丁卯年) 여름에는 어머니가 노경에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의 봉양을 요청해서 광주목사(光州牧使)를 얻어 외직으로 나갔고, 임기가 차자 장례원 판결서(掌隸院判決事)를 임명받아 다시 내직으로 들어왔고, 이어 형조(刑曹)·병조(兵曹)·예조(禮曹)의 참의(參議)로 차례로 전직되었다.

그리고 임신년(壬申年) 2월에는 지방으로 나아가 전주부윤(全州府尹)이 되었고, 병자년(丙子年) 2월에는 또 해주목사(海州牧使)로 보임되었는데, 모두 모부인(母夫人)을 위해 자원하였기 때문이다. 임기가 끝나자 다시 중앙으로 들어와서 돈녕부 도정(敦寧府都正)과 판결사(判決事)를 지냈다.

경진년(庚辰年) 여름에는 전라도 관찰사(全羅道觀察使)로 승진되어 지방으로 나아갔는데, 모두 예전처럼 어머니가 노경에 있기 때문에 벼슬을 옮긴 것이다. 겨울에는 다시 중앙으로 들어와서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가 되었다. 예조 참의(禮曹參議)로 옮겼다.

가정(嘉靖) 3년 여름에는 승정원 좌승지(承政院左承旨)로 임명되었고, 조금 후에는 도승지(都承旨)로 승진되었다가 그 해 겨울에 무슨 사건으로 인하여 파직되었다.

을유년(乙酉年) 여름에 다시 호조 참의(戶曹參議)에 임명되었다가 병술년

(丙戌年) 겨울에 병으로 사임하였다. 무자년(戊子年) 가을에는 이조 참의(吏曹參議)에 임명되었고, 그 해 겨울에 모친상을 당하여 지나치게 슬퍼하다가 병이 났다. 11월 26일 병이 위독해지자, 공은 아들과 사위를 모아 놓고 말하기를 『내 이미 어머니의 장례를 치렀으니 죽어도 유감이 없다.』고 하고, 또 사후(死後)의 일을 가지고 경계하기를 『나의 제사에는 기쁨과 꿀을 쓰지 말고, 염습(殮襲)에는 비단을 쓰지 말 것이며, 모든 일은 간소하게 하도록 하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대개 타고난 천성이 그랬던 것이다. 정신과 언어가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았다. 조금 후에 작고하니, 향년 68세였다. 조제(弔祭)와 부의(賻儀)는 모두 관에서 조달되었다. 이듬해 5월 2일 병신(丙申)에 광주(廣州)의 읍소재지 남쪽에 위치한 음촌리(陰村里) 선영(先塋) 곁에 장사지냈다.

공은 성격이 정직하고 검소하여 찬란한 것을 싫어하고 담백한 것을 좋아하였다. 벼슬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근신(謹愼)을 가지고 하였고, 몸을 단속하는 데 있어서는 정도(正道)를 가지고 하였으며, 부모를 섬기는 데는 효성을 다하고, 형제들과는 우애를 돈독히 하였다.

그리고 매년 속절(俗節)을 만날 때마다 반드시 몸소 익평공(翼平公)의 산소에 잔을 올렸는데, 비록 비나 눈이 온다 하더라도 폐지하지 않았다. 생시에 모부인을 봉양하는 일은 노경에 이를수록 더욱 독실하게 하였다. 음사(蔭仕)로 분발하여 학문을 열심히 해가지고 과거에 급제하여 이름과 지위를 세상에 드러내서 부모를 영광스럽게 하였다. 사람들은 대부분 공을 재상감으로 기대하였다.

공은 벼슬 생활 40년 하는 동안 중앙과 지방을 드나들었으며, 벼슬을 사양하고 어머니의 봉양을 요구하는 동안에는 더러 서반(西班牙)의 관직을 제수받기도 하였지만, 한 달도 못되어서 다시 동반(東班)의 관직에 임명하였기 때문에 오랜 동안 한지(閒地)에 처해 본 적이 없었으니, 이것은 공에게 유능한 재질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품계는 통정대부(通政大夫)를 넘지 못하고 직위는 그릇에 맞지 않았으니, 애석하기 그지없도다.

공의 배위(配位)인 정부인(貞夫人) 이씨(李氏)는 종실(宗室) 예천군(蘆川君) 천(僖)의 딸이자 서원군(瑞原君) □의 손녀요 효령대군(孝寧大君) 보(補)

의 증조녀이니, 곧 우리 태종대왕의 현손녀이다. 그 어머니 박씨(朴氏)는 본관이 음성(陰城)인데, 부인을 낳은 지 한 달이 채 못되어서 작고하였다. 그래서 부인은 외가에서 양육되고, 장성하자 익평공의 며느리가 되었다. 부인은 시부모를 섬김에 있어서는 예의를 다하고, 비복(婢僕)을 거느림에 있어서는 은혜를 베풀었다. 그러므로 익평공은 그 며느리에 대하여 매우 애지중지하였

다. 갑자년(甲子年)의 난리 때에 온 집안이 화를 입어, 관찰사는 멀리 섬으로 유배되고 여러 아들들은 모두 외군(外郡)으로 내쫓겼으며, 부인만이 홀로서 울집을 지키고 있었다. 비록 곤궁하고 고생스러운 중에 있었더라도 시어머니를 보양함에 있어서는 더욱 조심스럽게 해서 시어머니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렸다. 관찰사는 섬에 있었으나 마치 옆에 있는 것처럼 여겼다. 또한 얼얼 꾸미는 일을 좋아하지 않고 화려한 옷을 입지 아니했으니, 이것은 대개 그 천성이 그랬던 것이다.

관찰사가 작고하자, 몹시 슬퍼하다가 몸이 상해서 결국 일어나지 못하고 임진년(壬辰年) 3월 초 9일 무오(戊午)에 작고하니, 향년 71세였다. 이 해 5월 13일 경신(庚申)에 공과 함께 장사지냈다.

5남 2녀를 두었는데, 맏아들은 토산현감(兔山縣監)을 한 수진(秀秦)인데, 충의위(忠義衛) 이성(李晟)의 딸에게 장가들어 3남 5녀를 낳았으니, 맏아들은 익형(益亨)이요, 둘째아들은 익창(益昌)이요, 딸은 남홍수(南弘壽)에게 시집갔고, 나머지는 다 어리다.

둘째아들은 조지서 별제(造紙署別提)을 한 수령(秀苓)인데, 충순위(忠順衛) 변정(卍正)의 딸에게 장가들어 4남 2녀를 낳았으니, 맏아들은 중형(仲亨)이고, 나머지는 다 어리다.

셋째 아들은 율봉도찰방(栗峰道察訪)을 한 수화(秀華)인데, 직장(直長) 정희경(鄭熙慶)의 딸에게 장가들어 2남 2녀를 낳았으니, 맏아들은 숙형(叔亨)이고, 나머지는 다 어리다.

넷째 아들은 선원전 참봉(璿源殿參奉)을 한 수봉(秀封)인데, 군수(郡守) 나숙담(羅叔聃)의 딸에게 장가들어 4남 1녀를 낳았으니, 맏아들은 수형(秀

후)이고, 나머지는 다 어리다.

다섯째 아들은 생원(生員)인 수완(秀莞)인데, 종실(宗室) 임성부수(任城副
守) 언정(彦廷)의 딸에게 장가들어 1남 3녀를 낳았는데 다 어리다.

딸은 대호군(大護軍)을 한 이세련(李世璉)에게 시집가서 1남을 낳았는데
아직 어리다. 다음과 같이 명을 한다.

어진 대부였는데, 게다가 또 어진 아내까지 맞았네.

집안이 화목하였으니, 그것은 바로 효도와 우애였네.

벼슬이 덕에 차지 못했으니, 천도가 어디 있는고.

마씨오상(馬氏五常)¹⁾ 같았으니, 남은 경사 다할 소냐.

아름다운 한 여인도, 길사(吉士)의 배필이었네.

음손 땅에 묻힌 분들, 모두 금장옥패(金章玉佩).

살아서는 백년의 봉양, 죽어서는 만고의 추모.

그 존재 장원하니, 오랠수록 더욱 빛나리.

황명(皇明) 가정(嘉靖) 12년인 곤(癸巳年) 4월 일(日)에 비석을 세움.

아들 생원(生員) 수완(秀莞)이 글을 씀.

1) 마씨오상(馬氏五常) · 중국 촉(蜀)나라의 마량(馬良)의 5형제를 가리킴. 마량의 5형
제가 모두 재주와 명망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 마씨오상이라 불리었다.

한사개(韓士介) 묘갈

指定番號 .. 京畿道 文化財 資料 第84號

所在地 .. 盆唐區 栗洞 山 211

建立年代 .. 朝鮮 明宗 19年 (1564)

撰 .. 金 安 老

規 模 .. 總高 .. 210 cm, 碑高 .. 126 cm, 幅 .. 70 cm, 厚 .. 19 cm

材 質 .. 冠石 .. 大理石, 碑身 .. 大理石, 臺石 .. 花崗岩

한사개 묘갈은 울동 공원 내 번지 점포장의 우측산 부친 한계희(韓繼禧)의 묘소 아래 남서쪽에 있다.

1564년에 건립된 이 비는 비좌 관석(碑座冠石)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관석 앞면에는 운문(雲紋) 가운데 일본문(日紋)·태양(太陽)이 있고 뒷면에는 운문 가운데 반월문(半月紋)·초승달(初승달)이 있으며, 대석 4면에 안상문(眼象紋)과 복련(覆蓮)이 있다.

제액(題額)은 『永興府使韓公墓碣銘(영흥부사한공묘갈명)』이라고 전서(篆書)로 썼는데 자경(字徑)은 5·0 cm이고, 음기(陰記)는 해서(楷書)로 썼으며, 2·0 cm이고, 비문(碑文)은 김안로(金安老)가 지었다.

비의 상태는 전반적으로 마멸이 심해 일부 관독이 불가능한 곳이 있으며, 묘소는 숙인 이씨(李氏)와 합장, 호석·상석·족석·향로석·훈유석·계체석·망주석 2기가 있다. 그리고 1995년에 중수한 비좌 이수의 묘갈이 묘소 아래에 있다.

한사개(1453~1521)는 조선 초기의 문신. 본관은 청주(淸州)。자는 사렴(士廉)。좌찬성(左贊成) 계희(繼禧)의 아들이다.

1480년(성종 11) 별제(別提)에 제수되고, 이어 의금부 도사(義禁府都事)를 거쳐, 주부·좌랑을 역임하였다. 그후 조봉대부(朝奉大夫)에 올라 상의

원 별좌(尙衣院別坐)와 부정(副正)·정(正)을 역임하였고, 뒤이어 1505년(연산군 11)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가 되었다. 이후 통정대부(通政大夫)에 승진, 영흥부사와 해주·광주·진주 등지의 목사(牧使)를 역임하였으며, 후에 병조참판에 추증(追贈)되었다.



한사개 묘소 전경



묘갈[구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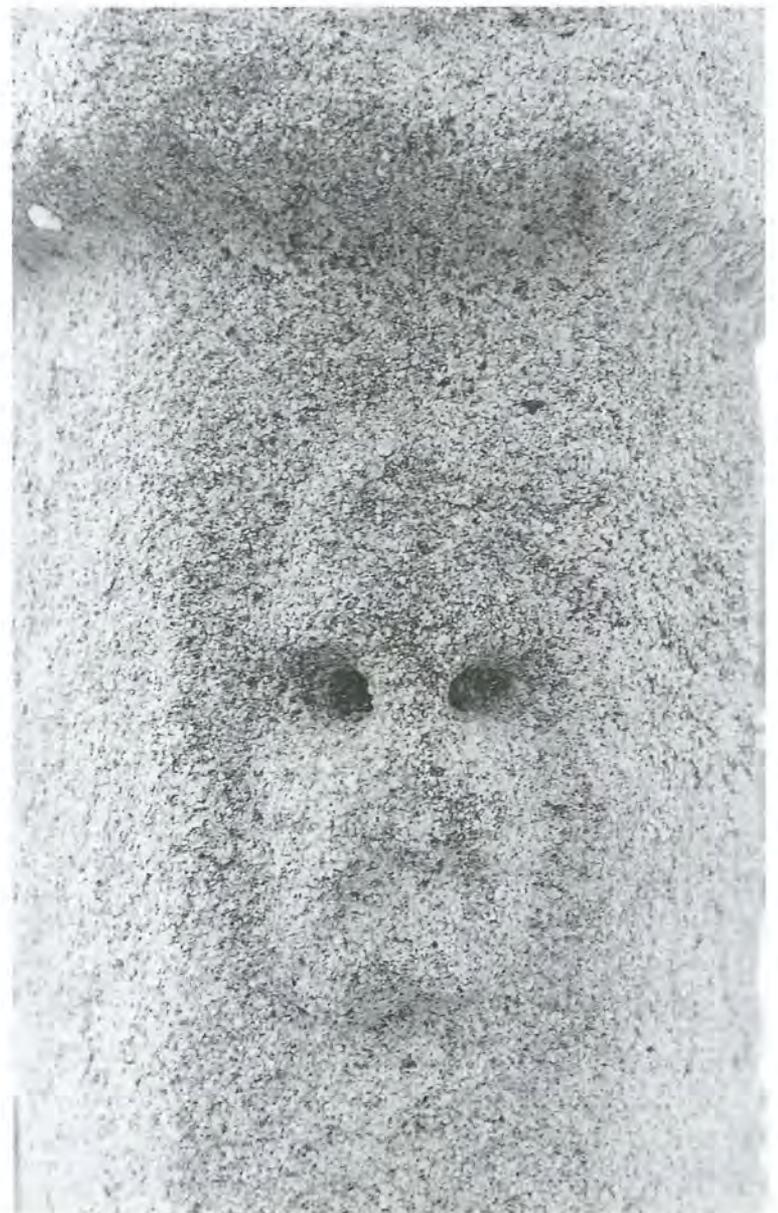
묘갈 비문 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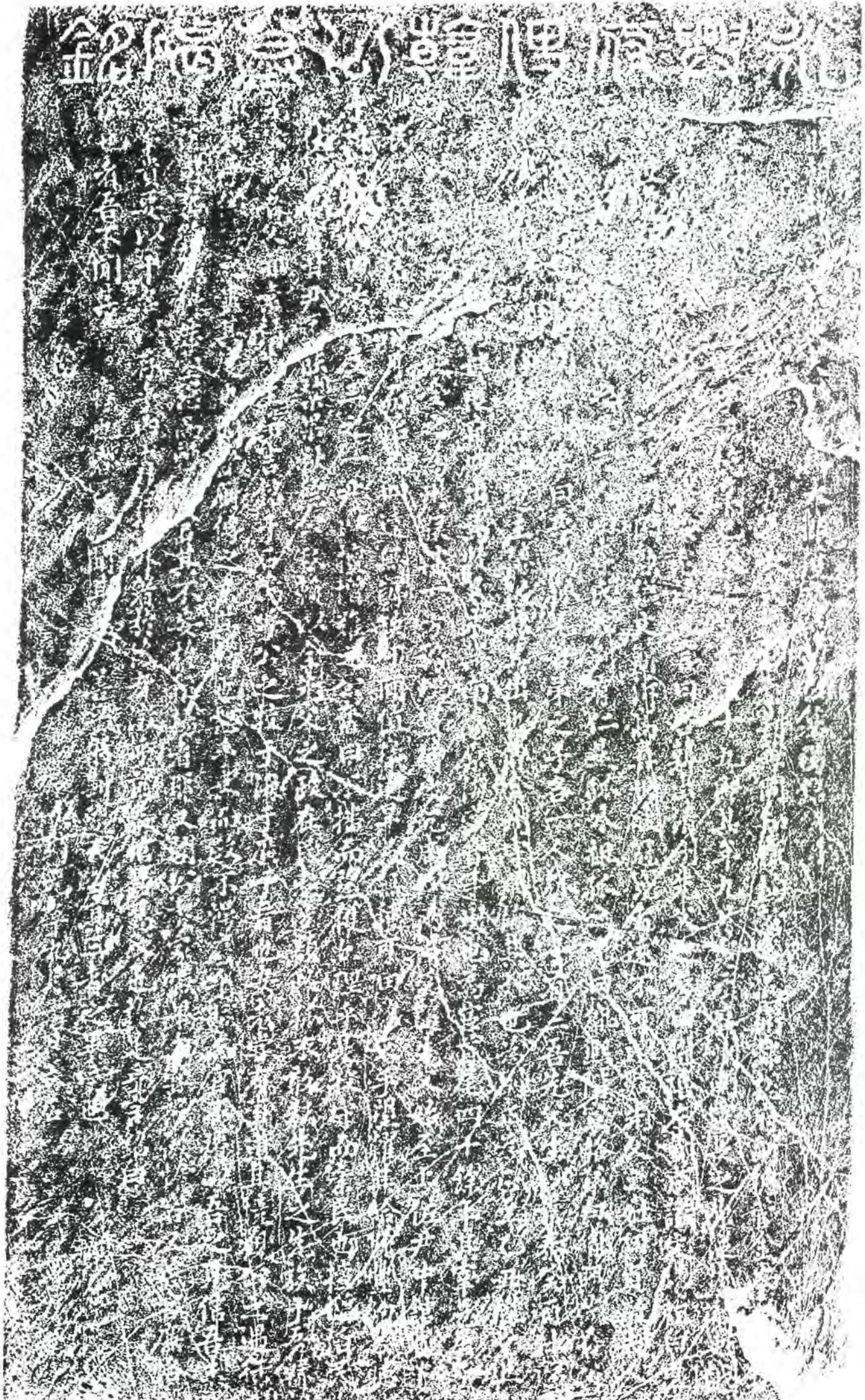
관석[일월문]



망주석



망주석 부분



70×126

永興府使韓公墓碣銘(篆額)

【前 面】

有明朝鮮國□□□□□□□□□□大都護府事韓公墓碣銘并序

嘉善大夫□□□□兼同知義禁府事五衛都摠府副摠管金安老 撰

牧使韓公士介子廉歿于正德辛巳秋七月壽六十九卽其年九月窆于廣州南靈長之原從先隴也越明年秋其孤司藝胤昌以葬訖告安老泣且言曰吾韓出清州先父之考曰繼禧左贊成諡文靖祖曰惠觀察使曾祖曰尙敬領議政策開國勳諡文簡沂高鼻世被冠冕者遠不可以數先父之妣曰貞敬夫人呂氏 贈參判稽女孤之母夫人曰李氏參判有仁是孤外祖孤之兄曰胤熙階宣略弟曰胤興先吾父一月亡姊壻之長曰南世則季曰李玖孤兄若弟之子各一人孤之子有三吾先父生以景泰癸酉仕以成化庚子始以別提移金吾郎遷主簿佐郎其出也倅全州守興海其入也爲副正爲正至乙丑陞堂上僉知中樞又兩出爲都護府四出爲牧爲□□南□原□□□□也爲宦首尾四十餘年其宰邑居于半而政常最無少責貶全之爲州喉轄一方務理賓待之冗咸以兩得爲難先父始至上佐尹中館賓下撫民一以誠信不踰月而政已四達無罅缺可間值歲適歉民無種可田唯束手望糶其給貸豐約常聽于按察計民田殆不及三之一尹以擅增難之公奮曰不播而望獲亦理乎是牧守而棄民也擅增活民雖伏譴吾實甘尹不能禁果秋稔公私賴以全先父之政在民者多類此孤不敢私先生之先族于吾韓先生知吾父亦素請先生一言銘于石嗚呼公之牧于海于廣于晉也安老嘗有事道其境觀公之遇行旅巽乎儀接之盡其度也簡乎廚傳之去其飾也恕乎吏而政不慢廉乎賦而官不瘠以吾之見信吾未見況司藝登高科歷臺憲而轉今官其不忘於稱揚者耶又聞公處家謙卑未嘗設傲惰容又蒞官廉恪不事貴要以干名以存乎內者驗於外著於後者徵乎前益信其爲人也於是乎言銘曰

位也者吾不聞其壽 壽也者吾不聞其後 善乎躬斯隨天 宜三者之畢受也

嘉靖甲子九月 日立石

아, 공이 해주(海州)·광주(廣州)·진주(晉州)의 목사로 있을 적에 안로인 내가 불일이 있어 그 지경을 지나면서 공이 여행객을 대우하는 것을 보았더니, 대하는 의식에 있어서는 공손한 태도로 법도를 다하고, 음식제공과 숙박시설에 있어서는 꾸밈없는 간소한 쪽으로 하였으며, 그리고 아전들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다루었으나 정사는 조금도 만홀(慢忽)한 점이 없었고, 백성에게 부세를 적게 거두었으나 관은 약간도 수척하지 않았다. 이러므로 나는 본 것을 가지고 보지 못한 것을 믿는다. 하물며 사에는 대과에 올라 대헌(臺憲)을 두루 거쳐 현재의 벼슬에 이르고 있으니, 그것은 선인의 아름다움에 대한 칭양(稱揚)을 잊지 않았음인가?

또 들으니, 공은 집에서 처신할 때에는 겸손한 태도로 몸을 낮추고, 한번도 거만한 태도를 갖거나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고, 또 벼슬에 임해서는 청렴 결백하고 정성을 다했으며, 권세를 가진 인사를 섬겨 이름을 구하지 않았다. 안간에 간직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밖의 것을 징험해 보고, 뒤에 나타난 것을 가지고 앞의 것을 증빙해 보니, 더욱 그 사람됨을 믿겠다. 이래서 한 마디 적고 다음과 같이 명을 한다.

벼슬을 할 경우 오래 누린다는 것을 나는 듣지 못했고,

오래 누리는 경우 그 뒤끝이 좋다는 것을 나는 듣지 못했다.

그러나 공은 천리에 따라 몸가짐을 잘하였으니,

이 세 가지를 다 받음이 마땅하리로나.

가정(嘉靖) 갑자 9월 일애 비석을 세움.

이공승(李公升) 묘갈

所在地…盆唐區 板橋洞 山 25-1

建立年代…朝鮮 宣祖 9年(1576)

撰…鄭 惟 吉

書…申 峻

規 模…總高…175cm、碑高…142cm、幅…63cm、厚…19cm

材 質…碑身…大理石、臺石…花崗岩

이공승 묘갈은 판교에서 안양으로 가는 342번 국도에 위치한 낙생초등학교(樂生初等學校) 앞산 이 곤(李坤)의 묘소 아래에 있다.

1576년에 건립된 이 비는 비좌 원수(碑座圓首)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대석의 문양은 마멸이 심해 판독하기가 어렵다.

비문은 정유길(鄭惟吉)이 지었고, 앞면의 자경(字徑)은 7·0cm이고, 음기(陰記)의 자경은 2·5cm의 해서(楷書)로 신 준(申峻)이 썼다.

비의 상태는 앞면에 총탄 흔적이 여러 곳 남아 있고 뒷면이 일부 마멸되었으나 판독이 가능하며, 묘소는 중숙부인 남양홍씨(南陽洪氏)와 합장, 상석·향로석·훈유석·계체석·문인석·망주석이 있다. 그리고 1981년에 건립한 비좌 개석의 묘갈은 14대손 이의일(李義一)이 비문을 지었다.

이공승(1501~1532)은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연안(延安)。자는 수부(秀夫)。정국공신(靖國功臣) 연성군(延城君) 곤(坤)의 아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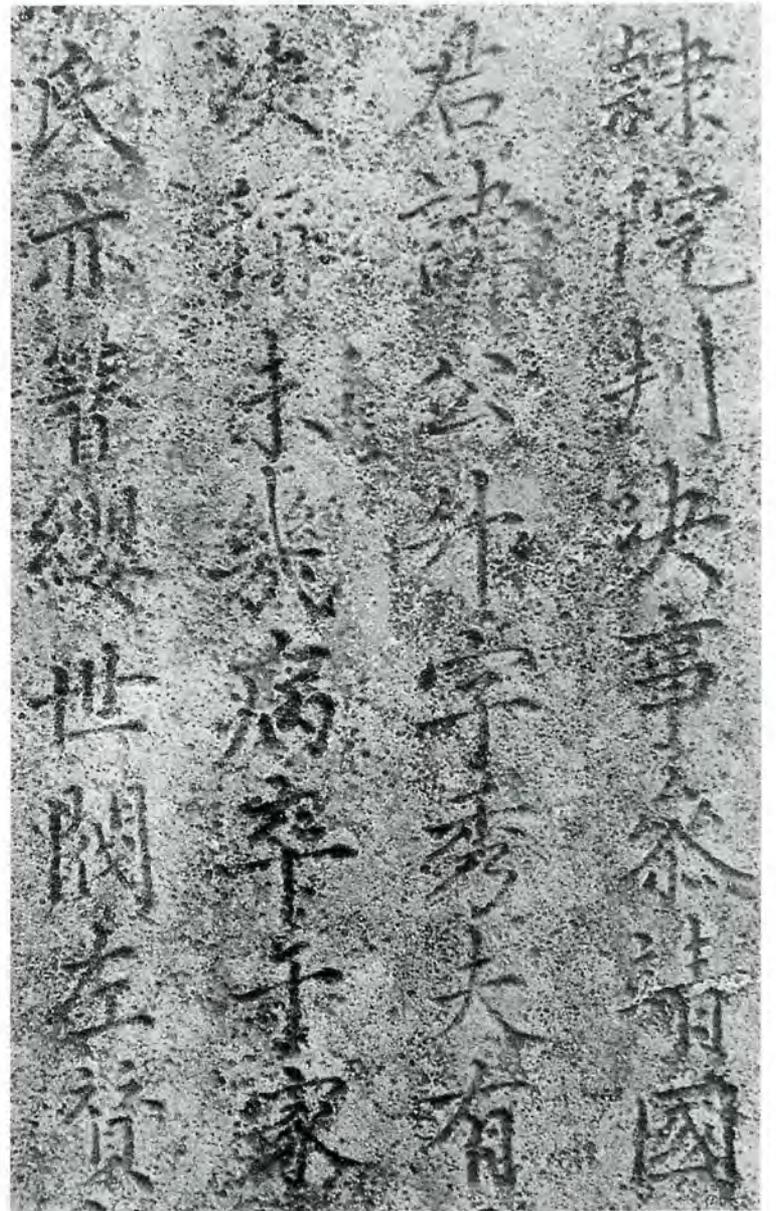
선전관(宣傳官)에 제수되었다가 사옹원 주부(司饗院主簿)에 올랐고, 사헌부 감찰(司憲府監察)에서 장례원 사평(掌隸院司評)에 전임하였으나 병으로 요절(夭折)한 탓에 더 이상 관직이 없고, 관직 재임 중에 시비(是非)를 잘 판결하였다는 칭송을 받았다. 사후에 승정원 좌승지(承政院左承旨)에 추증되었다.



이공승 묘소 전경



묘 갈



묘갈 비문 일부



【前 面】

宜人 南陽 洪氏 墓

通善郎掌隸院司評李公之墓

【後 面】

通善郎行掌隸院司評李公墓碣銘并序

崇政大夫行禮曹判書兼知 經筵鄭惟吉 撰

典設司別坐通善郎申峻 書

延安之李爲世望族左政丞元發後其源厥後有曰根健 贈吏曹參議寔生仁文僉知中樞
 府事 贈禮曹參判寔生坤官至掌隸院判決事參靖國勳封延安君卒 贈禮曹判書寔娶
 郡守柳順行之女以弘治辛酉生君諱公升字秀夫有才略初授宣傳官陞司饗院主簿遷
 司憲府監察轉爲掌隸院司評以剖決稱未幾病卒于家享年三十三君天性信厚爲親黨所
 愛重聞訃之日迭相嗟悼配南陽洪氏亦簪纓世閥左贊成淑之女以門以德克配于君寡居
 凡三十年遷坊之教無間於子孫奉先之誠不替於蘋藻宗黨賢之胤子侃奉養無缺以咸興
 判官侍奉晨昏閱一歲而逝于公衙享年六十一以嘉靖壬戌十一月二十二日合葬于廣州
 治西板橋里戊坐辰向之原一男卽所謂郡守侃娶縣令金文瑞之女生四男二女曰大老曰
 應男曰重老曰廷老女適尹嶠次適韓景祺二男縣監偃娶神光守之女生二男三女曰國老
 曰德老女適完昌守次適鄭浩餘幼女適忠義衛李英懌生二女長適許筓次適洪策銘曰

懿彼公孫 惟夫人斯 兩美同穴

大而能壽 宜福之厚 天地與久

萬曆四年丙子二月 日刊立

【譯 文】

의인남양홍씨묘 통선랑장예원사평이공지묘

통선랑 행장례원사평 이공(李公) 묘갈명 병서

승정대부 행예조판서 겸지경연(崇政大夫行禮曹判書兼知經筵) 정유길(鄭惟

吉)은 글을 짓고,

전설사별좌 통선랑(典設司別坐通善郎) 신준(申峻)은 글을 쓰다.

연안 이씨(延安李氏)는 세상에서 명망 있는 집안으로 꼽히는데, 바로 좌정승(左政丞)을 지낸 원발(元發)의 후예인 것이다. 그 뒤에 근건(根健)이란 분이 있어 이조 참의(吏曹參議)에 추증되었고, 이분(參의공)이 인문(仁文)이란 분을 낳았는데,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를 지내고 예조 참판(禮曹參判)에 추증되었으며, 이분(참판공)이 곤(坤)이란 분을 낳았는데 벼슬이 장례원 판결사(掌隸院判決事)에 이르는 동시에 정국공신(靖國功臣)에 참여되고 연안군(延安君)에 봉해졌으며, 작고하자 예조 판서(禮曹判書)에 추증되었다. 이분(판서공)이 군수(郡守)를 지낸 유순행(柳順行)의 딸에게 장가들어 홍치(弘治) 신유년(辛酉年)에 공을 낳았다.

공은 이름은 공승(公升), 자는 수부(秀夫)인데, 재주와 지략이 있었다. 처음에 선전관(宣傳官)에 임명되었다가 사용원 주부(司饗院主簿)로 승진되고, 이어 사헌부 감찰(司憲府監察)로 옮겼으며, 또 전직하여 장례원 사평(掌隸院司評)이 되었는데, 판결을 잘 하기로 일컬어졌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병으로 집에서 작고하였으니, 향년 33세였다.

공은 타고난 천성이 신실하고 후중하였기 때문에 친족들의 애지중지하는 대상이 되었는데, 부음(訃音)이 들리는 날 모두들 탄식하고 애도였다.

배위(配位)는 남양 홍씨(南陽洪氏)로서 역시赫赫한 양반 집안의 좌찬성(左贊成)을 지낸 숙(淑)이란 분의 딸인데, 문벌과 덕을 가지고 공에게 배필이 되었다. 홍씨는 홀몸으로 30년을 사는 동안에 여러 번 이사를 하는 등 자손들의

교육에 대해 마음을 기울이고, 재수를 정결하게 챙기는 등 조상을 받드는 일에 정성을 쏟았으므로 종족들이 그를 어질게 여겼다.

그 아들 간(侃)은 어머니를 봉양하는 일에 조금도 부실한 점이 없었다. 함흥판관(咸興判官)의 직분을 가지고 효성으로 모셨는데, 그 어머니는 1년 만에 관아에서 작고하였으니, 향년 61세였다. 가정(嘉靖) 임술년(壬戌年) 11월 22일에 광주(廣州) 읍소재지 서쪽에 위치한 판교리(板橋里) 슬좌지향(戊坐辰向)의 자리에 합장하였다.

2남 1녀를 두었는데, 맏아들은 곧 이른바 군수(郡守)인 간(侃)으로 현령(縣令) 김문서(金文瑞)의 딸에게 장가들어 4남 2녀를 낳았으니, 아들은 대로(大老)·응남(應男)·중로(重老)·정로(廷老)이며, 맏딸은 윤과(尹峤)에게 시집가고 둘째 딸은 한경기(韓景祺)에게 시집갔다. 둘째 아들은 현감(縣監) 언(僉)으로 신광수(神光守)의 딸에게 장가들어 2남 3녀를 낳았으니, 아들은 국로(國老)·덕로(德老)이며, 맏딸은 완창수(完昌守)에게 시집가고, 둘째 딸은 정호(鄭浩)에게 시집갔으며, 나머지는 아직 어리다. 딸은 충의위(忠義衛) 이영현(李英嬭)에게 시집가서 2녀를 낳았으니, 맏딸은 허기(許筭)에게 시집가고, 둘째 딸은 홍책(洪策)에게 시집갔다. 다음과 같이 명을 한다.

아름다운 저 공손(公孫)1), 강대하면서 수를 누리리로다.

그리고 또 부인은, 마땅히 후한 복을 누리리로다.

두 아름다움 묘월 함께 하였으니, 천지와 무궁하리.

만력(萬曆) 4년인 곧 병자년(丙子年) 2월 일애 비석을 세움.

1) 공손(公孫)···여기서는 귀족의 혈통을 가리킴.

이청신(李清臣) 묘갈

所在地…中院區 麗水洞山 16

建立年代…朝鮮 宣祖 27年(1649)

撰…鄭斗卿

書…李仁實

規模…總高…120cm、碑高…108cm、幅…50cm、厚…16cm
 材質…碑身…大理石、臺石…花崗岩

이청신 묘갈은 성남에서 광주로 가는 3번 국도에서 도촌동으로 우회전한 후 터널 못미처에서 우측으로 내려가면 우측산 정상쪽에 있다.

1649년에 건립된 이 비는 비좌 원수(碑座圓首)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대석에는 안상문(眼象紋)과 복련(覆蓮)이 있다.

제액(題額)은 『護軍李公墓碣銘(호군이공묘갈명)』이라고 전서(篆書)로 썼는데 자경(字徑)은 6·0cm이고, 앞면의 자경은 6·0cm, 음기(陰記)의 자경은 2·5cm의 해서(楷書)로 이인실(李仁實)이 썼으며, 비문은 정두경(鄭斗卿)이 지었다.

비의 상태는 뒷면 상부가 마멸이 심해 일부 판독이 난해하며, 묘소는 숙인 안동김씨(安東金氏)와 합장, 상석·훈유석·계체석·문인석이 있다. 그리고 회천말길 31에 재실이 있다.

이청신(1529~1590)은 조선 중기의 무신. 본관은 완산(完山)。자는 차인(次仁)。선공감역(繕工監役) 몽석(夢錫)의 손자, 아버지는 무주현감(茂朱縣監) 예(藝)이고, 어머니는 고성군(固城君) 이맹우(李孟右)의 딸이다. 종숙부(從叔父) 회(薈)의 양자(養子)가 되었다.

어모장군 행 충좌위부호군(禦侮將軍行忠佐衛副護軍)을 역임하였고, 부모의 상(喪)을 당했을 때에 거상(居喪)을 잘하여 칭찬을 들었다.



이청신 묘소 전경



문인석



묘갈



50×108

故國公諱... 墓誌銘

公諱... 字... 號... 生於... 卒於... 葬於... 墓誌銘... 公諱... 字... 號... 生於... 卒於... 葬於... 墓誌銘...

公諱... 墓誌銘

16x108

50x108

【前面】

淑人 安東 金氏 並 祔

禦侮將軍行忠佐衛副護軍李清臣之墓

【後面】

護軍李公墓碣銘 (篆額)

公姓李氏諱清臣字次仁完山人六代祖伯由事 太祖以開國勳封完城君官
 至禮曹判書祖諱夢錫繕工監役考諱藝茂朱縣監娶固城君李孟友之女生公
 少以善居喪見稱從叔父蒼無子取為嗣萬曆庚寅七月卒享年六十二配安東
 金氏北兵使鐵壽子錦之女也以得婦道見稱後公三年卒享年六十八與公同
 葬于廣州南加次栗子坐午向之原公生三子一女長衍訓練奉事次衍懷仁縣
 監次衍掌樂主簿女適進士金耆衍生二子一女長元老勵節校尉次元祥宣略
 將軍女適教官金重器衍生一子元龜 獻陵寢郎 贈工曹參議元老生四子
 二女長瀟通德郎次纘宗為人後次濩次濫女適閔燦次適鄭德欽元龜生一子
 二女男濟將仕郎女適趙元耘次適李國華元祥生六子淹濯瀆浣泌女適禹
 九鼎瀟生二子一女晚昌昭昌女幼纘宗一子二女男墀女適尹以元濟生四男
 胄昌壽昌後昌俊昌趙元耘生一子全道淹生二子一女道昌德昌濯生一子時
 昌銘曰 公之孫胄昌從余學來乞銘刻諸石 成 均 進 士 李仁實書
 崇禎九年後己丑十一月立 通訓大夫行弘文館副校理鄭斗卿撰

【右側面】

公之第二子懷仁縣監衍之墓在下

【譯文】

숙인안동김씨병부 어모장군행충좌위부호군이청신지묘

호군 이공(李公) 묘갈명

공은 성은 이씨(李氏)요, 이름은 청신(淸臣)이요, 자는 차인(次仁)이며, 본관은 완산(完山)이다. 6대조 백유(伯由)는 태조(太祖)를 섬겼기 때문에 조선을 개국한 공으로 완성군(完城君)에 봉해지고 벼슬은 예조 판서(禮曹判書)에 이르렀으며, 조부는 이름이 몽석(夢錫)인데, 선공감역(繕工監役)을 지냈으며, 아버지는 이름이 예(藝)로서 무주현감(茂朱縣監)을 지냈는데, 고성군(固城君) 이맹우(李孟友)의 딸에게 장가들어 공을 낳았다.

공은 어려서 거상(居喪)을 잘하는 것으로 칭찬을 받았다. 그 종숙부(從叔父)인 회(晄)가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공을 데려다가 뒤를 이었다.

만력(萬曆) 경인년(庚寅年) · 宣祖 23, 1590) 7월에 작고하니, 향년 62세였다. 배위는 안동 김씨(安東金氏)로 북병사(北兵使) 철수(鐵壽)의 아들인 상(鎋)의 딸인데, 부도(婦道)가 있다고 칭찬을 받았다. 공보다 3년 뒤에 작고하니 향년 68세였는데, 공과 함께 광주(廣州)의 남쪽 가차울(加次栗) 자좌오향(子坐午向)의 자리에 장사지냈다.

공은 3남 1녀를 낳았으니, 맏아들은 연(衍)인데 훈련봉사(訓鍊奉事)를 지내고, 둘째 아들은 간(衍)인데 회인현감(懷仁縣監)을 지내고, 셋째 아들은 현(衍)인데 장악원 주부(掌樂院主簿)를 지냈으며, 딸은 진사(進士)인 김구(金耆)에게 출가하였다.

연은 2남 1녀를 낳았으니, 맏아들은 원로(元老)인데 여절교위(勵節校尉)가 되고, 둘째 아들은 원상(元祥)인데 선략장군(宣略將軍)이 되었으며, 딸은 교관(敎官) 김중기(金重器)에게 출가하였다.

간은 1남을 낳았는데, 이름이 원구(元龜)로 헌릉침랑(獻陵寢郎)을 지내고 공조참의(工曹參議)에 추증되었다.

원로는 4남 2녀를 낳았으니, 맏아들 숙(濬)은 통덕랑(通德郎)이 되고, 둘째

째 아들 찬종(繼宗)은 남의 후계자가 되었으며, 셋째 아들은 집(溍)이고, 넷째 아들은 남(濼)이며, 맏딸은 민찬(閔燦)에게 출가하고, 둘째 딸은 정덕흠(鄭德欽)에게 출가하였다.

원구는 1남 2녀를 낳았으니, 아들 제(濟)는 장사랑(將仕郎)이 되었고, 맏딸은 조원운(趙元耘)에게 출가하고, 둘째 딸은 이국화(李國華)에게 출가하였다.

원상은 6남 1녀를 낳았으니, 아들은 엄(淹) · 탁(濯) · 헌(憲) · 완(浣) · 윤(沈) · 필(泌)이고, 딸은 우구정(禹九鼎)에게 출가하였다.

숙은 2남 1녀를 낳았으니, 아들은 만창(晩昌)과 소창(昭昌)이며, 딸은 아직(阿直)이다. 찬종은 1남 2녀를 낳았으니, 아들은 지(墀)요, 딸은 윤이원(尹以元)에게 출가하였다. 제는 4남을 낳았으니, 주창(冑昌) · 수창(壽昌) · 후창(後昌) · 준창(俊昌)이다. 조원운은 1남을 낳았으니, 전도(全道)이며, 엄은 2남 1녀를 낳았으니, 아들은 도창(道昌) · 덕창(德昌)이고, 탁은 1남을 낳았으니, 시창(時昌)이다. 다음과 같이 명을 한다.

공의 손자 주창이 나에게 글을 배웠는데, 그가 와서 비석에 세길 명을 요청한다.

통후대부(通訓大夫) 행(行) 홍문관부교리(弘文館副校理) 정두경(鄭斗卿)은 글을 짓고,

성균진사(成均進士) 이인실(李仁實)은 글을 쓰다.

숭정(崇禎) 9년 후인 기축년(己丑年) 11월에 비석을 세웁.

공의 둘째 아들 회인현감 간의 묘가 아래에 있다.

권 징(權徵) 묘갈

所在地…壽井區金土洞山 63

建立年代…朝鮮孝宗 5年(1654)

撰…宋時烈

書…尹文學

規 模…總高…190cm, 碑高…155cm, 幅…66cm, 厚…18cm
 材 質…碑身…花崗岩, 臺石…花崗岩

권 징 묘갈은 판교에서 신촌동으로 가는 23번 국도에서 금토동으로 좌회전 하여 내동으로 가서 보국사를 지나 청계산길 92 집 뒷산 동남쪽에 있다.

1654년에 건립된 이 비는 비좌 원수(碑座圓首)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대석 4면에 안상문(眼象紋)과 복련(覆蓮)이 있다.

비문은 송시열(宋時烈)이 지었고, 앞면의 자경(字徑)은 7·0cm이고, 음기(陰記)의 자경은 2·5cm로 윤문거(尹文學)가 해서(楷書)로 썼다.

비의 상태는 전체적으로 마멸이 심해 일부 판독이 불가능한 곳이 있으며, 묘소는 증정경부인 전주이씨(全州李氏)와 합창, 상석·향로석·훈유석·계체석·문인석이 있다. 그리고 1988년에 개수한 비좌 이수의 묘갈은 11대손 권태연(權泰淵)이 추기(追記)를 하였다.

권 징(1538~1598)은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안동(安東). 자는 이원(而遠), 호는 송암(松庵). 증집의(贈執義) 대기(大器)의 손자. 사직(司直)·광(磁)의 아들이다.

1562년(명종 17)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검열(檢閱)이 되고, 1567년에 주서(注書)가 되었다. 이듬해에 병조좌랑으로 춘추관 기사관을 겸직하였으며, 「명종실록」 편찬에 참여하였다. 그뒤 동부승지·도승지·형조참의에 임명되었다. 뒤이어 전주부윤(全州府尹) 그리고, 안변부사·강원도관찰사

을 역임. 1586년(선조 19) 형조참판, 충청·함경도의 관찰사였다가 병조판서 시절에 평안도관찰사로 좌천되기도 했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경기도지방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경기도관찰사에 특별히 임명되어 칙령을 막으려고 최선을 다하였으나 패배하고, 삭녕(朔寧)에 들어가 흠어진 군사들 모아 군량미 조달에 진력하였다. 그리고 권울(權慄) 등과 함께 경기·충청·전라도의 의병을 규합하여 왜병과 싸웠다. 1593년 서울탈환 작전에 참가하였으며, 명나라 제독 이여송(李如松)이 추진하는 화의에 반대하고 끝까지 왜병을 토벌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뒤 공조판서가 되어 전년 9월에 왜병에 의해 파헤쳐진 선릉(宣陵)과 정릉(靖陵)의 보수를 주관하였다. 1594년 병으로 벼슬에서 물러난 뒤에도 상소로 자신의 의견을 자주 개진하였다.

영의정에 추증되었고, 시호는 충정(忠定)이다.



권 정 묘소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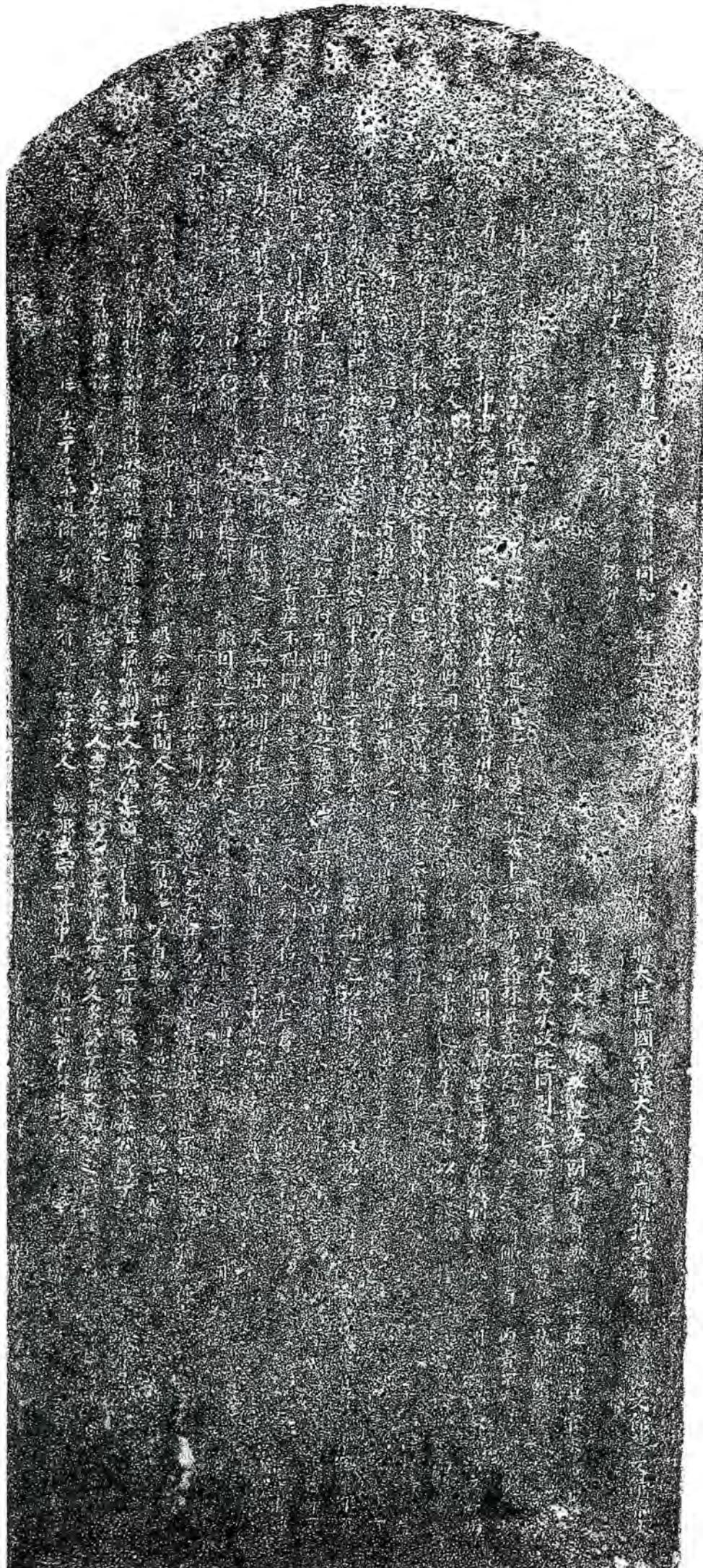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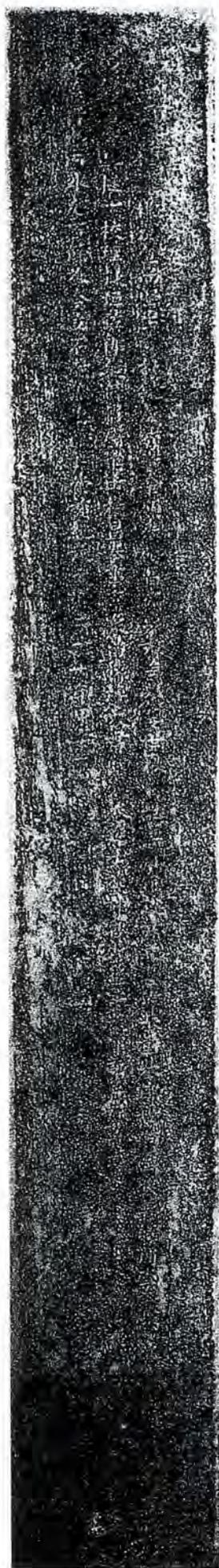
문인석



묘 갈







18×155



18×155

【前 面】

有明朝鮮資憲大夫兵曹判書兼知義禁府事同知

經筵春秋館事五衛都摠府都摠管 贈大匡輔

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兼領 經筵弘文館藝

文館春秋館觀象監事 世子師安東權公諱徵字

而遠之墓配貞夫人 贈貞敬夫人全州李氏附左

【後 面】

有明朝鮮國資憲大夫兵曹判書兼知義禁府事同知 經筵春秋館事五衛都摠府都摠管 贈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兼領 經筵弘文館藝文

館春秋

館觀象監事 世子師□□□□□□權公墓碣銘并序

通政大夫承政院右副承旨兼經筵參贊官宋時烈 撰

通政大夫承政院同副承旨兼 經筵參贊官春秋館修撰官尹文學 書

漢之南月川里有故松菴權公諱徵字而遠衣履之藏始公弱冠成進士佯躄避權姦卜壻登第爲翰林直筆不饒其惡 母后大漸佛事有 內旨不奉 命坐是官少

踦然益有峻望如玉堂薇垣中書天官郎皆極一時之選嘗在漕臺黜大州牧以肅 朝命階通政由同副至都承旨再爲參議刑曹爲養尹全州治稱神明鄭汝

立寄州

境公絕不款時要路多泣立人由是旣入還出自安邊改江原監司公先喪考母夫人獨在京 特旨來省還任未幾遭喪以歸服闋 特陞兵刑曹參判時有南

北警

上器公故以彤弓旅矢先後 命公觀察忠清咸鏡道己丑 召拜兵曹判書曰方今本兵非某不可汝立謀叛誅諫官論時相欲戮告者以反獄後事發而倖臣

恃寵黨

護不以實告忤 旨黜公進曰言者獲譴雖有指鹿之奸發於殿階誰復言之向姦黨推重汝立以攻忠賢倘非汝立逆誅則朝廷幾爲李潑惟讓之朝廷矣 上

怒甚有

救者得解然竟出按關西鄭松江澈方安置界中衆怒猶未怠公坐不寔劾去壬辰倭寇至 朝廷尤以根本爲憂 特叙爲京畿監司首陳備禦策忌者沮格寇

深自領

三萬兵將守漢江 上忽西幸有 旨扈 駕遂以兵付元帥卽追赴之賊渡江 上謂公曰且守臨津公見走還諸帥諭 旨勉與死守公對敵應機決敗算成 諸帥不

能用官軍不利公挺身簡銳與賊爭鋒賊不敢渡屬有疾不視帥臨津竟失守公痛哭遂入朔寧招集散亡倉卒猶不失師律御史至不得入軍門 大駕至平壤 城中始

無井公前時鑿十丈者以戒不虞及是數萬之師賴之 天兵出公聞卽播告以鼓士氣自臨津後大小申狀路梗未達有 朝責俄自分 朝禡上故旣罷還叙 拜都巡

察使入江都以應西南軍仍饋餉 天兵李提督破平壤賊因進兵公竭力收支或自負囊橐下皆盡死軍興不乏賊震驚 陵寢公提調 山陵事拜工曹判書 賑恤使

同諸宰顧李提督乞勿許倭和 上還都賊猶據海澨 賜對請生聚教訓以自強毋徒乞天兵爲也甲午病猝劇自是不復任事然猶疏陳大計前後勤懇公生 歿皆戊

戌歲 贈領議政公安東人其先本新羅國姓金氏麗祖賜今姓世有聞人至考磁甚有學行公自幼異常嘗遇賊不爲動容止整暇群盜驚伏親瘡割指廬墓終 喪兄弟

怡愉俸祿常均立朝批鱗觸邪辨遏堅懇泣郡處藩刑德並流去則其人必涕慕謂有祿於朝者不宜有雞豚之察常慕公儀子之爲又不爲子孫計曰但遭以孝 友清白

可也愷悌之德孚於內忠信之行著於外可謂衆美兼備之君子矣夫人李氏淑哲柔嘉克婦克母公又多賢子孫又見公之德行於家而流無窮也銘曰賢哉大 夫天賦

之純 孝以爲子忠以爲臣 友于兄弟道備于身 既有旣賁延昇後人 蹶蹶武守實贊中興 胡不彝常以胙功能 螭首之碑博士將銘 我姑取之用 表其瑩

【左側面】

公配貞夫人 贈貞敬夫人李氏籍全州司憲府監察諱孝彥之女也曰別坐恪縣監恰□參判怙翊衛愷監察具旭判書沈諮府使李星男公之子若婿也 恪無后

怡早死顯而世其家者參判也曰別坐僕五衛將佾縣監僑球休攸儔脩朴瀏判官金屋俞撥朴世冕參奉尹鑄姜太賢郡守柳晋三正沈光洙縣令光泗許

賓監司

吳端安千健進士柳莫李巖郡守李時仲掌令崔煜公之孫行也後恪而主公祀者侂也曰憲懋恕志愍想□□懿諗認恁慈慰悉愿思忠鄭聖漢承旨沈之漢姜廷

【右側面】

益朴世樞世樟世櫛金尙堅生員朴銑成壽童金碩來碩昌碩曼尹海舉姜世鳳朴世樑俞命說尹元基偉基重基鄭世洞金暖姜翊周李震奎沈樟栢相李命龜尹

以錫留守吳挺一校理挺垣佐郎挺緯挺璧進士挺昌奉事李象鼎麟坪大君潛□□進士李粹蕃縣監安光郁部將安承培李天漢李世章世萬崔泰齊泰隆公之

曾孫行也內外凡百餘人今立石者追也 崇禎紀元之後二十七年甲午五月 日 不肖□□□謹立石

【譯 文】

유명조선자헌대부병조판서겸지의금부사동지 경연춘추관사오위도총부도총관 증대광보국승록대부의정부영의정겸령 경연홍문관예문관춘추관관상감사 세자사 안동권공회징자이원지묘 배정부인 증정경부인전주이씨부좌

유명조선국 자헌대부 병조판서 겸 지의금부사 동지경연춘추관사 오위도총부도총관 증대광보국승록대부 의정부영의정 겸영경연홍문관예문관춘추관관상감사 세자사 □□□□□□□□ 권공(權公)묘갈명 병서

통정대부 승정원우부승지 겸 경연참찬관 송시열(宋時烈)은 글을 짓고 통정대부 승정원부승지 겸 경연참찬관 춘추관수찬관 윤문거(尹文學)는 글을 쓰다.

한강의 남쪽에 위치한 월천리(月川里)이란 마을에 고(故) 송암(松菴) 권공(權公) 곧 이름은 징(徵)이고 자는 이원(而遠)이란 분의 묘소가 있다. 공은 약관의 나이에 진사(進士)가 되었는데, 이 무렵에 거짓으로 절름발이 행세를 해서 권간(權姦)·권세를 가진 간신(奸臣)이 고르는 사위 감을 피한 적이 있었고, 과거에 급제하여 한림(翰林) 1)이 되었을 적에는 직필(直筆) 2)로 남의 나쁜 점을 가차없이 적었다. 모후(母后) 3)가 부처의 일에 크게 관심을 갖자 그 일을 도우라는 명중 임금이 은밀한 명령이 있었으나, 공은 그 명령을 받들지 않았다가 그만 한림에 정채되고 잠시 승진이 안 되었지만, 명망은 더욱 높았다.

옥당(玉堂) 4), 미원(薇垣) 5), 천관랑(天官郎) 6) 등과 같은 벼슬을 차례로 역임하였는데, 이들 벼슬은 모두 한때 최고의 선발이었던 것이다. 공은 또한 일찍이 조대(漕臺)에 있다가 큰 고을 수령으로 좌천되었다. 그러다가 조정의 명을 받아 품계가 통정대부(通政大夫)에 오른 다음, 동부승지(同副承旨)를 거쳐서 도승지에 이르고, 재차 형조참의(刑曹參議)가 되어 생계를 꾸려갔다.

전주부윤(全州府尹)으로 나가서는 고을을 다스림에 있어神明(神明)하다는 칭찬을 받았다. 마침 정여립(鄭汝立)이 경내에 살고 있었으나 공은 그를 끌고 다정하게 대하지 않았다. 이때 요로(要路)에 정여립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 때문에 전주부윤으로 들어간 지 얼마 안되어서 도로 나왔다. 그 길로 안변부사(安邊府使)로 좌천되었다가 다시 강원감사로 임명받았다. 공은 먼저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 혼자 서울에 계셨기 때문에 선조 임금의 특명으로 서울에 와서 어머니를 찾아뵙고 다시 임지로 돌아가곤 했다. 그러다가 얼마 후에 모친상을 당하여 서울로 돌아왔고, 복을 벗고는 선조 임금의 특명으로 병조 참판에 이어 형조 참판에 올랐다.

이때 남쪽 지방과 북쪽 지방에 변란이 일어났다. 선조 임금은 공을 큰그릇으로 여겼기 때문에 활과 화살을 가지고 전후에 걸쳐 공에게 충청도와 함경도를 관찰하도록 명하였다. 기축년(己丑年)에는 공을 불러들여 병조 판서에 임명하면서 『지금 병조 판서를 할 사람은 권징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였다. 여립(汝立)이 반역을 꾀하다가 배임을 당하였다. 그러자 간관(諫官)이 『당시의 정승이 반역을 고발한 사람에게 대하여 반옥죄(反獄罪)를 가지고 죽이려고 하였는데, 뒤에 사실이 발각되었으나 상의 총애를 받는 신하가 상의 총애를 믿고 당을 비호하여 사실대로 고하지 않았습시다.』라고 논박하였다가 임금의 비위를 거슬러서 쫓겨났다. 이를 지켜보던 공은 임금의 앞으로 나가서 아뢰기를 『언관(言官)이 견책을 받으면 비록 궁전의 뜰에서 사슴을 말이라고 가리키는 간사함(?)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누가 다시 말을 하겠습니까? 접때 간사한 무리들이 여립을 추중하여 충현(忠賢)한 사람을 공격하였으니, 혹시 여립이 반역죄로 배임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조정이 거의 이발(李潑)과 백유양(白惟讓)의 조정이 되었을 것입니다.』라고 하자, 선조 임금의 노여움이 심하였는데, 그를 구제한 사람이 있어서 풀러날 수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공은 결국 평안도 관찰사로 좌천되고 말았다.

송강(松江) 정철(鄭澈)이 이때 경내에 안치되어 있었는데, 못 사람의 노여

1) 한림(翰林) ... 조선시대 예문관(藝文館) 검열(檢閱)의 별칭.
 2) 직필(直筆) ... 구애받지 않고 사실대로 적는 사필(史筆).
 3) 모후(母后) ... 여기서는 명종의 어머니인 문정왕후(文定王后)를 가리킨다.
 4) 옥당(玉堂) ... 홍문관(弘文館)의 별칭.
 5) 미원(薇垣) ... 사간원(司諫院)의 별칭.
 6) 천관랑(天官郎) ... 이조(吏曹)의 낭관(郎官).
 7) 사슴을... 간사함... 중국 진(秦) 나라의 조고(趙高)가 이세황제(二世皇帝)에게 사슴을 말이라고 속여서 바친 일을 가리킨다.

움이 아직도 풀리지 않아 정철을 처형할 일에 열을 올리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공은 정철을 빨리 탄핵하지 않은 죄목에 걸려 함경도 관찰사직에서 떠났다. 임진년에 왜구(倭寇)가 몰려오자, 조정에서는 나라의 근본구실을 하는 수도의 방어문제에 대해 더욱 걱정을 하였다. 그래서 특별히 공을 서용(敍用)⁸⁾하여 경기감사에 임명하였다. 그러자 공은 경기감사에 부임하여 맨 처음 비어책(備禦策)을 올렸는데, 꺼리는 자가 이를 저지하였다. 왜구가 깊숙이 침입해오자, 공은 스스로 군사 3만 명을 거느리고 장차 한강을 지키려고 하였는데, 선조 임금의 갑자기 서쪽으로 떠나면서 어가(御駕)을 호종(扈從)하라는 지시가 있었다. 그래서 공은 결국 군사를 원수(元帥)에게 넘기고 즉시 어가를 뒤 쫓아갔다. 적이 한강을 건너자, 선조 임금은 공에게 『임진강을 지키도록 하라.』고 하였다. 그러자 공은 달려 돌아오는 여러 장수들을 보고 임금의 뜻을 전달한 다음, 그들과 함께 사력을 다해 임진강을 지켰다. 공은 적을 대하며 임기응변을 하였고, 패배와 성사 문제를 잘 판단하였다. 여러 장수들은 관군(官軍)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불리한 상황에 처해졌다. 이때 공이 몸을 빼쳐 나가 정예병(精銳兵)을 뽑아 가지고 적과 칼끝을 겨루었으므로 적이 감히 임진강을 건너지 못하였다. 그런데 이 무렵에 공이 갑자기 병이 나서 군사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하자, 임진강이 결국 지켜지지 못하였다. 공은 통곡하고 드디어 삭녕(朔寧)으로 들어가서 흠어진 군사를 불러모았다. 급박한 상황에서도 오히려 군율(軍律)을 잃지 않았으므로 어사(御史)가 와서도 군문(軍門)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 어가가 평양성 안에 이르렀다. 평양성 안에 원래는 우물이 없었는데, 공이 전에 열 길이 된 우물을 파서 비상시를 대비해 놓았었다. 그래서 이때 와서 수만 명의 군사가 이를 힘입게 되었다. 명나라 구원병이 나오자, 공은 그 소식을 들은 즉시 소문을 퍼뜨려서 사기를 진작시켰다.

임진강 이후부터는 크고 작은 보고서가 길이 막혀서 전달되지 못하였다. 그러자 조정에서 문책하였는데, 조금 후에 분조(分朝)로부터 전해 올라왔기 때문에 이미 과직되었다가 도로 서용되어 도순찰사(都巡察使)에 임명되었다. 공은 강도(江都)로 들어가서 서쪽과 남쪽에 있는 군사들을 응대하고 따라서 명나라 군사들에게 군량을 댔다. 이제독(李提督·李如松)이 평양에 주둔하고 있는 왜적을 깨뜨리고 이내 진군하자, 공은 군수물자를 조달하는 데 힘을 다 쏟

았다. 더러는 직접 양식포대를 지고 다니기도 하였다. 그래서 아래에서는 모두 다 죽어갔지만, 군사는 굶주리지 않았다. 왜적이 능(陵)을 파헤쳤는데, 그 능의 보수하는 일을 공이 주관하였다. 공조 판서(工曹判書)와 진휼사(賑恤使)에 임명되었다.

여러 재신(宰臣)들과 함께 이제독에게 호소하여 왜적이 칭하는 화친을 허락하지 말도록 요구하였다. 어가가 도성으로 돌아왔는데, 왜적은 아직도 바닷가에 옹거하고 있었다. 임금과 대화하는 자리에서 공은 『백성들을 잘살게 만들고 따라서 잘 교육을 시켜서¹⁰⁾ 스스로 강국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지, 한갓 중국 군사에게만 의지할 것이 아닙니다.』라고 청하였다.

갑오년(甲午年)에 병이 갑자기 심해져서 이때부터는 다시 일을 맡지 않았다. 그러나 상소로 국가대계를 진언하는 일에 대해서는 전후에 걸쳐 온갖 정성을 다하였다. 공이 태어난 해와 작고한 해는 다 무술년(戊戌年)이었고, 사후에 영의정이 추증되었다. 공은 본관이 안동(安東)이고, 그 선계(先系)는 본래 신라국성(新羅國姓)이었는데, 고려 태조가 지금의 성을 하사한 것이다. 대대로 드러난 인물이 있었고, 아버지인 평(愷)에 이르러서는 매우 높은 학행이 있었다.

공은 어릴 때부터 보통 사람과 달랐다. 언젠가 도적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 공이 동요하지 않고 여유작작한 모습을 가지니, 못 도적들은 깜짝 놀라서 남작(男)되었다.

어버리가 병환이 났을 때에는 손가락을 잘라 피를 입에 넣어드렸고, 아버지가 작고했을 때에는 무덤 곁에 여막을 짓고 시묘살이를 살며 상을 끝냈다. 형제간에 있어서는 화기애애하게 우애를 하고 녹봉을 항상 골고루 나누어 먹었다. 조정에서 벼슬할 적에는 임금의 비위를 거슬리고 간사한 사람을 제거하였으며, 선악을 변별하여 악은 단호하게 막아버렸다. 고을에 수령으로 나가거나 관찰사로 재직할 때에는 위엄과 은덕을 병행하여 선정을 베풀었기 때문에 임기가

8) 서용(敍用)···죄로 인하여 면직된 사람을 다시 쓰는 일.

9) 능(陵)···여기서는 선릉(宣陵·成宗陵)과 정릉(靖陵·中宗陵)을 가리킨다.

10) 백성들을···시켜서···이 말은 △좌전(左傳)△애공(哀公) 원년 조에 『10년 동안은 백성들을 잘 살 수 있게 만들고, 또 10년 동안은 백성들을 잘 교육시켜서···』라고 보인다.

차서 떠날 경우에는 그 고을 사람들이 반드시 울면서 떠나보내고 따라서 사모하는 마음을 금하지 못하였다. 공은 「조정에서 녹을 받아 먹는 사람은 닭이나 돼지를 길러 농민의 이익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늘 공의자(公儀子)¹¹⁾가 하던 일을 사모하였고, 또 자손의 생계를 위해주지 않으면서 말하기를 『단지 효우(孝友)와 청백(清白)만 물려주면 될 뿐이다.』고 하였다. 개제(愷悌)한 덕이 안에 쌓이고, 충신(忠信)의 행동이 밖에 나타났으니, 못 아름답다움을 겸비한 군자라고 할 수 있겠다.

부인 이씨(李氏)는 현숙하고 명철하며 유순하고 아름다워 현모양처의 자질을 완비하였다. 공은 또 어진 자손을 많이 두었으니, 공의 덕이 가정에 행하여 무궁하게 흘러 넘친 것을 또 볼 수가 있겠다. 다음과 같이 명을 한다.

어질도다 대부여! 하늘이 부여한 성품이 순수하였네.

아들로서 효도를 다하고, 신하로서 충성을 다했다.

형제간에 우애하고, 도리를 한 몸 에 갖추었네.

몸을 닦고 덕을 쌓아, 그 혜택 후손에게 넘겨주었다.

씩씩한 무인의 기질은, 실로 증후를 도왔도다.

어찌 공 새겨서, 길이 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신도비에 대해서는, 박사가 명을 할 것이다.

나는 우선 자료를 취하여, 그 무덤을 표시한다.

공의 배위 곧 정부인(貞夫人)으로서 정경부인(貞敬夫人)에 추증된 이씨(李氏)는 본관이 전주(全州)이고, 사헌부 감찰(司憲府監察) 효언(孝彦)의 딸이다. 별좌(別坐) 각(恪)·현감(縣監) 흠(愼)·□·참판(參判) 첩(帖)·익위(翊衛)경(憬)과 감찰(監察) 구욱(具旭)·판서(判書) 심액(沈恪)·부사(府使) 이성남(李星男)은 공의 아들과 사위이다. 각(恪)은 후사가 없고, 이(怡)는 일찍 죽었으며, 현달하여 그 집안을 빛낸 사람은 참판이었다.

별좌(別坐) 영(倅)·오위장(五衛將) 일(侗)·현감(縣監) 준(僦)·구(倅)·휴(休)·유(攸)·주(儔)·수(脩)와 박유(朴瀏)·판관(判官) 김후(金厚)·유발(兪撥)·박세면(朴世冕)·참봉(參奉) 윤유(尹鑄)·강태현(姜太賢)·군수(郡

守) 유진삼(柳晉三)·정언(正言) 심광수(沈光洙)·현령(縣令) 광사(光泗)·허빈(許賓)·감사(監司) 오단(吳端)·안천건(安千健)·진사(進士) 유명(柳莫)·이암(李巖)·군수(郡守) 이시중(李時仲)·장령(掌令) 최욱(崔煜)은 공의 손항(孫行)이다.

각(恪)에게 후계자로 들어가서 공의 제사를 주관하는 자는 일(侗)이다. 현(憲)·무(懋)·서(恕)·지(志)·민(愍)·상(想)·□·□·의(懿)·심(諗)·인(認)·임(恁)·손(遜)·위(慰)·실(悉)·원(愿)·사(思)·충(忠)과 정성한(鄭聖漢)·승지(承旨) 심지한(沈之漢)·강정의(姜廷益)·박세추(朴世樞)·박세장(朴世璋)·박세현(朴世楨)·김상건(金尙堅)·생원(生員) 박선(朴詵)·성수동(成壽童)·김석래(金碩來)·김석창(金碩昌)·김석만(金碩曼)·윤해거(尹海舉)·강세봉(姜世鳳)·박세량(朴世樑)·유명열(兪命說)·윤원기(尹元基)·윤위기(尹偉基)·윤중기(尹重基)·정세형(鄭世炯)·김난(金暖)·강익주(姜翊周)·이진규(李震奎)·심장(沈樟)·심백(沈栢)·심상(沈相)·이명구(李命龜)·윤이석(尹以錫)·유수(留守) 오정일(吳挺一)·교리(校理) 오정원(吳挺垣)·좌랑(佐郎) 오정위(吳挺緯)·오정벽(吳挺璧)·진사(進士) 오정창(吳挺昌)·봉사(奉事) 이상정(李象鼎)·인평대군(麟坪大君) 이요(李漕)·□·□·진사(進士) 이수번(李粹蕃)·현감(縣監) 안광욱(安光郁)·부장(部將) 안승배(安承培)·이천한(李天漢)·이세장(李世章)·이세만(李世萬)·최태제(崔泰齊)·최태용(崔泰隆)은 공의 증손항이다. 내외손이 모두 백여 명이 된다.

지금 세운 비석은 추후에 세운 것이다.

숭정(崇禎) 기원 후 27년인 곧 갑오년(甲午年) 5월 일(日)에

불초(不肖) □□□는 삼가 비석을 세움.

11) 공의자(公儀子) : 중국 노(魯) 나라의 공의휴(公儀休)를 가리킴. 공의휴는 목공(穆公) 때 정승을 하면서 법을 받들고 이치를 따르는 동시에 녹을 먹는 관원들은 백성들과 이익을 다투는 일이 없게 하였다. 심지어는 자기 집 후원에 심어진 아욱을 뽑아버렸는가 하면, 자기 집에서 배 짜는 것을 발견한 그는 배틀을 불태우고 부인을 쫓아버리기까지 함으로써 농민의 이익을 철저히 보장해 주었다.

이형운(李炯胤) 묘갈

所在地 · 盆唐區 宮內洞 山 17-1

建立年代 · 朝鮮 孝宗 6年(1655)

撰 · 李 敬 輿

書 · 李 莪

規 格 · 總高 · 153cm, 碑高 · 128cm, 幅 · 71cm, 厚 · 22cm

材 質 · 碑身 · 大理石, 臺石 · 花崗岩

이형운 묘갈은 판교에서 풍덕천으로 가는 23번 국도에서 궁안마을로 우회전 하여 올라가면 정희사(靖僖祠) 뒷산 맨 위에 있다.

1655년에 건립된 이 비는 비좌 원수(碑座圓首)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대석 4면에는 당초문(唐草紋)과 복련(覆蓮)이 있다.

비문은 이경여(李敬輿)가 지었고, 앞면의 글씨 자경(字徑)은 6·7cm이고, 음기(陰記) 자경은 2·7cm의 해서(楷書)로 넷째 아들이 재(李莪)가 썼다.

비의 상태는 전체적으로 마멸이 심해 판독이 난해한 곳이 있으며, 묘소는 완산현부인(完山縣夫人) 전주최씨(全州崔氏)와 합장, 호석·족석·향로석·혼

유석·계체석·문인석·망주석이 있다. 그리고 1992년 5월에 개수한 비좌 개석의 묘갈이 있다.

이형운(1593~1645)은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 전주(全州)。자는 여승(汝承)。덕양군 기(岐)의 증손. 구천군(龜川君) 수(晬)의 아들이다.

1612년(광해군 4) 종시(宗試)에 2회나 장원하여 봉래수(蓬萊守)에 제수되었으며, 이후 명선계(明善階)와 가선계(嘉善階)에 올랐다. 또 오성 이항

복(李恒福)과 일송 심희수(沈喜壽)가 장시관(場試官)으로 만나 보고는 종실(宗室)에서 영재가 나왔다고 칭송하였다.

부친이 순천으로 유배(流配)되자 이를 따라가 적소(謫所)에서 조석으로 부

친 시병(侍病)에 정성을 다하였고, 1623년(인조 1) 부친의 봉작이 복원되자 상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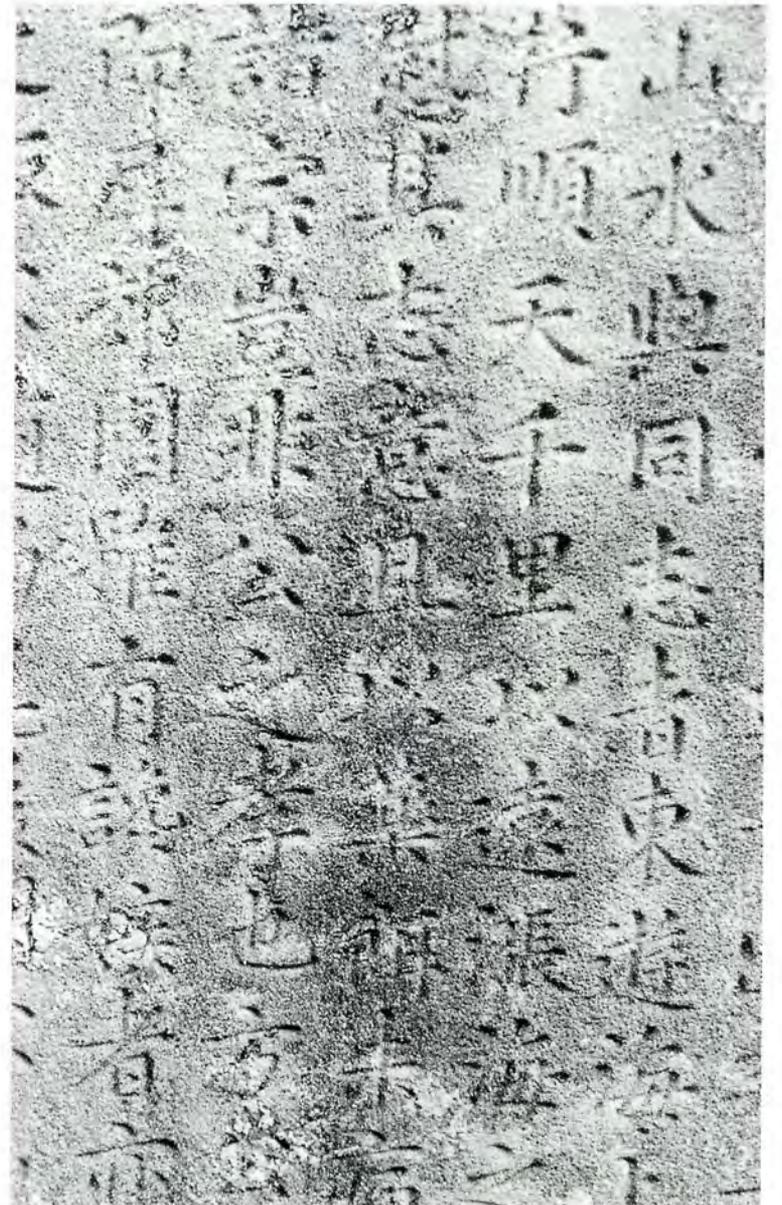
이듬해 이괄(李适)의 난에는 공주까지, 1627년(인조 5) 정묘 호란 때에는 강도까지 어가(御駕)를 호종하였던 공으로 부종관(副從官)을 겸대하고 품계를 더하였다.



이형운 묘소 전경[전면]



묘 갈



묘갈 비문 일부



이형운 묘소 전경[후면]



망주석



문인석



71×128



22×128



22×128

【前面】

完山縣夫人崔氏附左

中義大夫兼五衛都摠府副摠管蓬萊君之墓

【後面】

有明朝鮮國中義大夫蓬萊君兼五衛都摠府副摠管墓碣銘并序

光海時孽臣盜柄至於誣及東朝禍迫金墉一二臣外舉朝莫不茅靡有若龜川君諱晬痛宗國將亡抗章極論投身遠裔而兇焰少息士論稍振及我仁祖改紀寵嘉增秩眷遇日隆爲國維城寔公之皇考也公王考豐山君諱宗麟豐山恭僖大王之孫而王子德陽君諱岐之子也龜川娶東萊鄭氏司導僉正麟壽之女以萬曆癸巳正月八日生公公諱炯胤字汝承生而穎悟遊戲異凡兒稍長痛刮綺紈豪習委身詩書業博覽經史過目不忘浸灌理源用以飭躬發爲詞華清麗逼古風姿俊雅映帶數人壬子癸丑公再魁宗試自初授蓬萊守一再陞爲明善爲正義封君橫金舞彩時人榮之公年纔弱冠鰲城李公恒福一松沈公喜壽前後受命掌試見公歎曰宗室中英才出矣一松邀致公勸以爲己之學公自此益致力黃卷中蚤夜不怠已知爲善之樂公雅好山水與同志者東遊海上遍歷金剛無深不到是乙卯也晚年臥遊遐想常若值身雲水間及龜川公受袂南行順天千里以遠漲海之所撞春瘴癘之所侵毒非長于茲土鮮有不病者公晨夕承奉安其寢處適其飲啖慰其志意且以藥餌未病而先治之同竄者多不還而龜川公獨無恙竟遭昌辰偏蒙殊渥爵視貳公榮溢諸宗豈非公之孝也方公之遇難奔遑兇徒忌公累欲陷之死地謹慎自晦在南在北不與外人交非處親庭卽屏郊園雖有讒嫉者亦無以抵隙也癸亥天日重明父子再會京第承顏膝下其樂融融如也甲子西帥之叛公隨豹尾後到公山回鑾加階賜馬以償羈勒勞丁卯扈駕江都旣還兼帶副摠管其後復再入乙亥丁大夫夫人憂哀毀過禮幾至滅性食無菜果枕有涕淚追慕悲哀三年如一日仍成脚羸之病乙酉三月五日疾不起春秋五十三先數日公謂子弟曰吾不慎疾遺親感是不孝也世子東還不得望塵迎拜是不忠也因口號待罪疏語無錯訃聞上遣禮官致祭命有司贈賻五月四日葬于廣州樂生先兆側乙向之原公娶全州崔氏郡守行之女生四男二女男長曰至穆陵參奉次曰埗司諫院司諫次曰塋藝文館奉教次曰栽生員女長適承文正字金炫文次適士人尹世長至娶判官蘇挺震女生一男四女男箕相進士女適士人尹明來次李樹績次幼埗娶縣監李謹中女生三男四女男箕錫箕叙皆業儒女長適進士尹

致績餘幼墜娶判書崔來吉女生三男二女皆幼我娶直長成雲翰女生一女金炫文生一男一女男弘遠業
 儒女適進士尹楷尹世長生三男二女皆幼公以 王孫之貴處遊閑之地鼎鍾累代富厚冠時後堂無鍾鼓
 曲旗絕姬妾粉黛之娛恭儉自度蕭然若寒士家是賦於性也居戚盡禮遑遑如不及始末不怠是孝於親也
 國有難輒挺身從屬車不避險難是忠於君也且睦嫻之仁周洽遠近慈惠之心下逮臧僕庶兄弟甚衆賙窮

【左側面】

賑急皆盡其誠至有感泣沒身者教子弟以事經學慎言行爲義力第一義不喜交遊門巷無熟官車轍不治
 生產作業日以詩酒自遺酒不及亂詩必驚人遺稿二卷旁通諸技而尤善圍棋十二三與德原爭霸豈非
 衆山之頓悟天機一日而爲國手也別業在東西郊佳辰令節陪龜川公置酒承歡子姪咸集歲以爲常父子
 雅量風流薦紳欽之公以高世之才出塵之標又有懿德至行而爲國制扞格鬱而不伸至於斯而已也不然
 而若與當世所謂賢公卿者並駕齊驅何遽不若然不盡其餘以貽於後一爲諫大夫有直臣風一秉太史筆

【前面右側】

聯翮法從雲路方亨況鸞鵠停峙玉樹交榮食報之慶其未艾也不佞先大夫嘗與龜川公從遊每稱曰循循
 退讓長者也不佞亦嘗拜龜川公於錦山第以故人子視我說故事甚詳德哭充然如襲和風繼遇公 大廟
 齋所清標雅度一見令人鄙吝不萌司諫公兄弟不鄙我持家狀謂不佞曰願惠徼我先君賜一言以賁泉途

【前面左側】

不佞曰我非翰墨人不敢當不朽事司諫公請益堅余既有兩世之先交又嘗慕大人君子之德誼豈忍終辭
 謹次世系官封卒葬日月及終始大概如右系之以銘銘曰

兩朝維城孰居第一 顯允龜川昭揭大節 生子不忝克紹前烈 好禮河間爲善東平 翩翩公子一代

【右側面】

宗英 再魁宗試班視貳卿 金犀交映父子恩勞 如蘭如玉慶集家庭 青蒲紫毫羽儀朝廷 惟天福
 善此理不爽 清谿北峙鶴峰西障 鬱彼佳城於焉永宅 有文匪諛有鐫斯石 謂我不信徵諸竹帛

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李敬輿撰

第四男 獻 陵 參 奉 我泣血書

崇禎後十二年乙未五月 日立

【譯 文】

완산현부인최씨부좌 중의대부겸오위도총부부총관봉래군지묘

유명 조선국 중의대부 봉래군(蓬萊君) 겸 오위도총부 부총관 묘갈명 병서

광해 때에 열신(孽臣)·姦臣이 권병(權柄)을 훔쳐서 마구 휘둘렀는데, 모함 이 동조(東朝)·大妃殿)에 미치고 화가 금용(金壙)¹⁾에 미쳤을 적에 와서는 한 두 신하를 제외하고는 온 조정의 술수에 휩쓸리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었다. 그러나 구천군(龜川君)으로 이름을 수(粹)라고 한 분은 종국(宗國)이 장차 망해가는 것을 통탄해하면서 광해에게 상소문을 올려 그 부당함을 극력 논하다가 몸이 먼 변방에 던져지자, 흉도(兇徒)의 기염이 조금 수그러지고 선 비들의 공론이 약간 떨치게 되었다.

우리 인조대왕이 반정함에 미처서 구천군을 총애하여 품계를 높여주는 동시에 대우가 날로 융숭하여 나라의 간성(干城)으로 부상하였는데, 이 분이 바로 공의 아버지이다. 공의 조부는 풍산군(豐山君)으로 이름을 종린(宗麟)이라고 하는데, 풍산군은 공희대왕(恭僖大王)·中宗)의 손자요, 왕자인 덕양군(德陽君)으로 이름을 기(岐)라고 한 분의 아들이다. 구천군이 동래 정씨(東萊鄭氏) 곧 사도시 첨정(司藥寺僉正)을 지낸 인수(麟壽)의 딸에게 장가들어 만력(萬曆) 계사년(癸巳年)·宣祖 26, 1593) 정월 8일에 공을 낳았다.

공은 이름은 형운(炯胤), 자는 여승(汝丞)인데, 태어나면서부터 영리하여 노는 것도 여느 아이들과 달랐으며, 약간 자라서는 화려한 옷차림이나 호기부리는 습성을 통렬하게 제거하고 몸을 시서(詩書)의 업(業)에 맡겨 널리 경사(經史)를 보았는데, 한번 눈에 스킨면 잊지를 않았다. 또 이치의 근원을 파헤치고 자신을 엄하게 단속하였다. 그리고 문장을 드러내면 그 문장이 맑고 화려해서 고인의 문장과 흡사하였고, 기풍과 모습은 준수하고 단아하여 그 광채가 몇 사람쯤은 환하게 비쳤다.

임자년(壬子年)·광해 4, 1612)과 계속년에 공은 종시(宗試)에서 두 번이나 과장원을 하였다. 그래서 처음에는 봉래수(蓬萊守)에 임명되었고, 한두 번 승진하여 명선대부(明善大夫)가 되고 정의대부(正義大夫)가 되었다가 군

(君)에 봉해져 금빛 띠를 띠어 광채를 발휘하였으니, 당시 사람들이 영광으로 여기었다.

공의 나이 겨우 약관(弱冠)·20세) 때에 오성(鰲城) 이공 항복(李公恒福)과 일송(一松) 심공 희수(沈公喜壽)가 전후해서 왕명을 받아 시관(試官)을 맡았는데, 그들은 공을 보고 찬탄하기를 『종실 중에서 영재가 나왔다.』고 하였고, 일송은 공을 초치하여 위기지학(爲己之學)을 하도록 권하기까지 하였다. 공은 이때부터 더욱 책속에 힘을 기울여 주야로 게으름을 피우는 일이 없었으며, 그 때에 벌써 선(善)을 행하는 즐거움을 알게 되었다. 공은 본래 산수(山水)를 좋아하여 동지(同志)들과 함께 동으로 해상에 가서 놀았고, 이어서 금강산(金剛山)을 두루 관람하되 아무리 깊은 곳이라도 가보지 않은 곳이 없었으니, 이 해는 을묘년(乙卯年)이었다. 만년에 와서는 집에 편안히 누워서 상상력으로 항상 몸이 멀리 운수(雲水) 사이에 가서 있는 것처럼 여겼다.

구천공이 유배(流配)의 명을 받고 남으로 순천(順天)까지 천리 길을 떠났는데, 창파(滄波)는 밀어닥치고 장려(瘴癘)는 독기를 뿜었기 때문에 그 고장에 서 성장한 사람이 아니라면 병이 나지 않는 사람이 적었다. 그러나 공은 조석으로 구천공을 받들어 그 거처를 편안하게 해드리고, 그 음식을 입에 맞게 해드리고, 그 심지(心志)를 위로해드리고, 또 약을 써서 병이 나기 전에 예방을 해드렸다. 그래서 함께 귀양갔던 사람들 중에는 살아서 돌아오지 못한 자가 많았으나 구천공만은 아무 탈이 없었고, 끝내는 좋은 세상을 만나 남다른 임금의 은총을 받았으며, 벼슬은 이공(二公)과 맞먹고 영광은 제종(諸宗)에 넘쳤으니, 이것이 어찌 공의 효도 때문이 아니겠는가?

공이 환난을 당하여 경황이 없을 때에 흉도들은 공을 꺼리어 여러 차례 죽음으로 몰아 넣으려고 하였다. 그래서 공은 조심스럽게 자신을 감추고 남쪽에 있거나 북쪽에 있거나 외인들과 사귀지 않았으며, 부모의 집에서 거처하지 않고 바로 교외로 나와 은거하였으니, 비록 미워하고 참소하는 자가 있었어도 단서를 잡을 수가 없었다.

1) 금용(金壙)·진(墳) 나라 때 양태후(楊太后)가 유폐(幽閉)되었던 중국 하남성(河南省)

낙양현(洛陽縣) 동쪽에 있는 성(城) 이름.

계해년(癸亥年) 仁祖 1, 1623)에 천일(天日)이 다시 밝아져 새 세상이 되자, 부자가 서울 집에서 재회하여 슬하에서 모시게 되었으니, 그 즐거움은 칠칠 넘쳐흘렀다. 갑자년(甲子年) 이괄(李适)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공은 어가(御駕)의 뒤를 따라 공주(公州)에 갇혔는데, 인조대왕이 환궁(還宮)해서는 공에게 품계를 높여주고 마필을 하사함으로써 어가를 따른 공로를 보상해주었다. 정묘년(丁卯年)에는 강도(江都)로 어가를 호종(扈從)하였는데, 이미 환도(還都)해서는 부총관(副總管)을 겸임하였고, 그 후에 다시 조정에 들어가게 되었다.

을해년(乙亥年)에는 대부인(大夫)의 상을 당하여 너무 지나치게 슬퍼하다가 몸을 상해서 거의 목숨을 잃을 뻔하였으며, 채소와 과일들을 먹지 않았고, 배개 머리에는 항상 눈물이 젖어있었다. 3년을 하루같이 추모하고 슬퍼하다가 그 길로 다리가 마비되는 병을 얻었다. 을유년(乙酉年) 3월 5일에 끝내 병에서 일어나지 못하였으니, 춘추는 53세였다.

작고하기 며칠 전에 공은 자제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병을 조심하지 않아 부모님께 슬픔을 끼쳐 드리게 되었으니, 이는 불효요, 제자(世子) 昭顯(世子)께서 고국을 돌아오셨는데 영접을 못했으니, 이는 불충이다.』라고 하고는, 이내 입으로 대죄소(待罪疏)를 불러주며 쓰게 하였는데, 말에 조금도 어긋난 점이 없었다. 부음이 들리자 상감은 예관(禮官)을 보내서 제전을 하였고, 담당 관청에 명하여 부의를 보내게 하였다. 5월 4일에 광주의 낙생리 선영(先塋)을 좌(乙坐)의 자리에 장사지냈다. 공은 전주 최씨(全州崔氏) 곧 군수(郡守)를 지낸 행(行)의 딸에게 장가들어 4남 2녀를 낳았는데, 맏아들 지(至)는 목릉(穆陵參奉)이 되고, 둘째 아들 후(厚)는 사간원 사간(司諫院司諫)이 되고, 셋째 아들 무(旻)는 예문관 봉교(藝文館奉敎)가 되고, 넷째 아들 재(栽)는 생원이다. 장녀는 승문원 정자(承文院正字)인 김현문(金炫文)에게 출가하고, 차녀는 사인(士人) 윤세장(尹世長)에게 출가하였다.

지는 판관(判官) 소정진(蘇挺震)의 딸에게 장가들어 1남 4녀를 두었는데, 아들 기상(箕相)은 진사(進士)요, 맏딸은 사인 윤명래(尹明來)에게 시집가고, 둘째 딸은 이수적(李樹績)에게 출가하고, 나머지 둘은 모두 어리다. 후는 현감(縣監) 권근중(權謹中)의 딸에게 장가들어 3남 4녀를 두었는데, 아들 기석

(箕錫)과 기서(箕敘)는 모두 업유(業儒)이고, 장녀는 진사(進士) 윤치적(尹致績)에게 시집갔으며, 나머지는 모두 어리다. 무는 판서(判書) 최내길(崔來吉)의 딸에게 장가들어 3남 2녀를 두었는데, 모두 어리다. 재는 직장(直長) 성운한(成雲翰)의 딸에게 장가들어 1녀를 낳았고, 그 딸은 김현문(金炫文)에게 시집가서 1남 1녀를 낳았는데, 아들 홍원(弘遠)은 업유이고, 딸은 진사 윤해(尹楷)에게 출가하였다. 윤세장(尹世長)은 3남 2녀를 두었는데 모두 어리다. 공은 왕손의 존귀한 신분으로 유향(遊閒)한 땅에 처해지고 여러 대에 걸쳐 정종(鼎鍾)에 훈공(勳功)이 새겨졌는가 하면, 부유함이 세상에 으뜸이었다. 그러나 후당(後堂)에는 가무(歌舞)를 하기 위한 종고(鍾鼓)와 곡전(曲施)·旗을 진열하는 일이 없고, 또한 시종을 하기 위한 곱게 꾸민 희첩(姬妾)을 끌어 버린 속에서 공손한 태도와 검소한 생활을 하여 마치 한사(寒士)의 집처럼 쓸쓸하게 지냈으니, 이는 타고난 천성이 그랬던 것이다.

거상(居喪)할 적에는 상례(喪禮)를 다하되 행여 다하지 못하는 점이 나 있지 않을까 조바심을 가지고 시종 계엄(戒嚴)을 피우지 않았으니, 이것은 그 어버이에게 효도하는 태도였다. 나라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문득 몸을 일으켜 앞장서서 어가(御駕)의 속거(屬車)를 따르고 험난을 피하지 않았으니, 이는 임금에게 충성하는 태도였다.

또 친족과 화목을 도모하고 이성친척과 친근하게 하려고 하는 어진 마음이 원근에 두루 흡족하였고, 자애롭고 은혜로운 마음이 아래로 노복에게 미쳐갔다. 그리고 서형제(庶兄弟)가 대단히 많았는데, 그들의 공색함을 도와주거나 위급함을 구제하는 일에 있어서는 모두 성의를 다하였으므로 죽을 때까지 그 은혜에 감읍(感泣)하는 자가 있기까지 하였다.

자제를 교육함에 있어서는 경학(經學)을 일삼고 언행(言行)을 삼감을 의방(義方)의 제일의(第一義)로 삼게 하였다.

교유(交遊)하기를 즐기지 않았기 때문에 골목에는 권세 있는 관원들의 수레가 없었으며, 살림살이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날마다 시나 짓고 술이나 마시면서 소일을 하였다. 술을 취하도록 마시지 않았고, 시는 기필코 보는 사람을 놀라게 하였는데, 유고(遺稿) 2권을 남겼다.

또한 여러 가지 기예(技藝)에도 통하였는데, 특히 바둑을 잘 두어 열 두세

살 때 덕원군(德原君)과 패권을 다투기까지 하였으니, 어찌 육象山(陸象山)이 천기(天機)를 별안간 깨달아서 하루만에 국수가 된 일과 비슷한 것이 아니겠는가?

별업(別業) · 별莊(別莊)이 동쪽 · 서쪽의 교외에 있었는데, 양신(良辰) · 가절(佳節)에는 구천공을 모시고 가서 술상을 차려 즐겁게 해드리면서 자질(子姪)들이 한 자리에 모였는데, 해마다 연례행사로 삼았으니, 부자의 아량과 풍류는 진신(摺紳)들의 흠모대상이었다.

공은 세상에 뛰어난 재주와 세속에 초탈한 맑은 의표(儀標)에 다 겸하여 아름답다운 덕과 지극한 행실이 있었으나 국가제도의 제약을 받아 뜻을 펴지 못하고 이 정도에 그치고 말았던 것이다. 그렇지 않고 만일 당세의 소위 어진 공경(公卿)들과 경쟁을 하였더라면 무엇이 그들만 못하였는가? 그러나 그 나머지를 다하지 않고 후손에게 끼쳐주었으니, 하나는 간의대부(諫議大夫)가 되어 직신(直臣)의 풍도가 있었고, 다른 하나는 태사(太史)의 붓을 쥐고 임금을 모셨으므로 벼슬길이 화려하게 열리고 있는 것이다. 하물며 듬직한 자손들이 앞에 죽 늘어서 있지를 아니한가? 자손들이 공이 남긴 경사를 누림은 끊임없이 계속될 것이다.

나의 선인께서 일찍이 구천공과 종유(從遊)하셨는데, 매번 칭찬하기를 『질서정연하게 행동을 하고 겸양을 부리는 장자(長者)이다.』라고 하였었다. 나도 일찍이 구천공을 금산군(錦山君)의 집에서 보았더니, 친구의 아들로 나를 대하면서 지난날의 일들에 대해 매우 소상하게 이야기해 주었는데, 덕기(德器)가 충만하여 마치 화풍(和風)을 쐬는 듯하였다. 이어서 종묘(宗廟)의 재실에 서 공을 또 만났는데, 맑은 의표와 아담한 도량이 일견에 사람들로 하여금 속된 생각이 싹트지 못하게 하였다.

사간공의 형제가 나를 알아보지 않고 가장(家狀)을 가지고 와서 나에게 말하기를 『원컨대 우리 선군을 현양(顯揚)하기 위하여 한 말씀 주셔서 묘도(墓道)를 빛내주소서.』라고 하기에 나는 대답하기를 『나는 문필가가 아니므로 선대의 아름다움을 업적을 쐬지 않게 하는 일을 감당할 수가 없소.』라고 하였으나, 사간공의 청은 더욱 완강하였다. 나는 이미 양대(兩代)에 걸쳐서 교분이 있었고, 또 일찍이 대인군자의 덕의(德誼)를 사모해온 터인데, 어떻게 끝내 사양

할 수 있겠는가? 삼가 세계(世系) · 관봉(官封) · 졸장(卒葬)의 월일 및 시종의 대강을 이상과 같이 기술하고 명을 이었는데, 명은 다음과 같다.

두 조정에서 나라의 간성 역할, 그 누가 제일이었을까. 현명하고 신실한 구천공, 큰 절의 맑게 드날렸도다.

아들 낳으니 조상 욕되게 않고, 선대의 업적도 잘 이었도다.

예를 좋아하는 하간왕(河間王)²⁾, 선을 좋아하는 동평왕(東平王)³⁾.

월월 나는 뜻 뛰어난 공자, 한 시대 종반의 걸출이었던도다.

중시에 두 번 피장원하고, 반열은 이경(貳卿)과 같았도다.

금대(金帶)와 서대(犀帶) 함께 비치니, 부자 모두 은영(恩榮).

자손들 지란(芝蘭)과 옥수(玉樹) 같으니, 경사 일문에 집중되었네.

청포(靑蒲)에 얹느리고⁴⁾ 자탁(紫橐)⁵⁾ 가졌으니, 조정의 표상 되었네.

하늘은 착한 자에게 복을 주나니, 이 이치만은 어긋남이 없도다.

청계산(淸溪山)은 북쪽에 솟아있고, 학봉(鶴峯)은 서쪽에 막아섰네.

울창한 저 가성(佳城) ·墓地, 거기에 영원한 유택(幽宅) 마련하였네.

이 글은 아침을 부리는 것이니, 이 돌에 새김 마땅하리도다.

정히 나를 믿지 못하겠다면, 죽백(竹帛) ·史冊을 찾아보구려.

대광보국승록대부 의정부영의정 이경여(李敬輿)는 글을 짓고,

제 4 자(子) 현릉참봉 재(栽)는 눈물을 흘리며 글을 씀.

송정후 12년 을미(乙未) 5월 일일에 비석을 세움.

2) 하간왕(河間王) · 한 경제(漢景帝)의 셋째 아들인 유덕(劉德)을 가리킴.

3) 동평왕(東平王) · 후한(後漢) 광무제(光武帝)의 여덟째 아들로 이름은 창(蒼)인데, 그는 『무엇이 가장 즐거운가?』라는 광무제의 물음에 대하여 『착한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즐겁다.』라고 대답한 적이 있었다.

4) 청포(靑蒲)에 얹느리고 · 궁궐의 내정(內庭)에 얹느려서 간언을 하는 간관(諫官)。옛날 천자(天子)의 내정(內庭)은 청포(靑蒲)로 자리를 짜서 깔았는데, 황후(皇后) 이외에는 그곳에 이를 수 없었으나 오직 간관(諫官)만이 그곳에 얹느려서 간언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5) 자탁(紫橐) · 자호(紫萼) · 붓과 낭탁(囊橐)을 가지고 임금이 자문에 응하는 일. 여기서는 곧 사관(史官) 등을 가리킴.

여 백

권득기(權得己) 묘갈

所在地…盆唐區 金谷洞 山 8-121
 建立年代…朝鮮 顯宗 1年(1660)
 撰…沈之源
 規 模…總高…126cm, 碑高…116cm, 幅…56cm, 厚…17cm
 材 質…碑身…花崗岩, 臺石…花崗岩

권득기 묘갈은 관교에서 풍덕천으로 가는 23번 국도에서 「안동권씨 만회공파 종중(安東權氏晚悔公派宗中)」 표석 길로 올라가면 흥모재(興慕齋) 뒤 남쪽에 있다.

1660년에 건립된 이 비는 비좌 원수(碑座圓首)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대석 4면에 복련(覆蓮)이 있고 그 아래는 매립되어 확인할 수가 없다.

제액(題額)은 『有明朝鮮晚悔墓碣(유명조선만회묘갈)』이라고 전서(篆書)로 썼는데 자경(字徑)은 6·5cm이고, 앞면 자경은 6·5cm, 음기(陰記) 자경은 2·5cm의 해서(楷書)로 썼으며, 비문은 사위 심지원(深之源)이 지었다.

비의 상태는 뒷면과 우측면이 마멸이 심해 관독이 난해한 곳이 있으며, 묘소는 증정부인 전주이씨(全州李氏)와 합장, 상석·족석·향로석·훈유석·계체석·문인석·망주석이 있다. 그리고 1953년 2월에 개수한 비좌개석의 묘갈이 있고, 1993년 4월에 세운 귀부 개석의 신도비는 조익(趙翼)이 비문을 지었고, 음기는 이성도(李聖道)가 해서로 썼으며, 이가원(李家源)이 전서로 썼다.

권득기(1570~1622)는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안동(安東)。자는 중지(重之), 호는 만회(晚悔)。할아버지는 종묘서령 덕유(德裕)이며, 아버지는 예조판서 크례(克禮)이다. 큰아버지인 선공감역 크관(克寬)에게 입양하였다.

1589년(선조 22) 진사시에 합격하고, 1610년(광해군 2) 식년문과에 장원급제하여 예조좌랑이 되었다. 그뒤 광해군이 모후를 서궁에 유폐하고 영창대군을 살해하는 등 정치가 혼란하여지자 관직을 버리고 야인생활을 하였다. 1618년에 고산도 찰방(高山道察訪)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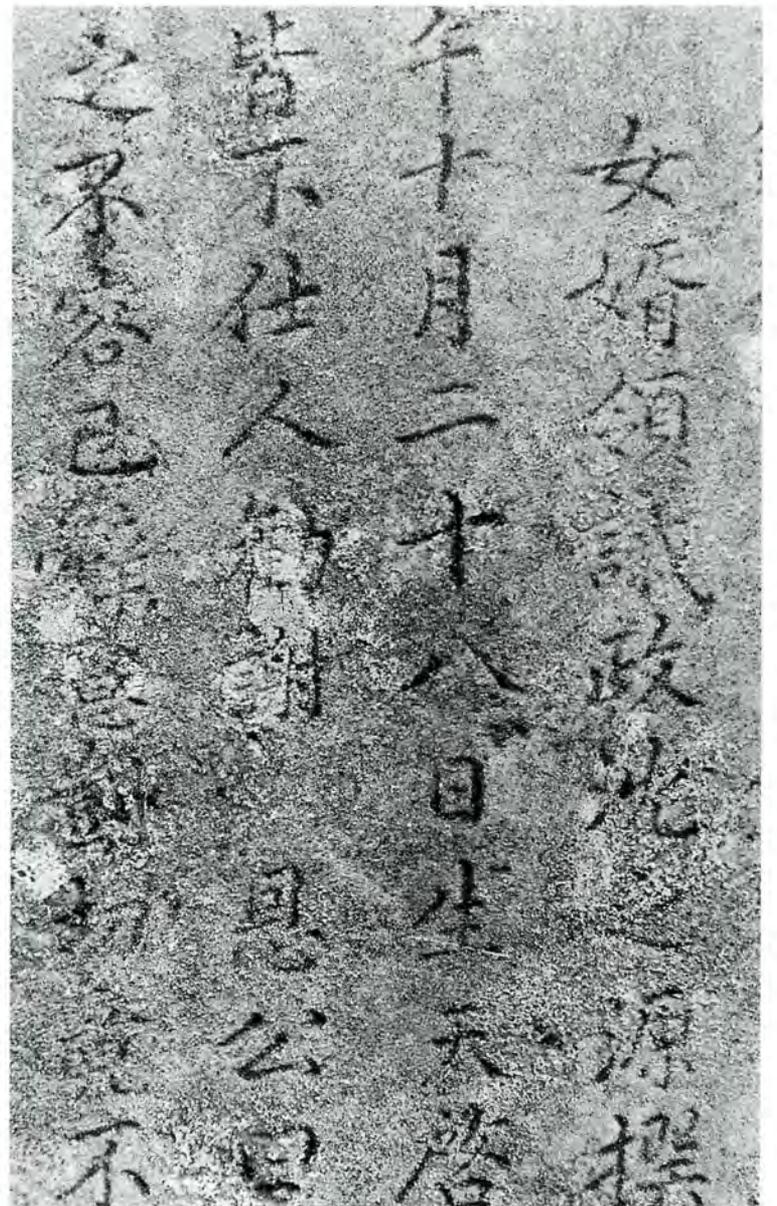
사후 공조참판에 추증되고, 공주(公州)의 도산서원(道山書院)에 제향되었다. 저서로는 「만회집(晚悔集)」·「연송잡기(然松雜記)」 등이 있다.



권득기 묘소 전경



묘갈[구비]



묘갈 비문 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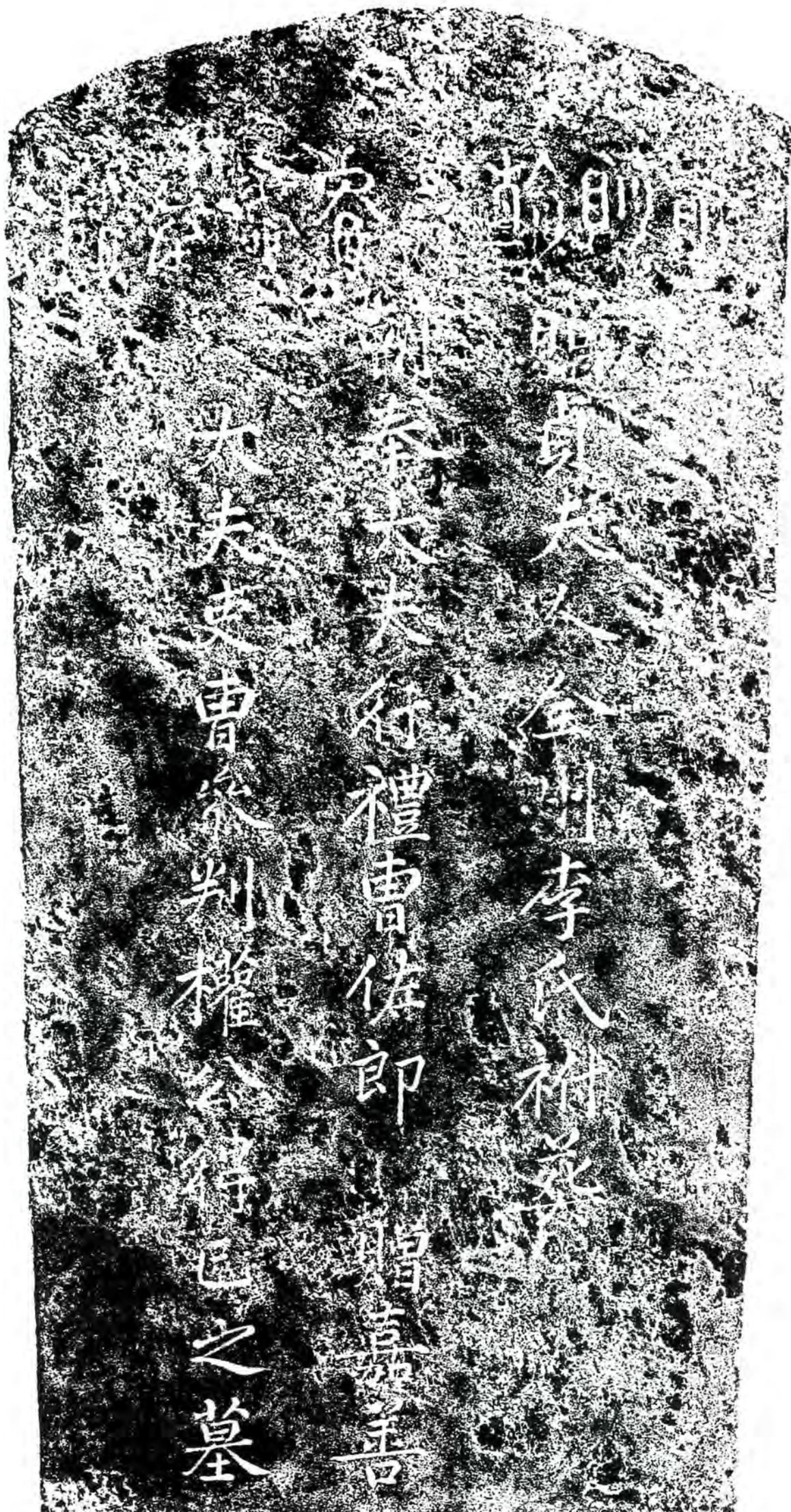
흥모재 전경



망주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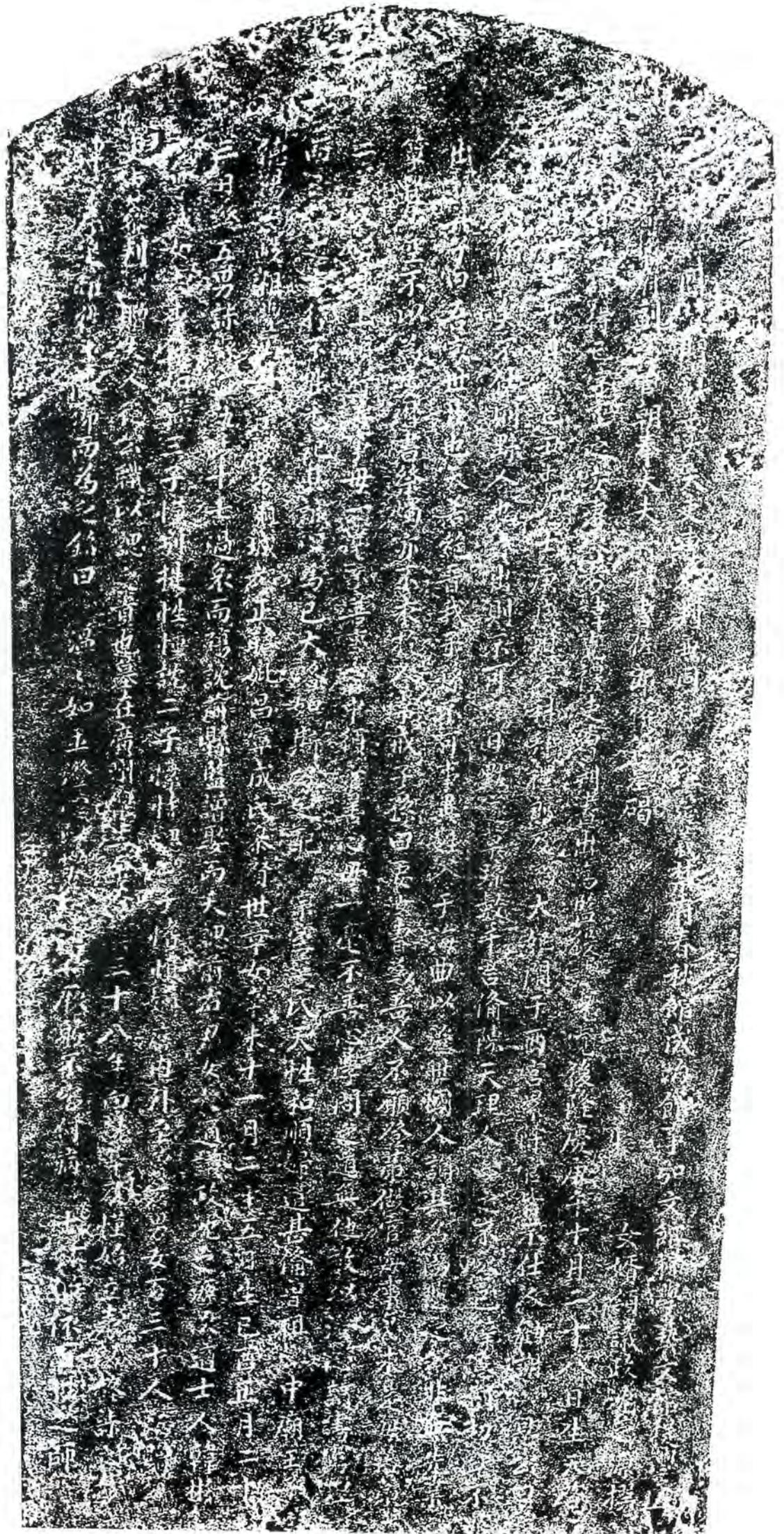
묘갈[신비]



56×116



17×116



56×116

【前 面】

贈貞夫人全州李氏祔葬

朝奉大夫行禮曹佐郎 贈嘉善

大夫史曹參判權公得己之墓

【後 面】

有明朝鮮晚悔墓碣(篆額)

有明朝鮮國 贈嘉善大夫史曹參判兼同知 經筵義禁府春秋館成均館事弘文館提學藝文館提學五

衛都摠府副摠管朝奉大夫行禮曹佐郎權公墓碣

女壻領議政沈之源撰

晚悔權公諱得己字重之安東人考諱克禮吏曹判書出爲監役諱克寬後隆慶庚午十月二十八日生天啓壬戌九月二十日終己丑中進士庚戌魁文科拜禮郎及 大妃閉于西宮累除官皆不仕人勸謝 恩公曰今日大倫斃矣不仕則野人也身出則不可一日默遂草疏數千言備陳天理人心之不容已辭意凱切竟不出謂其子曰吾家世臣也天若絕晉我子孫不可事異姓入于海曲以沒世國人誦其名而悲之公非無先業簞瓢屢空不以爲憂曆書祭燭亦不求於人常戒子孫曰要汝曹爲善人不願登第做官每事必求是母落第二義又曰身上須行善事毋一毫不善事胸中須著善心毋一毫不善心學問之道無他敬以澄心讀書窮理而已公之言行不能悉記其誠心爲己大略如斯公之配 宗室李氏天性和順婦道甚備曾祖 中廟王子德陽君岐祖豐山君宗麟考龜城都正瞻妣昌寧成氏參贊世章女辛未十一月二十五日生己酉正月二十三日終五男誄縣監訖年十七過哀而殤訖前縣監譜娶而夭認前右尹女長適議政沈之源次適士人韓彬庶男誠女夫李鍊如誄三子謹別提性惇訖二子愷恃認二子愷惟嫡庶內外至曾玄男女百三十人 贈公史曹參判 贈夫人從公職以認之貴也墓在廣州樂生金谷葬三十八年而訖等及謹始立表以終誄之志碑予序追惟往事垂涕而爲之銘曰 溫溫如玉澄心以敬 道積厥躬不容何病 士林攸依百世之師

【右側面】

進退行藏惟義之歸

崇禎紀元後十七年庚子十二月十三日立

【譯 文】

증정부인전주이씨부장 조봉대부행예조좌랑 증가선대부이조참판권공득기지묘

유명 조선국 증가선대부 이조참판 겸 동지경연의금부추관성판관사 홍문관
제학 예문관제학 오위도총부부총관 조봉대부 행예조좌랑 권공(權公) 묘갈

여서(女婿) 영의정(領議政) 심지원(沈之源)이 글을 짓다.

만회(晩悔) 권공(權公)은 이름은 득기(得己), 자는 중지(重之), 본관은 안
동(安東)이다. 아버지는 이름이 극례(克禮)로서 이조 판서(吏曹判書)를 지냈
다. 공은 나아가 감역(監役)을 지내고 이름이 극관(克寬)인 후계자가 되었다.
공은 융경(隆慶) 정오년(庚午年) 10월 28일에 탄생하고, 천계(天啓) 임술년
(壬戌年) 9월 20일에 작고하였다.

공은 기축년(己丑年)에 진사시(進士試)에 합격하고, 경술년(庚戌年)에 문과
(文科)에 수석으로 급제하여 예조 좌랑(禮曹佐郎)에 임명되었다. 대비(大妃)..
仁穆大妃)가 서궁(西宮)에 유폐되었을 적에는 여러 번 벼슬에 임명하였으나
모두 나아가지 않았다. 사람들이 나아가 사은(謝恩)하라고 권하자. 공은 『오
늘날은 큰 윤기가 끊어진 때이다. 벼슬하지 않으면 야인(野人)이 될 뿐이나
벼슬에 나아가면 하루도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없다.』고 하고는, 드디어 수
천 마디로 상소문을 구성하되, 천리·인심 측면에서 볼 때 상소 올리는 일을
그만두려고 해도 도저히 그만둘 수 없는 이유를 갖추어 진술하였는데, 그 사
연이 너무도 절실하였다. 공은 끝내 벼슬에 나아가지 않으면서 그 아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집안은 대대로 국록을 받는 신하의 집안이다. 그러니 하늘이
만일 이씨조선의 윤을 끊지 않는다면 우리 자손은 다른 성씨를 섬겨서는 아니
된다.』고 하고는, 섬으로 들어가서 일생을 마쳤으니,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외우며 슬퍼하였다.

공은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없지 않았으나 쌀독에는 식량이 자주 떨어
어졌는데, 이것을 가지고 걱정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책력이나 제사 때 쓰는

초[燭] 같은 것도 남에게 구하지 아니하였다.

공은 항상 자손들을 경계하기를 『너희들이 착한 사람이 되기를 요망하고,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매사에 반드시 옳은 일만을
하고, □□□를 떨어뜨리지 말도록 하라.』하고, 또 말하기를 『몸을 가짐에
있어서는 모름지기 착한 일만 행하고 불선한 일은 털끝만큼도 하지 말아야 되
며, 가슴속에는 모름지기 착한 마음만 간직하고 불선한 마음은 털끝만큼도 간
직하지 말아라 된다. 그리고 학문을 함에 있어서는 다른 방법이 없다. 오직
경(敬)으로써 마음을 맑게 하고 책을 읽어 이치를 연구할 뿐이다.』라고 하였
다. 공의 언행을 다 기록할 수 없는데, 그의 성심으로 자기를 위한 학문을 한
것이 대략 이와 같았다.

공의 배위는 종실(宗室) 이씨(李氏)인데, 천성이 화순(和順)하여 부인의 도
리를 크게 갖추었다. 증조부는 중종의 왕자인 덕양군(德陽君) 기(岐)이고, 조
부는 풍산군(豐山君) 종인(宗麟)이고, 아버지는 구성도정(龜城都正) 첨(瞻)이
며, 어머니는 창녕 성씨(昌寧成氏)로서 참찬(參贊)인 세장(世章)의 딸이다.
신미년(辛未年) 11월 25일에 탄생하고, 기유년(己酉年) 정월 23일에 작고하였
다.

자녀는 5남 중에 적(諫)은 현감(縣監)이고, 구(誦)는 나이 17에 너무 슬퍼
하다가 일찍 죽었고, 담(諫)은 현감을 지냈고, 증(諱)은 장가들고 일찍 죽었
고, 시(諱)는 우윤(右尹)을 지냈다. 만물은 영의정 심지원(沈之源)에게 시집
가고, 둘째딸은 사인(士人) 한빈(韓彬)에게 시집갔다. 서남(庶男)은 계(誡)이
고, 여부(女夫)는 이이여(李鍊如)이다.

적(諫)은 3남을 두었으니, 별제(別提)인 근(謹)과 성(性)·중(攄)이고, 담
(諫)은 2남을 두었으니, 소(慤)·시(恃)이고, 시(諫)는 2남을 두었으니, 기
(愷)·유(惟)이다. 적(嫡)·서(庶) 안팎으로 증손·현손에 이르기까지는 남녀
모두 1백 30명이다.

공에게는 이조 참판이 추증되고 부인에게는 공의 관직에 따라 추증되었는데,
귀하게 된 시(諫)의 덕분이었다. 묘소는 광주(廣州) 낙생(樂生) 금곡(金谷)에
있다. 장사지낸 지 38년이 되었는데, 담(諫) 등과 근(謹)이 비로소 표석을 세

위 적(誌)의 뜻을 종결하였다. 비석에는 내가 서문을 쓰게 되었는데, 지난 일들을 뒤돌아보니, 눈물이 난다. 다음과 같이 명을 한다.

따스하기 옥과 같고, 경(敬)으로써 마음을 맑게 하셨네.

도(道)를 그 몸에 쌓아, 그 어떤 병통도 용납하지 않으셨다.

사람의 의탁하는 바가 되고, 백세의 스승이 되셨네.

나아가고 물러가고 행세하고 은퇴함을, 오직 의리대로 하셨다.

숭정(崇禎) 기원 후 17년인 곧 경자년(庚子年) 12월 13일에 비석을 세움.

김 유(金裕) 묘갈

所在地 · 中院區 麗水洞 山 33

建立年代 · 朝鮮 顯宗 4年(1663)

撰 · 鄭 泰 齊

書 · 趙 從 耘

規 模 · 總高 · 176cm, 碑高 · 145cm, 幅 · 59cm, 厚 · 20cm

材 質 · 碑身 · 大理石, 臺石 · 花崗岩

김 유 묘갈은 성남에서 광주로 가는 3번 국도에서 도촌동으로 우회전한 후 터널 못미처에서 우측으로 내려가 좌측의 지하도를 지나가면 조건(趙楨)의 묘소 우측 산 서쪽에 있다.

1663년에 건립된 이 비는 비좌 원수(碑座圓首)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대석 4면에 당초문(唐草紋)과 복련(覆蓮)이 있다.

제액(題額)은 『忠義金公孺人李氏之墓(충의김공유인이씨묘)』라고 전서(篆書)로 썼는데 자경(字徑)은 5·0cm이고, 음기(陰記)는 조종운(趙從耘)이 해서(楷書)로 썼고, 자경은 2·0cm이며, 비문은 정태제(鄭泰齊)가 지었다.

비의 상태는 전반적으로 마멸이 심해 일부 판독이 불가능한 곳이 있으며, 묘소는 유인 평창이씨(平昌李氏)와 합장, 호석·상석·향토석·훈유석·계체석·문인석·망주석이 있다. 그리고 1989년 4월에 세운 비좌 개석의 묘갈은 12대손 김봉연(金鳳淵)이 비문을 지었다.

김 유(1561~1616)는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순천(順天). 자는 공작(公綽)。좌의정으로 평양부원군(平陽府院君)에 봉해진 승주(承窪)의 6대손, 호군(護軍) 자한(自漢)의 손자, 충좌위부호군(忠佐衛副護軍) 언국(彦國)의 아들이고, 어머니는 강백경(康伯卿)의 딸이다. 배위(配位)는 평창이씨(平昌李氏)로 충의위(忠義衛) 주(鑄)의 딸이다.

공의 관력은 충의위(忠義衛)을 지냈다.

부인의 성품이 어질고 도리를 갖추어 제사 받드는 일, 자녀 키우고 하인들 부리는 일에 있어 정성과 의리를 지키면서 화려한 옷차림도 멀리한 채 집안 일을 잘 경영하여 그 법도가 세상에 소문으로 드러났다. 공 또한 일생동안 행실이 독실한 군자(君子)로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하며, 일가 친척 등에게 친목을 돈독히 함은 물론, 타인앞에 공손함과 검소함으로 인하여 그 명성이 한 고을에 자자하였다고 전한다.



김 유 묘소 전경



문인석



묘 갈

【前 面】

忠義金公孺人李氏之墓(題額)

有明朝鮮國 忠義衛金公□□孺人平昌李氏墓碣銘并序

通政大夫行承政院右承旨知製 教兼 經筵參贊官春秋館修撰官鄭泰齊撰
通 訓 大 夫 前 行 交 河 縣 監 趙從耘書

不佞自炊髮習聞昇平金公賢哲長者蓋緣吾姨母卽公家婦也一日外弟鎧以狀屬余曰吾王父母有至行懿德恐久而泯無傳謀所以樹石墓顛矣兄旣銘吾父母獨不可銘吾祖乎余不敢辭按狀公諱裕字公綽新羅引駕別監諱摠之後左議政平陽府院君諱承霖之六代孫也高祖曰尙衣正諱嗣源曾祖曰郡守諱允濯祖曰護軍諱自漢考曰護軍諱彥國妣曰載寧康氏伯卿之女集賢殿大提學諱晉之曾孫也公生嘉靖辛酉卒萬曆丙辰得年五十六葬廣州治南狐洞西向原噫公以篤行君子聲不能越鄉而馳布衣終於家里中人至今思之咸曰疇能孝友敦睦如公疇若公之恭儉自修不求聞亦咸曰無天理而使公止於此也配平昌李氏忠義衛諱鑄之女吏曹判書平原君諱季男之曾孫也賢而得婦道甚奉祭祀以誠訓教子御僮使以恩以義不事巫卜不喜芬華又能經紀家政使精神法度發見於外余於是益知夫人之賢也後公二十八年而卒距其生乙丑享年八十葬祔公墓北舉四男長良弼娶南陽洪氏卽我外王父宜寧縣監諱百順之女生二男鎧銳次弘弼娶同知南珏女生四男鎬鎬銑銓次光弼娶縣監尹皓女生一男四女男鉉女李喜文南晶黃崙李墀次衡弼娶金克述女生一女洪錫老取鎬爲後鎧取銳子碩珍子之銳生四男四女男碩珍女韓伯箕朴震龜鎬生四男三女男碩奎碩寶女宋相哲鎬生二男一女銓生一女二李南黃俱有子女內外孫曾四十餘人嗚呼振振盛矣銘曰

報施善人 天道之常 不于其躬 宜後之昌

崇禎丙子後癸卯十月 日立

【譯 文】

충의김공 유인이씨묘

유명 조선국 충의위 김공(金公)□□□유인 평창 이씨(李氏) 묘갈명 병서

통정대부 행 승정원우승지 지제교 겸 경연참찬관 춘추관수찬관 정태제(鄭泰齊)는 글을 짓고,

통훈대부 전행 교하현감 조종운(趙從耘)은 글을 쓰다.

나는 어릴 때부터 승평 김공(昇平金公)은 훌륭한 어른이라는 소문을 익히 들었는데, 그것은 우리 이모(姨母)가 바로 공의 며느리이었기 때문이다. 하루는 외제(外弟·姨從弟) 굉(鎧)이 공의 행장을 가지고 나에게 와서 부탁하기를 『우리 왕부모(王父母·祖父母)의 지극한 행실과 아름다운 덕이 세월이 오래 가면 없어져 전하지 못할까 걱정이 되어서 묘소 앞에 비석을 세우려고 합니다. 형님께서도 이미 우리 부모의 묘비문을 지었는데, 유독 우리 조부의 묘갈명만 짓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니, 나는 감히 사양할 수 없어서 공의 행장을 상고해 보았다.

공은 이름은 유(裕), 자는 공작(公綽)인데, 신라 말기에 인가별감(引駕別監)을 지내고 이름을 충(摠)이라고 한 분의 후에(後裔)이고 좌의정(左議政)에 다 평양부원군(平陽府院君)에 봉해지고 이름을 승주(承漣)라고 한 분의 6대 손이다.

고조부는 상의원 정(尙衣院正)을 지내고 이름을 사원(嗣源)이라고 한 분이 고, 증조부는 군수(郡守)를 지내고 이름을 윤탁(允濯)이라고 한 분이 고, 할아버지는 호군(護軍)을 지내고 이름을 언국(彦國)이라고 한 분이 며, 어머니은 재령 강씨(載寧康氏)로 백경(伯卿)의 딸이자 집현전 대제학(集賢殿大提學)을 지내고 이름을 진(晉)이라고 한 분의 현손녀이다.

공은 가정(嘉靖) 신유년(辛酉年) 1561(1)에 태어나서 만력(萬曆) 병진년

(丙辰年) 1616(6)에 작고하니, 향년 56세였다. 묘소는 광주(廣州) 읍소재지 남쪽 돌마면(突馬面) 호동(狐洞) 묘좌유향(卯坐酉向)의 자리에 있다.

아, 공은 행실이 독실한 군자로서 명성이 한 고을을 벗어나지 못하고 한 평생 포의(布衣)로 살다가 집에서 고종명(考終命)1)을 하였노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지금까지 공을 사모하면서 모두들 말하기를 『그 누가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하며 일가 친척 등에게 친목을 돈독히 하기를 공처럼 할 수 있었으며, 그 누가 공처럼 공손함과 겸소함으로써 자신을 닦고 세상에 알려지는 것을 구하지 않을 수 있었는가?』라고 하고, 또 모두들 말하기를 『천리가 없어서 공으로 하여금 여기에서 끝나게 하였구나.』라고 한다.

배위는 평창 이씨(昌平李氏)로 충의위(忠義衛)를 지내고 이름을 주(鑄)라고 한 분의 딸이자 이조 판서(吏曹判書)에다가 평원군(平原君)에 봉해지고 이름을 계남(季男)이라고 한 분의 증손녀이다. 성품이 어질어 매우 부인의 도리를 갖추어서, 제사를 받드는 일에 있어서는 정성을 가지고 하였으며, 아들을 가르치고 종들을 부리는 일에 있어서는 은혜와 의리를 가지고 하였다. 그리고 무당과 점쟁이 같은 것은 아예 가까이하지 않고, 화려한 옷차림도 좋아하지 않았으며, 또 집안 일을 잘 경영하여 남들이 본받을 수 있는 정신과 법도가 밖에 드러나게 하였으니, 나는 여기에서 부인의 어질을 더욱 알았다. 공보다 28년 뒤에 작고하였으니, 태어난 해인 곧 을축년(乙丑年) 1565(5)까지 살아 올라가면 향년 80이었는데, 공의 묘소 북쪽에다 부장하였다.

4남을 두었는데, 맏아들 양필(良弼)은 남양 홍씨(南陽洪氏)인 곧 우리 외왕부(外王父·外祖父)로서 의령현감(宜寧縣監)을 지내고 이름을 백순(百順)이라고 한 분의 따남에게 장가들어 두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이 굉(鎧)과 환(鉉)이다.

둘째 아들 홍필(弘弼)은 동지(同知)를 지낸 남각(南珪)의 딸에게 장가들어 4남을 낳았으니, 이름이 호(鎬)·약(鑰)·선(銑)·진(鎭)이다. 셋째 아들 광필(光弼)은 현감(縣監) 윤길(尹喆)의 딸에게 장가들어 1남 4녀를 낳았는데, 아들은 현(鉉)이고, 딸들은 이희문(李禧文)·남정(南鼎)·황운(黃崑)·이지

1) 고종명(考終命) : 명대로 살다가 편안하게 죽는 일.

(李擥)에게 각각 출가하였다.

넷째 아들 형필(衡弼)은 김극술(金克述)의 딸에게 장가들어 외동딸을 낳아 홍석로(洪錫老)에게 시집보내고, 약(鑰)을 데려다 후계자로 삼았다.

굉(鎧)은 환(銓)의 아들 석진(碩珍)을 데려다가 아들로 삼았다. 환(銓)은 4남 4녀를 두었는데, 아들은 석진이고, 딸은 한백기(韓伯箕)·박진구(朴震龜)에게 각각 출가하였다. 호(鎬)는 4남 3녀를 두었는데, 아들은 석규(碩奎)·석보(碩寶)이고, 딸은 송상철(宋相哲)에게 출가하였다. 약(鑰)은 2남 1녀를 두었고, 전(銓)은 1녀를 두었으며, 이희남·이지·남정·황윤은 모두 자녀를 두었다. 내·외손과 증손은 40여 명이나 되니, 아! 자손들이 참 번성하다 하겠다. 다음과 같이 명을 한다.

착한 사람에게 복으로 보답하는 것은, 천도의 몇몇한 일.

그 복 본인에게 베풀지 않았으니, 응당 후손들 창성하리로다.

송정(崇禎) 병자년(丙子年) 후 계묘년(癸卯年) 10월 일에 비석을 세움.

이형신(李炯信) 묘갈

所在地 .. 盆唐區 宮內洞 山 17-1

建立年代 .. 朝鮮 肅宗 24年(1698)

撰 .. 宋 時 烈

書 .. 趙 相 愚

規 模 .. 總高 .. 239 cm, 碑高 .. 159 cm, 幅 .. 70 cm, 厚 .. 37 cm

材 質 .. 臺石 .. 花崗岩, 碑身 .. 花崗岩, 臺石 .. 花崗岩

이형신 묘갈은 관교에서 풍덕천 가는 23번 국도에서 궁안마을로 우회전하여 올라가면 정희사(靖僖祠) 뒤 이숙(李塾)의 묘소 아래 동남쪽에 묘소가 있고 묘갈은 그 아래 산길 옆에 있다.

1698년에 건립된 이 비는 비좌개석(碑座蓋石)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개석은 팔각 지붕으로 단조롭고, 대석 4면에 안상문(眼象紋)과 복련(覆蓮)이 있다.

비문은 송시열(宋時烈)이 지었고, 앞면의 글씨 자경(字徑)은 8.5cm이고 음기(陰記) 자경은 3.0cm의 해서(楷書)로 조상우(趙相愚)가 썼다.

비의 마멸 상태는 양호하나 총탄 흔적이 여러 곳에 남아 있으며, 묘소는 증청주군부인(贈淸州郡夫人) 청주한씨(淸州韓氏)와 합장, 호석·상석·향로석·혼유석·계체석·문인석·망주석이 있다. 그리고 숙종 27년(1701)에 건립된 청주한씨의 묘표는 비좌원수의 형태로 손자 이기홍(李箕洪)이 비문을 지었고, 1974년에 증수한 비좌개석의 묘갈이 있다.

이형신(1682~?)은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여우(汝友). 덕양군(岐)의 증손. 구천군(龜川君) 수(睟)의 아들이다.

광해군때 부친이 유배 당하자 적소(謫所)까지 따라가 지극한 정성으로 봉공하였다. 인조와 효종의 대상(大喪) 때에는 혼전제관(魂殿祭官)이 되어 모든

일을 고레에 준행하였다.

현종이 해마다 온친을 행행(行幸)할 때는 도총부 부총관(都摠府副摠管), 사옹원 제조(司饗院提調)로 이를 수행하였으며, 1679년(숙종 5)에는 복선군(南柁)의 모함으로 탄핵되었다. 1681년 이상진(李尙眞), 김수항(金壽恒)의 상소에 힘입어 수직(壽職)으로 가의계(嘉義階)에 올랐고 봉산군(蓬山君)에 봉해졌다.



이형신 묘소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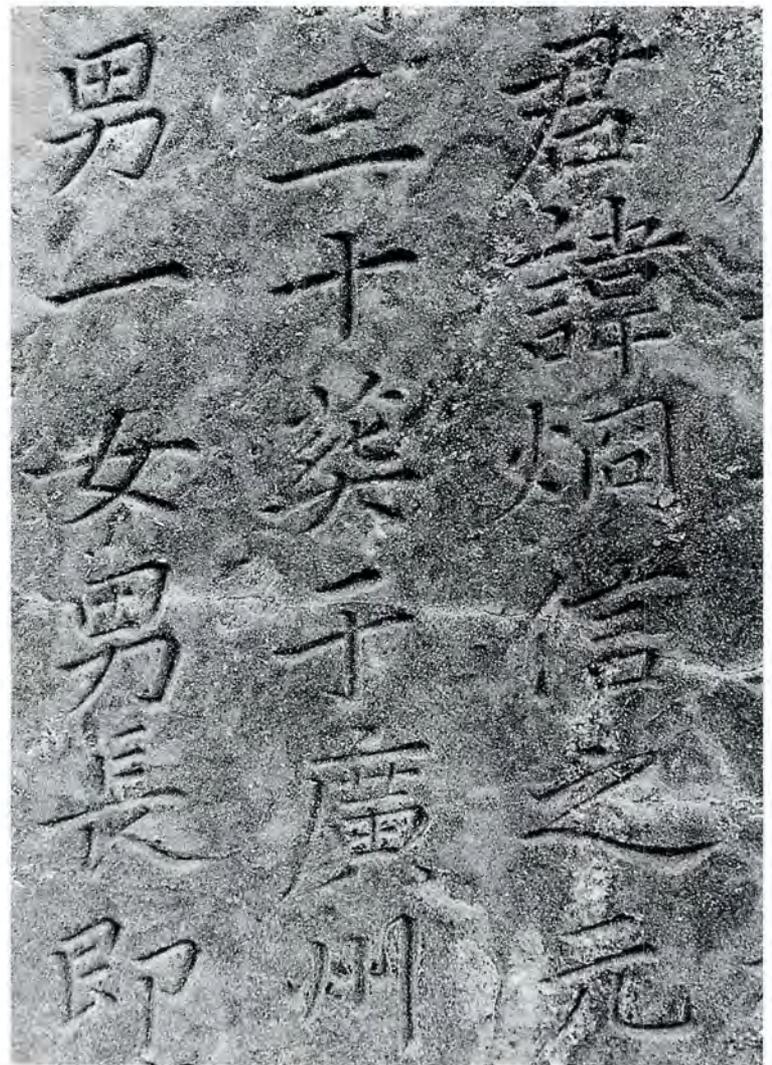
문인석



묘갈[구비]



청주한씨 묘표



청주한씨 묘표 비문 일부



망주석



망주석 부분

清州郡夫人韓氏
附左

大夫兼五衛都摠府都摠管蓬山君之墓

贈興祿大夫兼五衛都摠府都摠管行嘉德

有明朝鮮國 贈興祿大夫蓬山君兼五衛都摠府都摠管行嘉德大夫蓬山君兼五衛都摠府都摠管墓碣銘并序
 蓋當光海朝姦臣執命 母后幽辱 宗國傾危時則有若龜川君倡宗班錫忠盡言遂遠謫遐荒癸亥 仁祖即位禮
 遇極隆卒謚忠肅實我 朝之劉宗正也其第三男諱炯信字汝友自幼孝友祥順忠肅公在謫公年十五六常猶畏約
 怵迫凡所以紓其禍者靡不用其極崇禎乙酉忠肅公沒自癸亥至此二十三年公兄弟五人娛侍忠慕每佳辰令節舞
 衫獻觴世皆艷稱焉 仁孝廟大喪公皆為 祝殿祭官祇慎承事無敢失儀 顯廟連年有溫宮行以摠府副摠管厨
 院提調一隨行己未柁等欲陰察 內間事嗾臺諫駁遠公厨院而自代崇禎辛酉 上曰凡在侍從班而其親者老壽
 者加秩以優之時公第三子整屬益踈為諸生決大科為持平而公年遠七十九先是癸丑 顯廟已命陞資至是大臣
 李公尚真白 上曰蓬山君炯信故龜川君晬之子而其子整方在通列已而領議政金公壽恒又白其年至蓋公初守
 例職循資平進或有勞賞七十而陞中義又九年而陞承憲又一年壬戌而超陞嘉德恩榮至矣其十二月二十八日卒
 于正寢訃聞 上命輟朝二日禮官致吊祭以次子浚勳 贈興祿大夫兼五衛都摠府都摠管公世系曰 中宗大王
 第五子德陽君岐生豐山君宗麟是生忠肅公忠肅夫人鄭氏命正麟壽女公凡再娶皆韓氏女後夫人先沒于戊申而
 英于古楊州新川丑坐之原癸亥三月諸子奉公喪同窆焉前夫人墓在廣州樂生里禮當遷柩而議者曰既五十年久
 而又其子塾族位焉遂不遷其考郡守訃允生三男惟塾存終以副司果後夫人判官得一女生五男塾金嘉郎次即塾
 曾為吏曹正郎次塾次堂次塾俱登國庠四女皆主簿尹尚冕士人徐宗翰金斗瑞柳館也司果男其疇有學行其範進

士箕仁箕傳其次也卷三男一女男箕衍箕佐箕朝女適士人尹益個整一男箕輔樹二男一女男箕徵箕呂女幼堂三女幼堅箕子以兄子箕朝為后外孫尹天成天昌天海天挺天迪女李正冕鄭璣妻尚冕出也徐命熙命求如白以濟吳道曾洪重成尹洵妻宗翰出也文科承正金始慶斗瑞出也柳館一男三女並幼內外孫曾六十餘人公為人坦夷無矯飾清慎惠愛嘗有一奴典守官財以非罪將論死公謂其子服從者曰吾懲汝父寃死吾不汝斬汝可自賣以贖父命故其父不死嘗有田在東峽有人來自言公即許之曰吾豈與人爭執者觀此數事餘可類推而知也性行如此其享有諸福也宜哉最其安貧樂善勸課子孫以永家聲世所公誦者其聞漢東平之風者歟余與箕疇遊公故甚視余甲寅秋泣謂曰一年中 聖母聖主棄我臣民何以生為惟願 嗣聖壽年萬歲矣余面歎公忠誠矣今箕疇託以公銘義不可辭

銘曰 於惟蓬山王室之懿 中廟之裔龜川之子 六子四女之父六十孫之祖 豐亨祿位 不有仁心焉能有此 無不足子吁嗟乎完振

致仕奉朝賀 宋時烈撰

嘉善大夫行成均館大司成趙相憑書

崇禎後戊寅八月 日立

奎今為昌平縣令整陞掌上經吏議整魁卒未文科今為江原監司堂今為恭仁

縣監整今為 微陵叅奉箕疇由諮議直出六品經通川郡守今改名箕洪箕佐已巳進士尹天成擢丙子文科

為承正子孫科名官祿莫非餘慶所及而元序中未及錄故追記于後

【前面】

清州郡夫人韓氏 附左

大夫兼五衛都摠府都摠管蓬山君之墓

贈興祿大夫兼五衛都摠府都摠管行嘉德

【後面】

有明朝鮮國 贈興祿大夫蓬山君兼五衛都摠府都摠管行嘉德大夫蓬山君兼五衛都摠府都摠管墓碣銘并序

蓋當光海朝姦臣執命 母后幽辱 宗國傾危時則有若龜川君倡宗班竭忠盡言遂遠謫遐荒癸亥 仁祖卽位禮

遇極隆卒諡忠肅實我 朝之劉宗正也其第三男諱炯信字汝友自幼孝友祥順忠肅公在謫公年十五六常猶畏約

怵迫凡所以紓其禍者靡不用其極崇禎丁酉忠肅公沒自癸亥至此二十三年公兄弟五人娛侍忠養每佳辰令節舞

彩獻觴世皆艷稱焉 仁孝廟大喪公皆爲 魂殿祭官祇慎承事無敢失儀 顯廟連年有溫宮行以摠府副摠管廚

院提調一隨行己未柁等欲陰察 內間事喉臺諫駁遶公廚院而自代崇禎辛酉 上曰凡在侍從班而其親有老壽

者加秩以優之時公第三子墩屬益疏爲諸生決大科爲持平而公年適七十九先是癸丑 顯廟己命陞資至是大臣

李公尙眞白 上曰蓬山君炯信故龜川君晬之子而其子墩方在通列已而領議政金公壽恒又白其年至蓋公初守

例職循資平進或有勞賞七十而陞中義又九年而陞承憲又一年壬戌而超陞嘉德恩榮至矣其十二月二十八日卒

于正寢訃聞 上命輟朝二日禮官致吊祭以次子從勳 贈興祿大夫兼五衛都摠府都摠管公世系曰 中宗大王

第五子德陽君岐生豐山君宗麟是生忠肅公忠肅夫人鄭氏僉正麟壽女公凡再娶皆韓氏女後夫人先沒于戊申而

葬于古楊州新川丑坐之原癸亥三月諸子奉公喪同窆焉前夫人墓在廣州樂生里禮當遷祔而議者曰旣五十年久

而又其子塾族位焉遂不遷其考郡守訶凡生三男惟塾存終以副司果後夫人判官得一女生五男蓋金吾郎次卽墩

曾爲吏曹正郎次塾次堂次壑俱登國庠四女壻主簿尹尙冕士人徐宗翰金斗瑞柳綰也司果男箕疇有學行箕範進

【右側面】

士箕仁箕傳其次也蓋三男一女男箕衍箕佐箕朝女適士人尹益備墩一男箕輔塾二男一女男箕徵箕昌女幼堂三

女幼壑無子以兄子箕朝爲后外孫尹天成天昌天海天挺天迪女李正冕鄭璣妻尙冕出也徐命熙命杰女白以濬吳

道曾洪重成尹洵妻宗輸出也文科承正金始慶斗瑞出也柳綰一男三女並幼內外孫曾六十餘人公爲人坦夷無矯

飾清慎惠愛嘗有一奴典守官財以非罪將論死公謂其子服役者曰吾愍汝父冤死吾不汝斬汝可自賣以贖父命故其父不死嘗有田在東峽有人來自言公即許之曰吾豈與人爭競者觀此數事餘可類推而知也性行如此其享有諸福也宜哉最其安貧樂善勸課子孫以永家聲世所公誦者其聞漢東平之風者歟余與箕疇遊公故甚視余甲寅秋泣謂曰一年中 聖母聖主棄我臣民何以生為惟願 嗣聖壽年萬歲矣余面歎公忠誠矣今箕疇託以公銘義不可辭

【左側面】

銘曰 於惟蓬山王室之懿 中廟之裔龜川之子 六子四女之父六十孫之祖 豐亨祿位豈無已致 不有仁心焉能有此 無不足兮吁嗟乎完福

致 仕 奉 朝 賀 宋時烈撰

嘉善大夫行成均館大司成趙相愚書

崇禎後戊寅八月 日立

蓋今為昌平縣令墩陸堂上經吏議壅魁辛未文科今為江原監司堂今為泰仁

縣監壻今為 徽陵參奉箕疇由諮議直出六品經通川郡守今改名箕洪箕佐己己進士尹天成擢丙子文科

為承正子孫科名官祿莫非餘慶所及而元序中未及錄改追記于後

【譯 文】

청주군부인한씨부좌 증흥록대부겸오위도총부도총관행가덕대부겸오위도총부도총관봉산군지묘

유명 조선국 증 흥록대부 봉산군 겸 오위도총부도총관 행 가덕대부 봉산군(蓬山君) 겸 오위도총부도총관 묘갈명 병서

광해조 시절에 간신(姦臣)이 정권을 잡으니, 모후(母后)는 유폐되는 모욕을 당하고 나라는 기울어져서 위태롭게 되었다. 이 무렵에 구천군(龜川君) 같은 분이 있어 종반(宗班)을 이끌고 충성을 다하고 직언을 참지 못하다가 결국 멀리 변방으로 귀양가는 신세가 되었다. 그러다가 계해년(癸亥年) 인조 임금의 즉위하자, 예우가 크도로 융숭하였고, 작고하자 충숙(忠肅)이라는 시호가 내려졌으니, 실로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유종정(劉宗正)¹⁾이었다.

이분의 셋째 아들로서 이름은 형신(炯信), 자는 여우(汝友)란 분이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하였으며, 또한 성품이 선량하고 온순하였다.

충숙공이 적소(謫所)에 있을 때 공의 나이 겨우 십오육세였는데, 항상 근심하고 두려워하면서 재앙을 늦출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안 해 본 일 없었다. 승정(崇禎) 을유년(乙酉年 · 仁祖 23, 1645)에 충숙공이 작고하였으니, 계해년에서부터 작고한 해에 이르기까지는 23년이었다. 공의 형제 다섯 명은 부모를 즐겁게 모시고 지성껏 봉양하였다. 때면 경사스런 날이나 명절을 당할 때마다 채색 옷을 입고 춤을 추면서 축수하는 술잔을 드렸으니, 세상에서 모두 그를 부러워하고 칭찬하였다.

인조 임금과 효종 임금의 대상(大喪) 때에는 공이 모두 혼전 제관(魂殿祭官)이 되었는데,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일을 처리하여 조금도 실수한 일이 없었고, 현종 임금은 해마다 온궁(溫宮 · 溫陽行宮)의 행차가 있었는데, 공은 도총부(都總府)의 부총관(副總管)으로 또는 주원(廚院)의 제조(提調)로 한결같이 수행하였다. 그러나 기미년(己未年 · 肅宗 5, 1678) 남(柟)²⁾ 등이 몰

래 내간(內間)의 일을 살피려는 뜻에서 대간(臺諫)을 시켜 공을 탄핵하여 주원의 제조를 체직시키고 자신이 그를 대신하였다.

승정(崇禎) 신유년(辛酉年 · 肅宗 7, 1681)에 상(上 · 肅宗)이 이르기 를 『시종(侍從)의 반열에 있는 사람의 그 어버이 중에 연로한 자가 있으면 품계를 증가해서 우대하라.』고 했다. 이 때에 공의 셋째 아들 돈(墩)이 종친(宗親)으로서의 손수가 더욱 멀어지자 태학생(太學生)이 되어 대과(大科)에 급제 하여 지평(持平)이 되었는데, 공의 나이 마침 79세였다. 이에 앞서 계축년(癸丑年)에 현종 임금이 이미 자급(資級)을 올리도록 분부한 바 있었는데, 이때에 와서 대신(大臣) 이공상진(李公尙眞)이 상계 사퇴기를 『봉산군(蓬山君) 형신(炯信)은 작고한 구천군(龜川君) 수(睟)의 아들인데, 그의 아들 돈(墩)은 지금 통현(通顯)의 반열에 있습니다.』고 하였고, 이윽고 영의정(領議政) 김공수항(金公壽恒)은 또 그의 나이가 지극한 점에 대해서 사되었다. 대개 공은 처음에 예직(例職)³⁾을 지키다가 자급에 따라 차례로 승진되고, 혹은 공로에 대한 포상으로 승진된 일도 있었으며, 70세에는 중의대부(中義大夫)로 승진되고, 또 9년만에는 승헌대부(承憲大夫)로 승진되고, 또 1년 뒤인 임술년(壬戌年)에는 가덕대부(嘉德大夫)로 뛰어올랐으니 은영(恩榮)⁴⁾이 지극하였다.

그해 12월 28일에 정침(正寢)에서 작고하여 부음(訃音)이 전해지자, 상계서는 2일 동안 조회 보는 일을 중지하도록 명하고, 예관(禮官)을 보내서 조제(弔祭)를 올리게 하였으며, 작은 아들의 종훈(從勳)으로 인하여 흥록대부(興祿大夫) 겸(兼) 오위도총부도총관(五衛都總府都總管)에 추증하였다.

공의 세계(世系)는 증종대왕의 다섯째 아들인 덕양군(德陽君) 기(岐)에서 비롯되었는데, 덕양군이 풍산군(豐山君) 종린(宗麟)을 낳고, 풍산군이 충숙공을 낳았다. 그리고 충숙공의 부인 정씨(鄭氏)는 첨정(僉正)을 지낸 인수(麟壽)의 딸이다.

1) 유종정(劉宗正) · 종친을 담당하는 벼슬 이름인데, 여기서 한 경제(漢景帝)의 셋째 아들로서 시호는 헌(獻)이고 하간왕(河間王)에 봉해졌던 유덕(劉德)을 가리킨다.
 2) 남(柟) · 인평대군(麟坪大君)의 아들인 복선군(福善君)의 이름.
 3) 예직(例職) · 여기서 종친에게 주는 당연직을 가리킨다.
 4) 은영(恩榮) · 임금이 은덕을 입은 은영(恩榮)스러운 명예.

공은 두 번 장가들었는데 모두 한씨(韓氏)의 딸이었다. 후부인(後夫人)은 무신년(戊申年)에 공보다 먼저 작고하여 옛 양주(楊州) 땅 신천(新川) 측좌(丑坐)의 자리에 장사지냈는데, 개해년(癸亥年) 3월에 여러 아들들이 공의 상여를 모셔다가 합폄하였다. 전부인의 묘소는 광주(廣州)의 낙생리(樂生里)에 있는데, 예의상 마땅히 옮겨 부장하여야 하겠지만, 말마디나 하는 자가 『세월이 이미 50년이나 지났다.』고 말하고, 또 그 아들 숙(塾)이 족위(族位) 문제를 가지고 결국 옮기지 않았다. 전부인의 아버지는 군수를 지낸 형(誦)이다. 전부인은 아들 셋을 낳았으나 숙만이 남아서 벼슬은 부사과(副司果)로 마쳤다. 후부인은 판관(判官)을 지낸 득일(得一)의 딸로 5남을 두었는데, 질(耆)은 금오랑(金吾郎)·義禁府都事)을 지내고, 그 다음은 바로 돈(墩)인데 일찍이 이조 정랑(吏曹正郎)을 지냈으며, 그 다음은 야(桤), 그 다음은 당(堂), 그 다음은 서(壑)인데 모두 진시시(進士試)에 합격하였다. 네 사위는 주부(主簿) 윤상면(尹尙冕)·사인(士人) 서종한(徐宗翰)·김두서(金斗瑞)·유관(柳寬)이다.

사과의 아들 기주(箕疇)는 학문과 행실이 뛰어나고, 기범(箕範)은 진사(進士)이며, 기인(箕仁)·기전(箕傳)은 그 다음이다.

질은 3남 1녀를 두었는데, 아들은 기연(箕衍)·기좌(箕佐)·기조(箕朝)요, 딸은 사인(士人) 윤익한(尹益僈)에게 출가하였다. 돈의 1남은 기보(箕輔)요, 야의 2남 1녀는 기징(箕徵)·기창(箕昌)이고, 딸은 어리며, 당은 3녀를 두었는데 모두 어리고, 서는 아들이 없어 형의 아들 기조로 뒤를 이었다.

외손은 윤천성(尹天成)·윤천창(尹天昌)·윤천해(尹天海)·윤천정(尹天挺)·윤천적(尹天迪)과 이정면(李正冕)·정기(鄭璣)의 처가 된 딸은 윤상면의 소생이고, 서명희(徐命熙)·서명결(徐命杰)과 백이준(白以濬)·오도중(吳道曾)·홍중성(洪重成)·윤순(尹洵)의 처가 된 딸은 서종한의 소생이며, 문과에 급제하여 승정(承正)·承文院正字)이 된 김시경(金始慶)은 김두서의 소생이며, 유관의 1남 3녀는 모두 어린데, 내외의 손자와 증손이 60여 명이나 된다.

공은 사람됨이 평이하고 가식이 없으며, 깨끗하고 신중하며, 은혜롭고 자애로운 마음이 흘러 넘쳤다. 일찍이 한 노복(奴僕)이 관재(官財)를 맡아보다가

죄 아닌 죄로 죽음을 당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자, 공은 노역에 종사할 만한 그의 아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네 아버지가 원통하게 죽어가는 것을 민망하여 낫다. 그러므로 나는 너를 붙잡지 않을 것이니, 너는 스스로 네 몸을 팔아서 아버지의 목숨을 속죄시키는 것이 좋겠구나.』라고 하였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는 죽지 않았다. 또 일찍이 전토(田土)가 관동의 산골에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자기의 것이라 말하자, 공은 즉시 허락하면서 말하기를 『내가 어찌 남과 다를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으니, 이 몇 가지 일만 보더라도 그 나머지 미루어 알 수가 있다. 성품과 행실이 이와 같았으니, 복을 누릴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가난함을 편안히 여기고 착한 일을 즐기며, 자손들에게 학문을 열심히 하도록 권장해서 가문의 명성을 길이 유지시켜 세상에 서 공공연한 칭송을 받게 된 것은 한(漢) 나라 때 동평왕(東平王)의 기풍을 들었던 것인가?

나는 기주와 함께 공의 처소에 가서 놀았기 때문에 공은 나를 남달리 보았던 것이다. 갑인년(甲寅年)·顯宗 15, 1674) 가을에 공은 나를 보고 울면서 말하기를 『1년 사이에 성모(聖母)·孝宗妃인 仁宣王后)와 성주(聖主)·顯宗)가 우리 신민(臣民)을 버리고 떠나셨으니, 우리 신민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오직 사성(嗣聖)·肅宗)의 만수무강하시기만을 원할 따름이다.』라고 하였으니, 나는 면전에서 공의 충성에 탄복하였었다. 그런데 지금 기주가 공의 묘갈명을 부탁하니, 의리상 사양할 수가 없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명을 한다.

아! 봉산군은, 왕실의 의친(懿親)이었나니.
중종의 후예요, 구천군의 아들이었도다.
여섯 아들 네 딸의 아버지요, 예순 손자의 할아버지였네.
풍성한 작록 누렸나니, 어찌 그럴 만한 까닭 없었겠는가.
어진 마음 없었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었겠는가.

5) 동평왕(東平王)·후한(後漢) 광무제(光武帝)의 여덟째 아들로 이름은 창(蒼)인데, 그는 『가장 무엇이 즐거운가?』라는 광무제의 물음에 대하여 『착한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즐겁다.』라고 대답한 적이 있었다.

부족함 없었으니, 아! 완만한 복이었던다.

치사(致仕) 봉조하(奉朝賀) 송시열(宋時烈)은 글을 짓고,
가선대부(嘉善大夫) 행(行) 성균관 대사성(成均館大司成) 조상우(趙相愚)는
글을 쓰다.

승정(崇禎) 후 무인년(戊寅年) 8월 일에 비석을 세움.

질(耆)은 지금 창평현령(昌平縣令)이 되었고, 돈(墩)은 당상(堂上)에 올라
이조 참의(吏曹參議)를 지냈고, 야(楸)는 신미년(辛未年)의 문관(文科)에서
과장원을 하여, 지금 강원감사(江原監司)가 되었고, 당(堂)은 지금 태인현감
(泰仁縣監)이 되었고, 서(鉉)는 지금 휘릉참봉(徽陵參奉)이 되었다.

그리고 기주(箕疇)는 자의(諮議)로 말미암아 곧장 6품이 되어 통천군수(通
川郡守)를 지냈는데, 지금 기홍(箕洪)으로 개명하였다. 기좌(箕佐)는 기사년
(己巳年) 진사시(進士試)에 합격하였고, 윤천성(尹天成)은 병자년(丙子年) 문
과(文科)에 뽑혀서 승정(承正)·承文院正字)이 되었다. 자손들의 과명(科名)과
관록(官祿)은 그 여경(餘慶)의 미친 바 아님이 없는데, 원서(元序) 중에 미처
기록되지 못했기 때문에 뒤에 추기(追記)한다.

윤경지(尹敬之) 묘갈

所在地 .. 壽井區 福井洞 山 71-1

建立年代 .. 朝鮮 肅宗 26年(1700)

撰 .. 李 敏 求

書 .. 柳 以 復

規 模 .. 總高 .. 175 cm, 碑高 .. 144 cm, 幅 .. 60 cm, 厚 .. 20 cm

材 質 .. 碑身 .. 花崗岩, 臺石 .. 花崗岩

윤경지 묘갈은 북정동에서 수진동으로 가는 3번 국도에서 성남병원 못미
처에서 우측 지하도로 가면 재실 뒤 남쪽에 있다.

1700년에 건립된 이 비는 비좌 원수(碑座圓首)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대석 4면에 당초문(唐草紋)과 복련(覆蓮)이 있다.

비문은 이민구(李敏求)가 지었고 앞면의 글씨 자경(字徑)은 8.0cm, 음기
(陰記) 자경은 2.5cm의 해서로 유이복(柳以復)이 썼다.

비의 상태는 뒷면이 일부 마멸이 진행되고 있으나 판독이 가능하며, 묘소는
숙인 연일정씨(延日鄭氏)와 합장. 곡담·호석·상석·족석·향로석·훈유석·
계체석·망주석이 있다. 그리고 1989년에 개수한 비좌 개석의 묘갈이 있
으며, 묘소 아래에 모덕재(慕德齋)가 있다.

윤경지(1604~1659)는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해평(海平)。해원
부원군(海原府院君) 두수(斗壽)의 손자. 아버지는 공조판서 휘(暉)이고, 어머
니는 사평(司評) 이기명(李耆命)의 딸이다. 배위(配位)는 연일 정씨로 참판을
지낸 입(立)의 딸이다.

부인의 규범이 매우 뛰어났으며, 공 또한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
하였고, 성품이 침착하여 오직, 도서(圖書)만 좋아하였다. 세마(洗馬) 벼슬에
임명하나 사양하고 후일 훈국랑(訓局郎), 평릉찰방(平陵察訪)과 홍천현감(洪

川縣監) 재임시에 선정(善政)을 베풀어 그 칭송이 높았다고 전한다.



윤경지 묘소 전경



향로석



모덕재 전경



묘 갈

淑人 延日 鄭氏 祔左
 兵馬節制都尉尹公敬之之墓
 通訓大夫行洪川縣監原州鎮管

之命也夫遂不起痛哉君娶延日鄭氏列女
 同室以定者一子三女折生三男一女長女適察訪李昌鎮生二男一女次適泰謙金震標李適江都
 所生二男一女君繼娶生直家吉龍女無后有側室子女各一嗚呼君鍾慶德門胚胎漸漬羨質特行施
 無不可惜命隻不偶仕止於百里天又奪其年獨使我頑疎苟全屬當秉筆神敬精昏不克舉其概為負
 君矣銘曰

20×144

元殿威族益惠中昔 豈無今光遠駕近稅 有羨尹君宜達而室 質之上蒼其緘如結 環循復始
 猶實必舊 我操其契永詔爾後 嘉善大夫吏曹叅判兼同知 經筵成均館事 世子右副賓客李敏並 撰
 崇禎紀元後七十二年庚辰十月 日立
 朴孫通政大夫守江原道觀察使兼兵馬水軍節度使巡察使柳以復謹書

20×144

【前面】

淑人延日鄭氏附左

兵馬節制都尉尹公敬之之墓

通訓大夫行洪川縣監原州鎮管

【後面】

有明朝鮮國通訓大夫行洪川縣監原州鎮管兵馬節制都尉尹公墓碣

洪川縣監海平尹君敬之惟一以己亥二月下世其孤圻斤治窀穸無憾以君內兄監司李公時萬狀其行其季女婿江都留守柳公滄豎石表其藏而其姊夫前參判李敏求實爲文而刻之曰高麗世有左僕射君正爲君鼻祖傳至 贈左贊成諱希琳生軍資監正 贈領議政諱忭生領議政海原府院君文靖公諱斗壽生工曹判書諱暉寔爲君四世祖考代著德業門左冠絕一世妣貞夫人 英陵支子寧海君璿之後司評者命女甚有梱範萬曆甲辰生君余以其歲聘判書公門君始生呱呱質秀氣清夙有儀度肫肫謹飭言若不出口幼而無傲慢之戲長而有和令之目推其愛於父母並及兄弟視余猶天倫焉性耽靜適日娛侍二親左右服勤暇則塞兌葆真不喜交遊不營生爲居產獨好圖書閱翫以寓興治學子業危得之亦無汲汲意迄無所成時國被兵 儲君質于藩陽公卿子與從而判書公以辛巳歲長水部君思家大人爲國任職子安得有其身二兄病我當決往遂涕泣請行既赴館我人與異俗襍處不能無交涉生利害唯君落穆自守未嘗肯絲毫洩其操宮偕與諸質子下至僕隸咸嚴重之除洗馬謝病留五年春奔大夫人喪其八月判書公棄諸孤荐罹巨創幾至殞滅服闋舉訓局郎由禁府都事移平陵察訪驛路以蘇乙未又自金吾出宰洪川縣巖邑也土瘠氓凋君約己裕民闔境誦德無已君素羸善病既歸而益甚至不可爲一日仲麟蹄君亡家人不卽以訃聞君忽驚寤號哭曰得異夢甚悲仲氏亡矣逮臨化顧語子圻誠以修身力學曰人有三樂我失其二寧復有生趣既不能仰承先緒朝暮歸盡是余

【右側面】

之命也夫遂不起痛哉君娶延日鄭氏參判豈女閨懿早著先二十七年歿葬廣州福井里坐亥原至是卽同窆以窆有一子三女圻生三男一女長女適察訪李昌鎮生二男一女次適參議金震標季適江都

公生二男一女君繼娶生員宋吉龍女無后有側室子女各一嗚呼君鍾慶德門胚胎漸漬美質特行施無不可惜命隻不偶仕止於百里天又奪其年獨使我頑踈苟全屬當秉筆神敝精昏不克舉其概爲負君矣銘曰

【左側面】

凡厥盛族每患中替 豈無令哭遠駕近稅 有美尹君宜達而窒 質之上蒼其緘如結 環循復始 猶賈必售 我操其契永詔爾後

嘉善大夫吏曹參判兼同知 經筵成均館事 世子右副賓客李敏求 撰

外孫通政大夫守江原道觀察使兼兵馬水軍節度使巡察使柳以復謹書

崇禎紀元後七十三年庚辰十月 日立

【譯文】

숙인연일정씨부좌 통훈대부홍천현감원주진관병마절제도위윤공경지지묘

유명 조선국 통훈대부 행 홍천현감 원주진관 병마절제도위 윤공(尹公) 묘갈

홍천현감(洪川縣監) 해평(海平) 윤군 경지 유일(尹君敬之惟一)이 기해년(己亥年) 2월에 세상을 떠나자, 그 고자(孤子)인 기(圻)가 신중하게 살펴서 유감 없이 묘소를 잘 썼다. 그러고 나서 군(君)의 내형(內兄)인 감사(監司)이 공시만(李公時萬)은 행장을 지었고, 그 계녀서(季女婿)인 강화유수(江華留守) 유공 심(柳公愔)은 비석을 세워 그 묘소를 표시하였으며, 그 자부(姊夫)인 전(前) 참판(參判) 이민구(李敏求)는 글을 지어서 다음과 같이 새겼다.

고려시대에 좌복야(左僕射) 군정(君正)이란 분이 있었으니, 군에게는 비조(鼻祖)·始祖)가 된다. 그로부터 전해 내려와 좌찬성(左贊成)에 추증되고 이름이 희림(希琳)이란 분에 이르러서는 군자감정(軍資監正)을 지낸 뒤 영의정에 추증되고 이름이 변(忭)이란 분을 낳았고, 변이란 분은 영의정에다가 해원부원군(海原府院君)에 봉해지고 시호는 문정(文靖)이며 이름이 두수(斗壽)란 분을 낳았고, 두수란 분은 공조 판서(工曹判書)를 지내고 이름이 휘(暉)란 분을 낳았으니, 이 분들은 바로 공에게 4세가 된다. 공의 조부와 부친이 대대로 덕업(德業)을 하여 문호(門戶)가 한 세대에 으뜸으로 꼽혔다. 어머니 정부인(貞夫人)은 영릉(英陵)의 지자(支子)인 영해군(寧海君) 당(塘)의 후손이고, 사평(司評) 기명(耆命)의 딸인데, 규범(閨範)이 매우 있었다.

만력(萬曆) 갑진년(甲辰年)에 공을 낳았다. 나는 그 해에 판서공(判書公)의 가문으로 장가들었다. 그 때 군은 갓 태어나서 응애응애 하고 울고 있었는데, 자질이 빼어나고 기골이 청수하였다. 군은 의젓하게 법도를 지켰으며, 말을 함에 있어서도 마치 말이 입에서 나오지 못하는 것처럼 신중하게 하였다. 어려서는 오만 방자하게 노는 일이 없고, 자라서는 온화한 자태를 가졌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하였으며, 나에 대해서는 마치 천륜관계를 가진 친족처럼 보았다.

군은 또한 성품이 조용하고 침착하였으며, 날마다 부모를 편하게 모시고 결

에서 온갖 일을 도왔다. 그리고 여가가 나면 심신의 수양에 대한 공부를 하였고, 남들과 교류하는 일은 좋아하지 않았다. 따라서 생업을 경영하여 재산을 모으려고 하지 않고, 오직 도서(圖書)만 좋아하여 거기에 취미를 붙였을 뿐이다. 과거공부도 의해서 거의 합격할 단계에 이르렀으나 또한 급급하게 서두를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성취하지는 못하였다.

당시 나라가 병란을 입어 세자(世子)가 심양(瀋陽)으로 볼모잡혀 가는데, 공경(公卿)의 아들들이 세자를 따라가도록 되어있었다. 그런데 마침 판서공이 신사년(辛巳年)에 공조 판서(工曹判書)가 되었다. 그래서 군은 「집의 대인이 나라를 위해 관직을 맡았는데, 자식된 도리로 어찌 몸을 아낄 수 있겠는가? 두 형은 병에 걸려있으니, 내가 응당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드디어 울면서 가기를 청하였다.

세자 일행이 일단 심양에 도착하고 나니, 우리나라 사람들은 풍속이 다른 사람들과 섞여서 살아가야만 했으므로 교섭을 버리는데 따라 이해관계가 생기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오직 군만은 태연하게 자신을 지켜서 그 지조를 조금도 더럽히지 않았다. 그러자 궁료(宮僚)와 인질이 된 여러 아들로부터 아래로 복레(僕隸)에 이르기까지 모두 군을 존중하였다.

세마(洗馬)에 임명하니, 군은 병으로 사양하였다. 그 곳에 머무른 지 5년이 되던 그 해 봄에 대부인(大夫人)의 작고소식을 듣고 달려왔다. 그리고 그 해 8월에 판서공 또한 여러 아들들을 버리고 세상을 떠났다. 이중으로 상을 당하여 고된 상제노릇을 하느라 거의 절명하기에 이르렀다.

군은 복을 벗고 나서는 훈구랑(訓局郎)에 임명되었고, 따라서 의금부도사(義禁府都事)로 말미암아 평릉찰방(平陵察訪)으로 옮겨갔다. 군이 평릉찰방에 부임하여 선정을 펼치니, 역로(驛路)의 스러져가던 기색이 다시 소생하였다. 을미년(乙未年)에 군은 또 금오(金吾)로부터 홍천현(洪川縣)의 수령으로 나갔는데, 그 고을은 험한 고을이라 토질은 척박하고 인구수는 적었다. 군이 자기 의 쓰는 비용을 절약하여 백성들을 부드럽게 살 수 있도록 만드니, 온 경내가 군의 덕을 칭송해 마지않았다.

군은 평소 약한 몸이라 병이 잘 났다. 이미 집에 돌아와서는 더욱 심하여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하루는 중씨(仲氏)인 인제군(麟蹄君)이 죽었는데, 그 소식을 집안 사람이 즉시 군에게 알리지 않았다. 그런데 군은 갑자기 깜짝 놀라 잠에서 깨서 흐느껴 곡을 하면서 말하기를 『이상한 꿈을 꾸고 나니 너무도 슬프다. 중씨가 죽었구나.』라고 하였다. 군이 임종시에 가서는 아들 기(圻)를 돌아보며 몸을 뒤고 학문을 힘쓸 것을 가지고 경계하여 말하기를 『사람에게는 세 가지 즐거움이 있는데, 나는 그 두 가지를 잃었으니, 어찌 다시 살맛이 있겠느냐? 우리 선대의 일을 잊지 못하고 곧 죽게 되었으니, 이것은 바로 나의 운명이구나.』라고 하고 결국 일어나지 못하고 죽었으니, 애통하기 그지없다.

군은 연일 정씨(延日鄭氏) 곧 참판(參判) 입(立)의 딸에게 장가들었는데, 규범이 매우 뛰어났다. 부인이 군보다 27년 앞서 죽으므로 광주(廣州) 북정리(福井里) 해좌(亥坐)의 언덕에 장사지냈다가 이때에 와서 군과 함께 합장하였다.

1남 3녀를 두었는데, 기(圻)는 3남 1녀를 낳았으며, 만말은 찰방(察訪) 이창진(李昌鎭)에게 시집가서 2남 1녀를 낳고, 둘째말은 참의(參議) 김진표(金震標)에게 시집갔고, 셋째말은 강도공(江都公)에게 시집가서 2남 1녀를 낳았다.

군은 두 번째로 생원(生員) 송길룡(宋吉龍)의 딸에게 장가들었는데 자녀를 낳지 못하였고, 소실에게서 아들과 딸 각각 한 명씩을 두었다.

아, 덕문(德門)에서 훌륭하게 태어난 군의 아름다운 자질과 뛰어난 행실은 어디에 써도 안될 것이 없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시대를 제대로 만나지 못해서 벼슬이 수령에 그치고 말았다. 하늘은 또 그의 나이를 빼앗아가 일찍 죽게 만들고, 이 못난 나는 구차하게 살게 해서 그의 비문을 짓게 하는데, 정신이 혼미하여 대충도 기록하지 못하겠으니, 군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다음과 같이 명을 한다.

훌륭한 집안은, 매번 중간에 침체됨을 염려하는데.

멀리 갈 수레가, 가까이서 멈추는 일 어찌 없겠는가.

아름다운 윤군, 영달해야 될 것을 그렇지 못하였다.

창천에게 물어보니, 입다물고 대답이 없네.

돌고 돌아 다시 시작하면, 그때는 세상에 잘 팔릴 것.
나는 인척관계를 가지고, 군을 길이 빛나게 한다.

가선대부(嘉善大夫) 이조참판(吏曹參判) 겸 동지경연성균관사(同知經筵成均館事) 세자우부빈객(世子右副賓客) 이민구(李敏求)는 글을 짓고, 외손인 통정대부(通政大夫) 수 강원도관찰사(守江原道觀察使) 겸 병마수군절도사 순찰사(兵馬水軍節度使巡察使) 유이복(柳以復)은 삼가 글을 쓰다.

송정 기원 후 73년 곧 경진년 10월 일에 비석을 세움.

이 숙(李塾) 묘갈

所在地 · 盆唐區 宮內洞 山 17-1

建立年代 · 朝鮮 肅宗 27年(1701)

撰 · 宋 時 烈

書 · 權 尙 夏

規 模 · 總高 · 143cm, 碑高 · 129cm, 幅 · 59cm, 厚 · 16cm

材 質 · 碑身 · 大理石, 臺石 · 花崗岩

이 숙 묘갈은 관교에서 풍덕천으로 가는 23번 국도에서 공안마을로 우회전 하여 올라가면 정희사(靖禧祠) 뒤 이형운(李炯胤) 묘소가 있고, 여기서 우측 길로 조금 가면 남동쪽에 있다.

1701년에 건립된 이 비는 비좌 원수(碑座圓首)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대석 4면에 안상문(眼象紋)과 복련(覆蓮)이 있다.

비문은 송시열(宋時烈)이 지었고, 앞면 글씨의 자경(字徑)은 9·0cm, 음기(陰記) 자경은 2·5cm의 해서(楷書)로 권상하(權尙夏)가 썼다.

비의 마멸 상태는 음기가 심하나 판독이 가능하며, 묘소는 유인 여산송씨(礪山宋氏)와 합장, 상석·향로석·혼유석·계체석·문인석·망주석이 있다.

그리고 2001년 3월에 건립한 비좌 개석의 신도비는 이윤섭(李允燮)이 비문을 지었고, 이양연(李亮淵)이 글씨를 썼으며, 같은 해에 세운 비좌 개석의 묘갈은 10대손 이정섭(李貞燮)이 추기(追記)하였다.

이 숙(1621~1680)은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전주(全州)。자는 학이(學而)。봉산군(蓬山君) 형신(炯信)의 아들이다。

어려서 잔병이 많아 학문에 힘을 기울이지 못하였으나 효도와 우애가 순독(純篤)하여 계모를 섬김에도 뜻을 어김이 없었다. 그래서 일찌기 탄식하기를 『사람에게 소중한 것은 묻고 배워 사람의 도리를 아는 것 뿐인데 나는 불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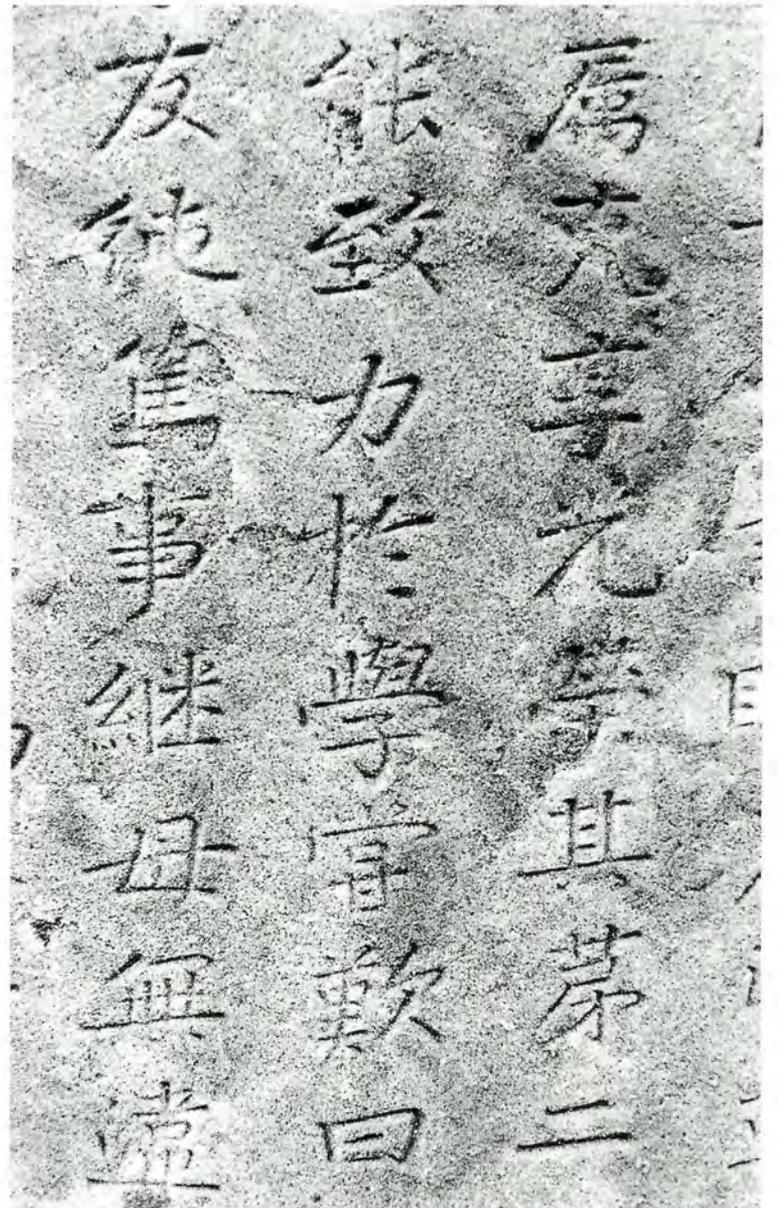
하게도 배우지 못하였다.』라고 하며 여러 아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들은 학문에 힘을 지어다.』라고 하였다 한다。



이 속 묘소 전경



묘 갈



묘갈 비문 일부



향로석



망주석



문인석

有明朝鮮禦侮將軍行忠
佐衛副司果李公之墓
孺人礪山宋氏祔左

【前面】

有明朝鮮禦侮將軍行忠

佐衛副司果李公之墓

孺人礪山宋氏附左

【後面】

昭德大夫龜川君 諡忠肅公諱晬在昏朝時率諸宗班疏斥奸兇竄配窮荒癸亥 反正首被褒

寵 仁祖大王優禮尊屬充享光榮其第二男曰蓬山君諱炯信娶清州韓氏女 天啓辛酉生公

諱塾字學而少善病不能致力於學嘗歡曰所貴乎人者學問而知道而已顧余不幸失學矣謂

諸子曰汝等勉之公孝友純篤事繼母無違志繼母韓氏亦慈覆深至宗族於其兄弟不覺其異出

焉公配宋氏沒人或勉以後娶以爲養者公曰娶而不賢則於諸子不便矣 崇禎甲寅 仁宣王

后昇遐公充差 魂殿執事官見忤宦寺而退後七年庚申十二月初三日以疾卒辛酉正月葬于

廣州樂生里宋氏附焉宋氏郡守鉉之女端一淑愼年十九有行享年五十一四男箕疇箕範箕仁

箕傳箕範進士箕疇生著顯著先其餘男女皆幼嗚呼忠肅公既忠節輝赫而箕疇又篤志力行士

友推重焉公之行業可謂有自來而又有往也箕疇與余久相游從余於公家行耳熟焉故使著

顯來請銘銘曰顯顯忠肅如劉宗正公承厥緒孝友之政有子而賢是謂胤慶福祿未艾惟天之定

原任大匡輔國崇祿大夫領中樞府事致仕奉 朝賀宋時烈撰其門人安東權尙夏書

箕疇用薦擢除 侍講院諮議歷司憲府持平掌令今爲清風府使改名曰箕洪避凶人名字

同也箕洪男著定著聖著定生員壻進士金有慶士人鄭泰河箕範男著采壻士人安聖揆箕

【右側面】

仁男著興著恒著升壻士人韓聖和箕傳男著禎著祥餘皆幼內外孫曾三十餘人此不載元

錄中故追記于下方

崇禎紀元後七十四年辛巳 月 日立

【譯 文】

유명조선어모장군행충좌위부사과이공지묘 유인여산송씨부좌

유명 조선어모장군 행충좌위 부사과 이공(李公) 묘갈명 병서

소덕대부(昭德大夫) 구천군(龜川君)으로 시호는 충숙(忠肅)이고 이름은 수(粹)라고 한 분이 광해군의 혼조(昏朝) 때에 종반(宗班)을 이끌고 상소를 올려 간흉(奸凶)들을 배척하다가 먼 변방으로 유배되었다. 그러다가 계해년(癸亥年 .. 仁祖 1, 1623) 인조 반정이 일어나자 맨 먼저 성문을 열어 귀양에서 풀려났는데, 인조대왕은 존속(尊屬)을 특별히 우대했기 때문에 광영을 만끽 누렸다.

구천군의 둘째 아들은 봉산군(蓬山君)으로 이름을 형신(炯信)이라고 하는데, 청주 한씨(淸州韓氏)의 딸에게 장가들어 천계(天啓) 신유년(辛酉年 .. 光海 13, 1321)에 공을 낳았다.

공은 이름은 숙(塾)이고 자는 학이(學而)인데, 어려서 잔병이 많아서 학문에 힘을 기울이지 못하였다. 그래서 공은 늘 탄식하기를 『사람에게 소중한 것은 글을 배워서 사람의 도리를 아는 것뿐인데, 나는 불행하게도 배우지 못하였다.』라고 하고, 여러 아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은 학문에 힘쓰도록 하라.』고 하였다.

공은 천성적으로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하였다. 계모(繼母)를 섬김에 있어서도 뜻을 어김이 없었고, 계모 한씨(韓氏) 또한 공을 지극히 자애(慈愛)했기 때문에 종족들까지도 공이 한씨의 소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공의 배위(配位)인 송씨(宋氏)가 작고하자, 어떤 사람이 「다시 장가들어 봉양을 받도록 하라.」고 권하니, 공은 말하기를 『장가들었다가 만일 아내가 어질지 못하면 아이들에게 불편만 안겨주게 된다.』라고 하였다.

송정(崇禎) 갑인년(甲寅年 .. 顯宗 15, 1674)에 인선왕후(仁宣王后 .. 孝宗妃 張氏)가 승하하자, 공은 혼전(魂殿)의 집사관(執事官)으로 차출되었다가

환시(宦寺)의 비위를 거슬러 물러나고 말았다. 그 후 7년만인 경신년(庚申年) 12월 초3일에 병으로 작고하니, 신유년(辛酉年) 정월에 광주(廣州)의 낙생리(樂生里)에 장사지내고 부인 송씨를 부장하였다. 송씨는 군수(郡守)를 지낸 현(鉉)의 딸로서 단아하고 전일하고 현숙하고 근신하였는데, 19세에 시집왔으며, 향년은 51세였다.

4남을 두었으니, 기주(箕疇) · 기범(箕範) · 기인(箕仁) · 기전(箕傳)인데, 기범은 진사(進士)가 되었으며, 기주는 시현(著顯)과 시선(著先)을 낳았고, 그밖의 남녀는 모두 어리다.

아! 충숙공은 이미 충절(忠節)이 혁혁하였는데, 기주 또한 뜻을 독실히 하고 행실을 힘썼기 때문에 사우(士友)들이 추증하였다. 공의 행업(行業)은 유래한 바가 있고 또 전하는 바가 있다고 할 만하다. 기주와 나는 서로 오랫동안 교유하였기 때문에 나는 공의 가행(家行)에 대하여 익히 알고 있다. 그래서 기주는 그 아들 기현을 시켜서 공의 묘갈명을 나에게 청하게 된 것이다. 다음과 같이 명을 한다.

현명한 충숙공은, 유종정(劉宗正) 같았도다.
공은 그 계통 이어, 효도와 우애를 다하였네.
아들 두어 그가 어질면, 이를 일러 윤경(胤慶).
복록이 무궁무진한 건, 하늘이 점지해준 것.

원임(原任) 대광보국(大匡輔國) 승록대부(崇祿大夫)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 치사(致仕) 봉조하(奉朝賀) 송시열(宋時烈)은 글을 짓고,
그 문인(門人) 안동(安東) 권상하(權尙夏)는 글을 쓰다.

기주는 추천에 의해서 시장원 자의(侍講院諮議)에 임명되고, 이어 사헌부(司憲府)의 지평(持平)과 장령(掌令)을 역임하였으며, 지금은 청풍부사(淸風府使)가 되었고, 이름을 기홍(箕洪)으로 개명하였으니, 그것은 흉인(凶人)의 이름과 같음을 피하기 위함이다.

기흥의 아들들은 시정(著定)과 시성(著聖)인데, 시정은 생원이며, 사위는 진사 김유경(金有慶)과 사인 정태하(鄭泰河)이다. 기범의 아들들은 시채(著采)이며, 사위는 사인 안성규(安聖揆)이다. 기인의 아들들은 시흥(著興)·시항(著恒)·시승(著升)이며, 사위는 사인 한성화(韓聖和)이다. 기전의 아들들은 시정(著禎)과 시상(著祥)이며, 나머지는 모두 어리다. 내외의 손자와 증손은 모두 30여 명이 된다.

이것은 원록(元錄)에 기재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랫부분에 추기(追記)하는 바이다.

송정(崇禎) 기원(紀元) 후 74년 만인 신사년(辛巳年) 월 일에 비석을 세움.

이경류(李慶流) 묘갈

指定番號 .. 京畿道 記念物 第 116 號
所在地 .. 盆唐區 藪內洞 山 112
建立年代 .. 朝鮮 英祖 4年(1728)

撰 .. 李 緯
書 .. 洪 錫 輔
篆 .. 金 鎭 商
規 模 .. 總高 .. 261cm, 碑高 .. 192cm, 幅 .. 80cm, 厚 .. 26cm
材 質 .. 臺石 .. 花崗岩, 碑身 .. 花崗岩, 臺石 .. 花崗岩

이경류 묘갈은 분당 중앙공원 내 이증(李增)의 신도비각과 부조묘(不祧廟)를 지나면 좌측 비각 안에 있고, 우측 산에 묘소가 있다.

1728년에 건립된 이 비는 비좌 개석(碑座蓋石)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개석은 팔작 지붕으로 단조롭고 대석에는 4면에 당초문(唐草紋)과 복련(覆蓮)이 있다.

제액(題額)은 『贈承政院都承旨行兵曹佐郎李公墓碣銘(중승정원도승지행병조 좌랑이공묘갈명)』이라고 김진상(金鎭商)이 전서(篆書)로 썼는데 자경(字徑)은 10·5cm이고, 음기(陰記)는 홍석보(洪錫輔)가 해서(楷書)로 썼고, 자경은 3·5cm이며, 비문(碑文)은 이재(李緯)가 지었다.

비의 상태는 앞뒷면의 상하 부분 모두 마멸이 심해 일부 판독이 불가능한 곳이 있으며, 중숙부인 횡성조씨(橫城趙氏)의 묘소는 우측 능선 남서쪽에 있고, 상석·향로석·훈유석·계체석·문인석·망주석이 있다. 그리고 조선 중기에 건립한 비좌 원수의 묘표가 있고, 묘소 아래에 말무덤이 있으며, 1728년에 세운 정려각이 있다.

이경류(1564~1592)는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한산(韓山)。자는

장원(長源), 호는 반금(伴琴)。아버지는 판서 증(增)이며, 어머니는 이몽원(李夢菴)의 딸이다.

1591년(선조 24) 진사가 되었고, 같은 해에 식년문과 을과로 급제하여 성균관 전적을 거쳐 사헌부 감찰, 병조좌랑을 역임하였다.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조방장 변기(邊幾)의 종사관으로 출전하여 상주에서 상주관관 권길(權吉)과 함께 전사하였다. 이에 조정에서는 「충신지문(忠臣之門)」이란 정려가 내려졌고, 후에 도승지·직제학·홍문관 부제학에 추증되었으며, 상주의 충신의사단(忠臣義士壇)에 제향되었다.

그의 장묘는 시신을 찾지 못하여 관복과 이불로써 조성되어 있다.



이경류 묘갈 전경



횡성조씨 묘표



묘 표



이경류 묘소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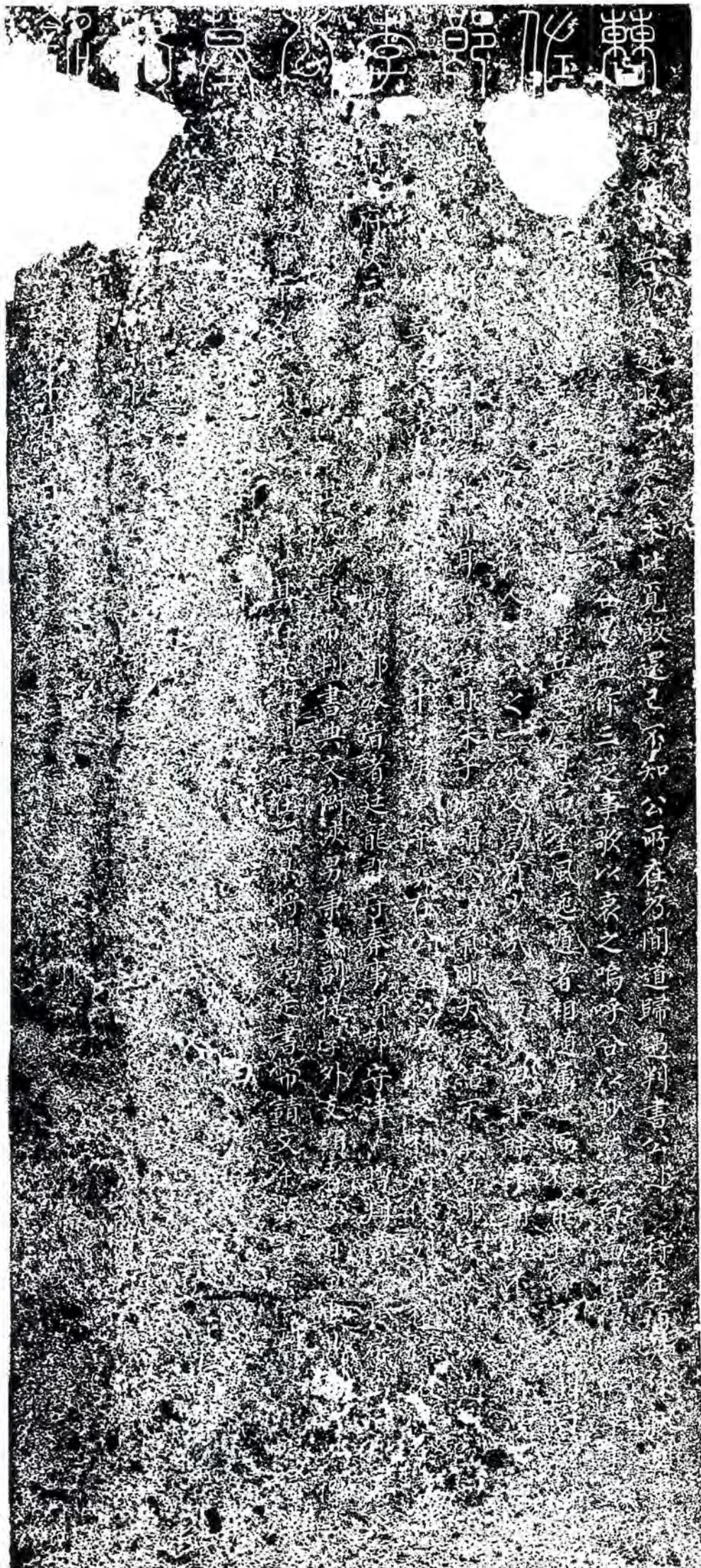


망주석



문인석

公名 啓下 仲曰 朝議 厲我 我必 往台 曰事 急矣 安敢 辭難 即馳 馬去 無復 顧身 計無 所出 則李 益車 在尚 州必 往後 之矣 公遂 行 公進 行公 篇以 後事 皆死 公麗 泣告 餘衆 曰 國事 至此 惟有 死耳 遂赴 陣 以朝 衣帶 及余 付一 吏歸 與書 家人 曰事 機已 隱吾 命在 天耳 遂安 矣而



80×192

【前 面】

贈承政院都承旨行兵曹佐郎李公墓碣銘(篆額)

有明朝鮮國 贈通政大夫承政院都承旨兼 經筵參贊官春秋館修撰官藝文館直提學尙瑞院正行宣

教郎守兵曹佐郎李公墓碣銘并序

嘉義大夫吏曹參判兼守弘文館大提學藝文館大提學同知 經筵春秋館成均館事 世子左副賓客李 緯撰

嘉義大夫吏曹參判兼同知 經筵義禁府春秋館事五衛都摠府副摠管 世子左副賓客洪錫輔書

通訓大夫行司憲府執義知製教兼校書館校理金鎮商篆

萬曆壬辰倭寇大入嶺以南瓦解至尙州助防將邊璣遁其從事李公慶流死之時干戈道不通 朝廷不以時間難定又未遑褒錄公孤穉公死時生甫四歲既長上書自陳始 贈公弘文館直提學旌之曰忠臣之門公字長源韓山人自稼亭牧隱暨良景公種善文烈公季甸大司成塢仍累世赫寫三傳至判書增娶慶州李氏司直夢龜女生公公慷慨有志節二十八進士仍取明經科用判書公勞陞六品爲成均館典籍翌年拜司憲府監察兵曹佐郎尋移禮曹寇報猝至百官鳥獸竄公疾赴 闕廟堂將遣將守烏嶺公仲兄慶涵差從事倉卒誤以公名 啓下仲曰朝議屬我我必往公曰事急矣安敢辭難卽馳馬去無幾微見色至嶺見主將有逗留引義責之是夜將走不知處一軍駭散公計無所出聞李鎰軍在尙州亟往從之未及數十里賊兵已彌野鎰亦逸去尹公暹朴公箴以從事皆死公灑泣告餘衆曰 國事至此惟有死耳遂赴敵力戰以死卽四月二十五日也臨陣以朝衣帶及衾付一吏歸與書家人曰事機已急吾命在天只望安奉兩親善護兒子又

【後 面】

謂家僮曰吾飢甚趣取一盂飯來比覓飯還已不知公所在乃問道歸遇判書公赴 行在痛哭陳狀判書公用衣衾葬于廣州突馬之先塋具八谷思孟作三從事歌以哀之嗚呼公以眇然一白面釋褐纔一年軍旅非其所學而一朝有急走死地如鷲彼擁強兵受厚恩而望風逃遁者相隨屬也而獨能捨命取義明白從容雖用不盡材而其風聲義烈足以扶樹人紀公之一死又曷可少哉公歿後四十餘年精魄不泯凡有憂慶家人往往如見如聞余以同閨後生亦耳熟矣豈非朱子所謂養得氣剛大凝結不散者耶夫人橫城趙氏父曰僉知遶柩範純備蓋以公訣書爲終身用年八十八庚寅卒葬在公墓之右檣文科府使別坐權僕牧使金孝誠

公壻也府使二男廷夔參判是加 贈公都承旨者廷龍郡守奉事瀆郡守滓 贈判書沆長房出府使澳參
判澤進士浹觀察使漵次房出沆男秉常判書典文衡浹男秉泰副提學外支顯者承旨金世鼎判書尹德駿
公之後既蕃而又衆賢天之報施公其在是與觀察在海臬將樹碣走書幣請文余敬諾無何觀察以櫬歸其
從子判官秉鼎書速曰不則吾叔之目不瞑矣余悲觀察之志遂爲之銘銘曰

天地之間氣剛烈兮 不生與存死與滅兮 是或融結山岳峯兮 又爲雷霆洩一鬱兮 商水湯湯平原
忽兮 空裏投櫬神恍惚兮 援唵鶴飛非我匹兮 有菀梧楸安此室兮 冠佩華華享祀潔兮 鍾茲忠
孝慶長發兮

崇禎紀元後再戊申十月 日立

【譯 文】

증승정원도승지행병조좌랑이공묘갈명

유명 조선국 증 통정대부 승정원도승지 겸 경연참찬관 추추관수찬관 예문관 직제학 상서원정 행 선교랑 수 병조좌랑 이공(李公) 묘갈명 병서

가의대부 이조참판 겸 수 홍문관대제학 예문관대제학 동지경연 춘추관 성균관사 세자좌부빈객 이재(李穡)는 글을 짓고,

가의대부 이조참판 겸 동지경연 의금부 춘추관사 오위도총부부총관 세자좌부빈객 홍석보(洪錫輔)는 글을 쓰고,

통훈대부 행 사헌부집의 지제교 겸 교서관교리 김진상(金鎭商)은 전액을 쓰다.

만력(萬曆) 임진년(壬辰年)·宣祖 25, 1592)에 왜구(倭寇)가 대거 침입하여 영남지방 일대가 와해(瓦解)되었다. 상주(尙州)에 이르러서는 조방장(助防將) 변기(邊璣)가 도망하고, 그 종사관(從事官)인 이공 경류(李公慶流)는 전사하였다.

이때는 전란으로 인하여 도로가 불통이었고, 조정에서도 그 사정을 수시로 알리지 못하였으며, 병란이 평정되었을 때에도 또 포록(褒錄)을 할 겨를이 없었다. 공의 고자(孤子)인 제(濟)는 공이 죽을 때 겨우 네 살이었다. 제가 이미 장성하자, 국왕에게 글을 올려 공의 충렬(忠烈)을 진언하니, 비로소 공에게 홍문관 직제학(弘文館直提學)이 추증되고, 따라서 「충신지문(忠臣之門)」이라는 정문이 세워졌다.

공은 자는 장원(長源)이고 본관은 한산(韓山)이다. 가정(稼亭)·李穀과 목은(牧隱)·李穡으로부터 양경공(良景公) 종선(種善), 문열공(文烈公) 재전(季甸), 대사성(大司成) 우(偶)에 이르기까지 여러 대에 걸쳐 벼슬이 이어져서 문호가 빛났다. 세 번 전해 내려와 판서(判書)를 지낸 증(增)에 이르러서 경주 이씨(慶州李氏)인 곧 사직(司直)을 지낸 몽원(夢元)의 딸에게 장가들어 공

을 낳았다.

공은 정의심에 북받치는 지절(志節)이 있었으며, 28세에 진사(進士)가 되고, 이어 명경과(明經科)에 급제하였으며, 판서공(判書公)의 공로를 가지고 6품에 올라 성균관 전적(成均館典籍)에 임명되었고, 다음해에는 사헌부 감찰(司憲府監察)과 병조 좌랑(兵曹佐郎)에 임명되었다가 얼마 후에 예조(禮曹)로 자리를 옮겼다.

왜구가 쳐들어온다는 보고가 이르자, 백관들은 마치 조수(鳥獸)처럼 도망가 숨어 버렸으나 공은 빨리 대궐로 달려갔다. 묘당(廟堂)·朝廷에서 장차 장수를 보내어 조령(鳥嶺)·새재(새재)을 지키려고 할 때에 공의 중형(仲兄)인 경합(慶涵)이 종사관(從事官)으로 차출되었다. 그런데 워낙 황급하다 보니 잘못 공의 이름을 가지고 임금의 재가를 받았다. 그러자 공의 중형이 말하기를 『조정의 논의에서 나를 종사관으로 뽑았으니, 내가 반드시 갈 것이다.』고 하였는데, 공은 말하기를 『사태가 위급한데, 어찌 감히 어려운 일을 사양하겠는가?』라고 하고, 말을 달려갔는데, 조금도 언짢은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조령에 이르러 주장(主將)을 만나보니, 그는 한 곳에 머물러는 뜻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자 공의 의리를 가지고 그를 책망하였더니, 그날 밤에 주장은 도망하여 그간 곳을 알 수가 없었고, 군사들 또한 놀라 뿔뿔이 흩어졌다. 그러자 공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이일(李鎰)의 군사가 상주(尙州)에 주둔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쪽으로 급히 달려갔다. 그런데 수십 리도 못 가서 적군은 이미 사방에 가득 차있었고, 이일 또한 도망해버렸으며, 윤공 섬(尹公暹)과 박공 지(朴公旆)는 종사관으로서 모두 전사하였다. 공은 눈물을 흘리면서 남아있는 군중들에게 말하기를 『나라의 일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오직 죽음만이 있을 뿐이다.』라고 하고, 마침내 적진 속으로 뛰어들어가 혼신의 힘을 다해 싸우다가 죽었으니, 이날은 바로 4월 25일이었다.

적진(敵陣)에 다다랐을 때에 공은 조의(朝衣)와 조대(朝帶) 및 이불을 아전 한 명에게 부쳐 집으로 돌려보냈는데, 그 편에 편지 한 장을 집사람에게 전하기를 『사태가 매우 위급하여 나의 목숨은 하늘에 달려다오. 부디 부모님을 편히 안히 봉양하고 아이들을 잘 보살펴주기만을 바랄 뿐이오.』라고 하였다. 그리

고 또 가동(家僮)에게 말하기를 『내 몫시 시장하니 밥 한 그릇을 빨리 가져오도록 하라.』고 하였다. 가동이 밥을 구해 돌아와 보니, 이미 공의 소재는 알 수가 없었다. 그래서 가동은 사이길로 돌아오다가 행재소(行在所)로 달려가는 관서공을 만나서 통곡하며 사정을 진언하였다. 그러자 관서공은 공의 옷과 이 불을 가지고 광주(廣州) 돌마(突馬)의 선영(先塋)에 장사를 지냈다. 팔곡(八谷) 구사맹(具思孟)은 세 종사관을 애도하는 노래를 지어서 슬퍼하였다.

아! 공은 미세한 백면서생(白面書生)으로서 벼슬길 나아간 지 겨우 1년밖에 되지 않았고, 군사에 관한 것도 배운 바가 아니었는데, 하루아침에 위급한 사태가 발생하자, 죽을 땅으로 달려가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저 강병(強兵)을 거느리고 또한 임금의 후한 은혜를 받고도 적의 기세를 바라보고 도망하여 숨는 자들이 서로 줄을 이었는데도, 공은 홀로 능히 목숨을 버리고 의리를 취하였으니, 그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비록 그 재능을 다하지는 못하였지만 그 풍성(風聲)과 의열(義烈)은 인물과 기강을 부식(扶植)하기에 족하였으니, 공의 죽음이 어찌 작은 것이라 할 수 있었는가? 공이 죽은 지 40여 년이 지났어도 정백(精魄)은 사라지지 않았으니, 무릇 우환과 정사가 있을 경우에는 집안 사람들에게 공의 모습이 보이는 듯하기도 하고 공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하기도 하였다.

나는 공과 같은 고을에 살았던 후배로서 또한 공의 일을 귀에 인도록 들었는데, 이는 어찌 주자가 이른바 「수양한 기가 강대하고 응결되어 흠어지지 않는다.」고 한 것이 아니겠는가!

부인은 횡성 조씨(橫城趙氏)로 그 아버지는 첨지(僉知)를 지낸 인(遴)이다. 부인은 규범(圍範)이 온전하게 갖추어졌으니, 그것은 아마 공의 결별한 편지의 내용을 가지고 일생의 쓰임을 삼았기 때문이라. 88세가 되던 경인년(庚寅年)에 작고하니, 공의 묘소 오른쪽에 장사지냈다.

아들 제(濟)는 문과에 급제하여 부사(府使)를 지냈으며, 별좌(別坐)인 권영(權僎)과 목사(牧使) 김효성(金孝誠)은 사위이고, 부사는 2남을 두었는데, 정기(廷慶)는 참판(參判)을 하였으니, 이 때문에 바로 공에게 도승지(都承旨)를 더 추증하게 되었던 것이고, 정룡(廷龍)은 군수(郡守)를 지냈다.

봉사(奉事)를 지낸 자(瀆)와 군수(郡守)를 지낸 행(滄)과 판서(判書)에 추증된 항(滄)은 장남의 소생이며, 부사(府使)를 지낸 오(澳)와 참판(參判)을 지낸 택(澤)과 진사(進士)인 협(狹), 관찰사(觀察使)를 지낸 집(濶)은 차남의 소생이다.

항의 아들 병상(秉常)은 판서(判書)로 문형(文衡)·大提學(大提學)을 맡았고, 협의 아들 병태(秉泰)는 부제학(副提學)이 되었다.

또 외손으로 현달한 자는 승지(承旨)를 한 김세정(金世鼎)과 판서(判書)를 한 윤덕준(尹德駿)이다. 공의 후손이 이미 번성하고 또 어진 이가 많은 것은 하늘의 보시(報施)를 공이 향유한 것인가?

관찰공이 황해도 관찰사(黃海道觀察使)로 있을 때에 장차 공의 묘비를 세우고자 하여 서신과 예폐(禮幣)를 내게 보내와 글을 지어달라고 청하였으므로 나는 조심스럽게 승낙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관찰공은 죽으니 시체로 돌아왔고, 그 조카인 판관(判官) 병정(秉鼎)이 서신으로 비문을 독촉하기를 『거절하시면 숙부께서 눈을 감지 못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나는 관찰공의 뜻을 슬프게 여기고 드디어 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명을 한다.

천지의 간기(間氣)는 강렬(剛烈)한 것.

살면 존재하고 죽으면 없어지는 게 아니로다.

이것이 응결하여 산악처럼 우뚝하리로다.

우레와 번개 되어 답답함 씻어주리라.

상수는 출렁출렁 평원은 아스라하네.

공중에 깔 던지듯이 정신 황홀해지는도다.

이미 날은 학 나의 짝 아님을 읊조리도다.

선비들은 많이 모여 정결하게 제사지내도다.

총과 효를 심었으니 경사 길이 이어지리로다.

숭정(崇禎) 기원(紀元) 후 두 번째 돌아온 무신년(戊申年) 10월 일

석을 세움.

한명옥(韓明勛) 묘갈

所在地..盆唐區 栗洞山 612

建立年代..朝鮮 英祖 19年(1743)

撰 .. 韓 明 勛

書 .. 李 稔

追 記.. 李 敏 求

規 模..總高..146cm, 碑高..115cm, 幅..52cm, 厚..17cm

材 質.. 碑身.. 大理石, 臺石.. 花崗岩

한명옥 묘갈은 서현동에서 율동공원으로 가는 길 좌측의 궁미관 식당 뒤 한지원(韓智源)의 묘소 좌측 산 정남쪽에 있다.

1743년에 건립된 이비는 비좌 원수(碑座圓首)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대석 4면에 안상문(眼象紋)과 복련(覆蓮)이 있다.

비문은 자술(自述)·韓明勛이고, 추기(追記)는 이민구(李敏求)가 지었으며, 앞면의 자경(字徑)은 7·5cm, 음기(陰記)의 자경은 1·8cm의 해서(楷書)로 이 유(李稔)가 썼다.

비의 상태는 마멸 진행되고 있으나 판독이 가능하며, 정부인 동래정씨(東萊鄭氏)의 묘소는 우측 아래, 정부인 고령박씨(高靈朴氏)의 묘소는 좌측 아래로 품자형(品字形), 상석·향로석·훈유석·계체석·망주석이 있다.

한명옥(1567~1652)은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청주(淸州)。자는 옥재(勗哉), 호는 율헌(栗軒)。참판술(述)의 아들이다.

처음 음사(蔭仕)로 관직에 나아가 현감까지 하였으나 그만두고 송강정철(鄭澈)과 우계성 혼(成渾)의 문하에서 수학하였고 1606년(선조 39) 뒤

늦게 사마시에 합격하여 진사가 되어 성균관 장의(掌議)가 되어 이때, 계곡장 유(張維)와 같이 우계(牛溪)·율곡(栗谷)의 무함을 소변(疏辯)하기도 했

다.

1612년(광해군 4) 증광시 문과에 병과로 급제되어 사과(司果)에 제수되어 기사관(記事官)으로서 「선조실록」 편찬에 참여하였다. 1615년(광해군 7) 세자시강원 사서(世子侍講院司書)에 제수되고 이어 사간원 정언. 사헌부 지평을 거쳐 장령(掌令)이 되었다.

1630년(인조 8) 동지 겸 성절사(冬至 兼 聖節使)로 중국에 다녀오고, 1634년에 재차 문안사(問安使)로 명나라에 다녀왔다. 1642년(인조 20) 행호군(行護軍)을 겸하고, 1646년 자헌대부(資憲大夫)에 올라 지돈녕부사(知敦寧副使)가 되어 기사(耆社)에 들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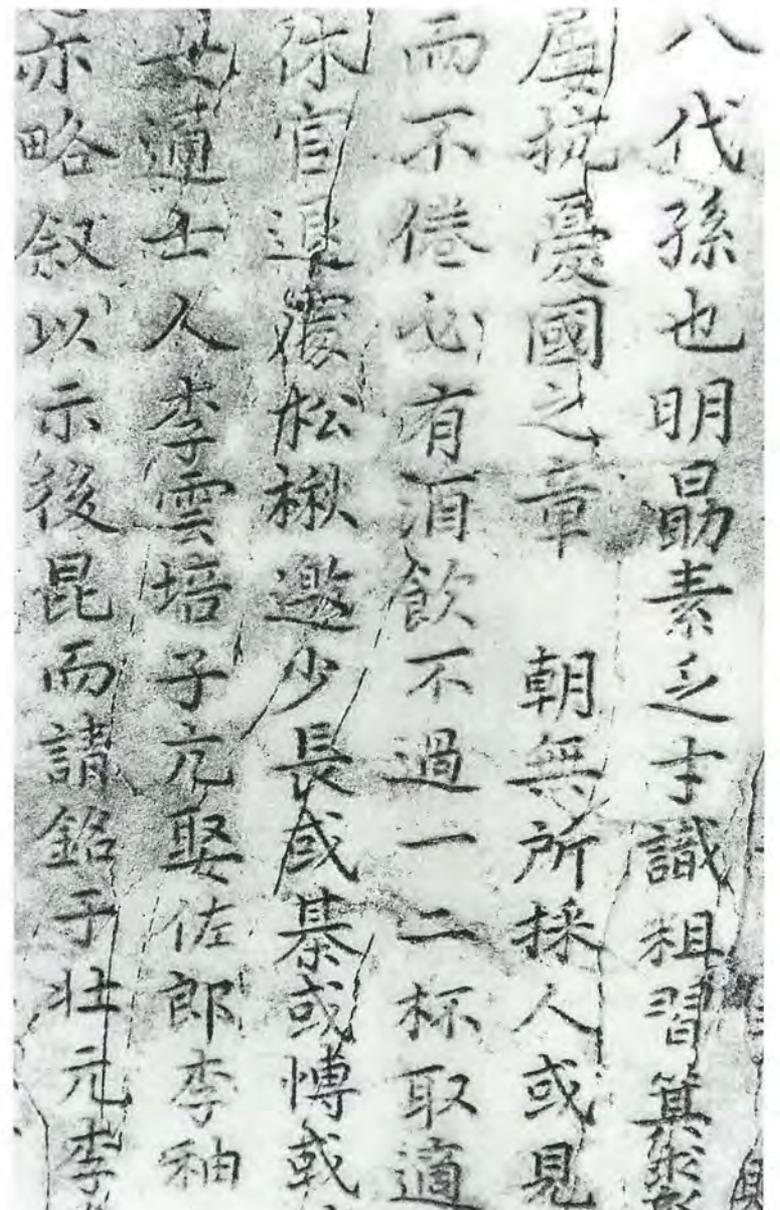
저서로는 할아버지 지원(智源)과 자기 두 아들 술(述)·회(懷) 그리고 자작시, 3부자의 시문(詩文)을 한데 모은 「삼체집(三體集)」이 있다.



한명옥 묘소 전경



묘 갈



묘갈 비문 일부

貞夫人東萊鄭氏之墓
貞夫人高靈朴氏之墓
事韓公明勛之墓
資憲大夫知敦寧府

清州府天之所育有曰朝陽李氏就廣陵 先墓下乘其鄉功自補業行年至老乃叙為墓道之文曰 考李氏 贈左
 實所詳述而平右注又請公傳繼禧五代孫也 妣貞淑夫人李氏 太宗大王八代孫也 贈品未之予 誠相習其德之
 業地占大小科初並任中丞臺省與州郡陞宰秩皆在分所任願無可稱之蹟屢抗憂國之章 朝無所採入或見其
 此其格亦規條也平生好書律聞卜言曾未能究妙法抄著數篇皆應射而不倦必有預飲不通一二杯取道而
 止醉則命遊故以况日與送茶時自歌林以和之 飲亦山秦壽也 狂語知樞密也 休官還處於樞密少長或恭或博或賦
 詩備件於樞密行進之間以時吾生前後高靈朴氏東萊鄭氏俱在閣也 後有女適士人李雲培子允娶依即李袖女
 庶有男年十餘歲 有子有女至十餘皆頑率杜牧東之克失自誌其墓反過亦略叙以示後昆而誌銘于柱元李來
 判院海公世四五福之首莫先白壽位繼八座居朝之右邊尋三儲子女成有體原公旋承於允符大老維敬謀以需期
 物揚年穉不成不啻時自誌其丘西原韓大夫也 時刻銘以評東州李敬來也 歲丙戌以婦人耆老所叙碑文越
 七年壬辰十月初四日易養于廣陵栗里精舍是年十一月二十四日未定于靈長山西麓子坐午向之原公生於丁卯
 年於壬辰年八十一位理切臣諱諱宗之後 贈判書韓家義之女俱有婚德而封貞夫人後配有一女一男一女曰李
 後配即氏享年八十一位理切臣諱諱宗之後 贈判書韓家義之女俱有婚德而封貞夫人後配有一女一男一女曰李
 慶培男曰允備室有三男一女男曰商武科曰旁曰童女曰鄭晚雲培生一男曰羽瑞曰鳳瑞允生三男二女男曰善慶
 曰善鳴曰善付女曰李德美曰閔思曾又有庶子女俱幼商生三男曰善行曰善復曰善德子生三女慶生三男二女男
 曰善滋曰善餘曰善最曰女皆幼晚生一男五女男曰德儒王海峻必之先系詳於本判公墓碣而公之序日行歲載於
 自叙碑文可以想公之平生矣至於孝君之義齊家之道亦多日月之所規範不敢請於當世也 宣惠于者逝先志也
 崇禎後初甲癸亥八月 日立 連楮生嘉義太夫刑曹參判無五衛都松府副使李袖謹書

【前 面】

貞夫人東萊鄭氏之墓

貞夫人高靈朴氏之墓

事韓公明勗之墓

資憲大夫知敦寧府

【後 面】

清州韓氏之裔有曰明勗字勗哉就廣陵 先墓下栗里鄉仍自號栗軒年至耄乃叙爲墓道之文曰 考參判 贈左

贊成諱述西平君諡文靖公諱繼禧五代孫也 妣貞敬夫人李氏 太宗大王八代孫也明勗素乏才識粗習箕裘之

業晚占大小科初筮蔭仕中歷臺省典州郡陞宰秩皆涯分所極顧無可稱之蹟屢抗憂國之章 朝無所採人或見詆

此其始末梗概也平生好音律閱卜書皆未能究妙祇依古法抄著數篇嘗喜射而不倦必有酒飲不過一二盃取適而

止醉則命篋奴琴兒日與迭奏時自歌詠以和之齡垂九秩壽也位躋知樞崇也休官退處松楸邀少長或棊或博或賦

詩徜徉於梅庭竹塢之間以終吾生前後娶高靈朴氏東萊鄭氏俱名閥也後有女適士人李雲培子亢娶佐郎李袖女

庶有男三女一皆婚嫁有子有女至十餘昔唐之杜牧宋之堯夫自誌其墓文愚亦略叙以示後昆而請銘于壯元李參

判觀海公銘曰五福之首莫先曰壽位聯八座居朝之右達尊三備子女咸有體康心逸永終無咎大耋維歌樂以需期

揭揭卓識不戚不咨疇自志其丘西原韓大夫也疇刻銘以誦東州李敏求也 歲丙戌公始入耆老所自叙碑文越

七年壬辰十月初四日易簣于廣陵栗里精舍是年十一月二十四日永定于靈長山西麓子坐午向之原公生於丁卯

卒於壬辰壽八十六前後配同一原而後配附于原之上邊前配朴氏享年五十二判書諱蔓之後 贈判書諱樸之女

後配鄭氏享年八十一佐理功臣諱蘭宗之後 贈判書諱象義之女俱有婦德而封貞夫人後配有一女一男女曰李

雲培男曰亢側室有三男一女男曰商武科曰旁曰章女曰鄭晚雲培生二男曰羽瑞曰鳳瑞亢生三男二女男曰善慶

曰善鳴曰善行女曰李德英曰閔思曾又有庶子女俱幼商生三男曰善得曰善復曰善德旁生三女章生三男二女男

曰善澂曰善餘曰善最曰女皆幼晚生一男五女男曰後僑主簿噫公之先系詳於參判公墓碣而公之平日行藏載於

自叙碑文可以想公之平生矣至於事君之義齊家之道亦多耳目之所覩記不敢請狀於當世立言君子者遵先志也

崇禎後初甲癸亥八月 日立

連楣生嘉義大夫刑曹參判兼五衛都摠府副摠管李袖謹書

【譯 文】

정부인동래정씨지묘 정부인고령박씨지묘 자헌대부지돈녕부사한공명욱지묘

자헌대부 지돈녕부사 한공(韓公) 묘갈명 병서

청주 한씨(淸州韓氏)의 후손 중에 이름을 명욱(明勛)이라고 하고 자를 옥재(勛哉)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광릉(廣陵) 선영(先塋) 아래 율리(栗里)라는 마을에 가서 살면서 마을 이름을 따서 자호를 율헌(栗軒)이라 하였고, 늑막에 가서는 스스로 묘비문을 다음과 같이 지었다.

아버지는 참판(參判)을 지내고 좌찬성(左贊成)에 추증되고 이름이 술(述)이란 분이신데, 서평군(西平君)에 봉해지고 시호는 문정(文靖)이고 이름은 계회(繼禧)란 분의 5대손이시다. 어머니 정경부인(貞敬夫人) 이씨(李氏)는 태종 대왕의 8대손이시다.

명욱은 본디 재주와 지식이 부족하나 약간 가업(家業)을 익히어 늦게나마 대·소과(大小科)에 합격하였다. 처음에는 문음(門蔭)으로 벼슬하다가 중간에는 대성(臺省)을 거쳐 주군(州郡)을 맡았고, 나중에는 재상(宰相)의 품계에 올랐으니, 모두 분수에 넘친 것들이었다. 회고하건대 칭할 만한 자취는 없지만, 여러 번 나라를 걱정하는 상소를 올렸으나 조정에서 채택해준은 보지 못하고, 여러 사람들에게 비방을 당하였다. 이것이 바로 내 일생 경력의 대략이다. 평생 동안 음률(音律)을 좋아하고 복서(卜書)를 보았으나 모두 그 묘리(妙理)는 깊이 연구하지 못하였고, 단지 고법(古法)에 의거해서 몇 편의 책만 저술했을 뿐이다. 일찍이 활 쓰는 일을 좋아해서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열심히 쏘았으며, 반드시 술을 마련해두고서 한두 잔 정도 적당하게 마셨는데, 얼근하게 취하면 피리 불 줄 아는 노복과 거문고 탈 줄 아는 아이를 불러다가 날마다 번갈아 연주를 시키고, 때로는 스스로 노래하고 읊조려서 그에 화답하였다.

나이가 90을 바라보니 장수를 한 것이고, 지위가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에 올랐으니 높은 벼슬을 한 것이다. 벼슬에서 물러나 산림에 살면서 젊은이와

노인네를 맞아 바둑도 두고 장기도 두고 시도 지으며, 매화나무 정원과 대나무 숲 사이를 배회하면서 나의 생을 마칠 생각이이다.

전후로 고령 박씨(高靈朴氏)와 동래 정씨(東萊鄭氏)에게 장가들었는데, 이들 두 성씨는 다 이름난 문벌이다. 후처(後妻)에게서 자녀를 두어 딸은 사인(士人) 이운배(李雲培)에게 출가했고, 아들 항(亨)은 좌랑(佐郎)으로 이유(李柚)의 딸에게 장가들었다. 소실에게서 아들 3명과 딸 1명을 낳아 모두 출가시켜 자녀가 10여 명에 이른다.

옛날 당(唐) 나라의 두목지(杜牧之)·牧)와 송(宋) 나라의 소요부(邵堯夫)·雍)는 스스로 자신들의 묘지문(墓誌文)을 지었다. 나 또한 약간 서술하여 후손에게 보이고, 장원(壯元) 이참판 관해(李參判觀海)공에게 명(銘)을 지어달라고 청하였더니, 다음과 같이 명을 하였다.

오복(五福) 1) 중에 첫째가는 것은, 수보다 앞선 것이 없도다.
 자리가 팔좌(八座) 2)에 연하였으니, 조정의 우열에 처하였도다.
 달존(達尊) 3) 세 가지 4)를 갖추고, 자녀를 모두 두었도다.
 몸은 건강하고 마음은 편안하니, 영원히 허물 없으리로다.
 대질(大耋)로서 노래부르며, 일생을 즐겁게 보낼 것이로다.
 높은 식견 가지고서, 슬픔과 탄식 없이 편안한 삶을 누르리로다.
 그 누가 스스로 묘지문을 지었었고, 서원의 한 대부이었던.
 그 누가 명을 새겼었고, 동주 이민구에게 물어서 하였도다.

병술년(丙戌年)에 공은 처음으로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가시면서 스스로 비문을 지었고, 7년 뒤인 임진년(壬辰年) 10월 초 4일에 광릉 율리의 정사(精

1) 오복(五福) .. 수(壽) · 부(富) · 강녕(康寧) · 유효덕(攸好德) · 고종명(考終命).
 2) 팔좌(八座) .. 중국에서는 육조(六曹)의 상서(尙書) 및 일령(一令) · 이복야(二僕射) 또는 오조(五曹) · 일령 · 이복야. 또는 좌 · 우복야(左右僕射)와 육상서(六尙書)를 가리켰으나 여기서는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를 가리킨다.
 3) 달존(達尊) .. 세상 사람들이 모두 존경할 만한 일.
 4) 세 가지 .. 여기서는 나이 · 덕 · 벼슬을 가리킨다.

숨)에서 작고하시니, 그해 11월 24일에 영장산(靈長山) 서쪽 기슭 자좌오향(子坐午向)의 자리에 장사를 지냈다.

공은 정묘년(丁卯年)에 출생하여 임진년(壬辰年)에 작고하셨으니, 86세의 수를 누리었다. 전·후의 배위가 한 언덕에 함께 안장되었는데, 후배(後配)는 언덕 위쪽에 부장되었다.

전배(前配)인 박씨는 52세를 누렸는데, 판서(判書)를 지내고 이름을 만(蔓)이라고 한 분의 후손이자 판서에 추증되고 이름을 양(樑)이라고 한 분의 따님이시며, 후배인 정씨는 81세를 누렸는데, 좌리공신(佐理功臣)으로 이름이 난 종(蘭宗)이란 분의 후손이자 판서에 추증되고 이름을 상의(象儀)라고 한 분의 따님이시다. 모두 부덕(婦德)이 있고, 정부인(貞夫人)으로 봉해지셨다.

후배에게서 1녀 1남을 두었으니, 딸은 이운배(李雲培)에게 출가했고, 아들들은 이름이 항(亢)이다. 소실에게서 3남 1녀를 두었니, 딸아들은 상(商)인데 무과(武科)에 합격하였으며, 둘째 아들은 방(旁)이고, 셋째 아들은 장(章)이다. 딸은 정만(鄭晩)에게 출가했다.

이운배는 2남을 낳았으니 우서(羽瑞)와 봉서(鳳瑞)이고, 항은 3남 2녀를 낳았으니, 아들은 선경(善慶)·선명(善鳴)·선행(善行)이며, 딸은 이덕영(李德英)과 민사증(閔思曾)에게 각각 출가했다. 또 서출 자녀가 있으나 모두 어리다. 상은 3남을 낳았으니, 선득(善得)·선복(善復)·선덕(善德)이다. 방은 3녀를 낳고, 장은 3남 2녀를 낳았으니, 아들은 선징(善徵)·선여(善餘)·선최(善最)이며, 딸은 모두 어리다. 만은 1남 5녀를 낳았으니, 아들은 후교(後僑)로서 주부(主簿)가 되었다.

아! 공의 선계(先系)는 참판공(參判公) 묘갈(墓碣)에 상세히 기록되었고, 공의 평일 행장(行藏)은 본인이 지으신 비문에 실려있으니, 공의 평생을 상상할 수 있으리하다. 임금을 섬기는 의리와 집을 다스리는 도리에 이르러서는 또한 직접 보고 들은 것이 많다. 감히 당대의 입언(立言)하는 군자에게 행장을 칭하지 않은 것은 공의 유언을 따른 것이다.

연미생(連楣生) 가의대부(嘉義大夫) 형조 참판(刑曹參判) 겸 오위도총부 부

총관(五衛都摠府副摠管) 이유(李柚)는 삼가 글을 씀.

숭정(崇禎) 후 초갑(初甲)의 계해년(癸亥年) 8월 일에 비석을 세움.

남유용(南有容) 묘갈

所在地 .. 盆唐區 栗洞山 57

建立年代 .. 朝鮮 純祖 5年(1805)

撰 .. 南 公 轍

書 .. 南 麟 耆

篆 .. 南 直 獻

規 模 .. 總高 .. 250 cm, 碑高 .. 146 cm, 幅 .. 59 cm, 厚 .. 34 cm

材 質 .. 蓋石 .. 花崗岩, 碑身 .. 大理石, 臺石 .. 花崗岩

남유용 묘갈은 을동공원을 지나 국궁(國宮) 연습장 앞의 좌측 다리를 건너면 돌담집 우측 산 정서쪽에 있다.

1805년에 건립된 이 비는 비좌 개석(碑座蓋石)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개석은 팔작 지붕이고, 대석은 문양이 없이 단조로우나 장방형 판석 위에 세워져 있다.

제액(題額)은 『刑曹判書大提學致仕奉朝賀贈諡文淸雷淵南公墓碣(형조판서대제학지사봉조하증시문청뇌연남공묘갈)』이라고 증손 남직헌(南直獻)이 썼는데 자경(字徑)은 7·5 cm이고, 음기(陰記)는 손자 남인구(南麟耆)가 썼고, 자경은 2·5 cm이며, 비문은 아들 남공철(南公轍)이 지었다.

비의 마멸 상태는 양호하며 묘소는 정경부인 안동김씨(安東金氏)의 합장. 상석·족석·향로석·훈유석·계체석·망주석이 있다.

남유용(1698~1773)은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의령(宜寧)。자는 덕재(德哉), 호는 뇌연(雷淵)·소화(小華)。증조할아버지는 대제학 용의(龍翼)이고, 아버지는 동지돈녕 부사 한기(漢紀)이며, 어머니는 청송심씨(靑松沈氏)이다.

이 재(李緯)의 문인. 1721년(경종 1)에 진사가 되고, 강릉 참봉·종

모서 부봉사·세자의위사 시직·군자감 주부·형조좌랑·영춘 헌감을 지낸 뒤 1740년(영조 16) 알성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그해에 정언(正言)이 되었다. 이때에 간관(諫官)은 의리를 공격적으로 밝히는 것이 임무이므로 필요하다면 시비를 끝없이 따져야 한다는 간관지책(諫官之責)에 대한 상소를 올렸다. 이러한 주장은 그당시 탕평책을 제일의 국시(國是)로 삼고 당인(黨人)들의 자작의리(自作義理)를 배격하였던 영조에게는 대단히 거슬리는 상소이었기 때문에 정의(旌義)에 유배시키려 하였으나 다른 대신들의 만류로 해남으로 유배되었다. 그뒤 1724년에 풀려나 직첩을 되돌려 받았다. 1743년부터 홍문관에서 부교리·부수찬·응교·교리 등과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의 문학·필선·보덕 등의 직과 사간·장령·서학·동학·중학 등의 교수를 거쳤다. 1747년 응교로 있을 때에는 군덕 10조(君德十條)를 진언하였는데 군주의 성실을 특히 강조하였다. 1748년 통정(通政)으로 승계한 뒤부터 승지·판결사·형조참의를 역임하였다. 1752년 가선(嘉善)으로 승계한 뒤 승문원 제조·대사성·예조참판·예문관 제학·홍문관 제학 등을 거쳐, 1754년에 원손보양관(元孫輔養官)이 되어 뒤에 정조가 된 세손을 세 살 때 무릎에 앉혀놓고 글을 가르쳤기 때문에, 정조는 그 은덕을 오래도록 잊지 못하였다.

1755년에는 「천의리편(關義理編)」의 찬집당상을 겸직하고, 비변사 제조·예문관 제학·병조참판·세자 좌부빈객·병조참판·대사헌·대사성을 거치고, 1757년에는 원손사부(元孫師傅)가 되어 호랑이 가죽을 하사받았다. 이어 호조참판을 거친 뒤 1758년에는 전 대제학 윤봉조(尹鳳朝)의 추천을 받아 양관(兩館) 대제학과 지성균관사(知成均館事)를 겸하게 되었으며, 그밖에 여러 곳의 제조직을 받은 바 있고, 1765년에는 지중추부사와 형조판서가 되었다. 1766년에는 정헌(正憲)으로 승계한 뒤 상소를 올려 벼슬길에서 물러났으며, 1767년 봉조하(奉朝賀)가 되어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갔다.

인물됨이 질박하면서도 바른 말을 잘하고 청백하였으며, 문장과 글씨에 뛰어나다. 저서로는 『명사정강』·『천의리편』·『뇌연집』이 있다.

시호는 문청(文淸)이다.



남유용 묘소 전경



묘 갈



묘갈 비문 일부

刑 轉 判 書 大 提 學

有明朝鮮國宗祿大夫行刑曹判書兼弘文館大提學藝文館大提學知成均館事同知 經筵春秋館事 世子左副
 賓客 元孫師傳致仕奉 朝賀 贈謚文清雷淵南公墓碣
 男嘉義大夫禮曹參判兼同知 經筵義禁府春秋館事成均館大司成五衛都摠府副摠管 奎章閣直提學知製教 公轍撰
 孫 通訓 大夫 光州 牧 使 兼 羅州 鎮 管 兵 馬 同 僉 節 制 使 麟 考 書
 曾 孫 宣 略 將 軍 行 世 子 翊 衛 司 侍 直 周 獻 纂
 我皇考文清公府君墓在廣州石馬之鄉公嘗位於 朝宗顯矣其事行可述者多而今不碑而碣者蓋追公平日撫謙
 之遺命也公諱有容字德哉號雷淵南氏出宜寧曾祖諱龍翼吏曹判書大提學為 四朝名臣祖諱正重慶尚道觀察
 使 贈吏曹判書考諱漢紀同知敦寧府事 贈議政府左贊成妣沈氏 贈貞敬夫人處士漢章女副提學攸孫也公
 以 肅宗二十四年戊寅十一月二十三日生方生赤氣覆屋上年十四五通論孟詩書尤喜太史公書陶菴李文正公
 緯嘗見其詩歎曰君氣像清遠必有晚節可觀也 景宗元年進士 英宗四年授 康陵參奉不就後四年復除 康
 陵參奉由翊衛司侍直屢轉為永春縣監庚申及第拜司諫院正言上疏論大訓仍極言時政 上示大臣宋寅明趙顯
 命等謂其言不瀟大訓遂竄海南省還 命行館錄領議政金公在魯奏言南某文學舉世共稱之昔蘓軾有疾歐陽脩
 請退試期臣謂館錄宜待其給牒 上命給牒及選居準點已而 上因言者忤 旨以為黨習專由於名類釀成之也
 削公名錄中翌年復錄拜弘文館副修撰歷校書兼校理舍人漢學教授歲首以應教上疏以十條陳戒辭甚剴切公前
 後居 經幄不久而事有可言盡忠不諱故事重進壯元擇一時有文望者擢為榜首至是 上欲罷之公言生進壯

對 濟 奉 朝

元哀然以一儒冠為百人之首始陞於太學非凡流所可與也且成 國朝故例不可罷 上怒甚公屢爭之竟罷職乞
 養得忠州因大臣言內遷侍講院弼善仍 命久任戊辰陞通政拜承政院同副承旨陞右副時三司討逆臣李光佐等
 罪李宗城上疏營護公陳 啓嚴斥之除谷山府使丁憂服闋拜刑曹參議差承文院副提調壬申擢嘉善參判諸曹拜
 大司成 上幸潛邸止輿門外 下小紙諭以傳禪之意公以侍衛進諫且曰臣未承收還之 命則不敢退矣 上曰
 予之此心已久矣且此宰臣予嘗難之然今日雖卿不能回予心 命除同春秋社江都考實錄公同百官庭請不敢行
 既而 上得 仁元大妃諺札 還宮事乃已拜藝文提學選 元孫輔養官三日一進見尊賢閣差備局提調拜同
 經筵兼 世子左副賓客除大司憲授 元孫師傳初公以母老乞郡 上特留公調從子公弼守令以養老公嘗入對
 元孫侍立 教曰元孫德性漸長此卿之功也文章人或能之而端粹如卿者豈易得哉遂 賜虎皮曰今賜卿鼻比欲

賀贈齋清周淵

令知師道之尊非為卿也為宗社也 上仍流涕俄拜兩館大提學公天資剛正每自誦曰聖人之道無古今皆可
外是而言治者偽也未嘗以得喪欣憾動其心鄭學良挾王家圖為文衡人皆言公薦代不舉學良則禍且不測公竟以
李公存中薦薦 上以墨抹存中名點補公蔚山洪鳳漢權領中外世皆趨附之鳳漢求為婚姻公不應公於是乎大忤
當世矣屢求外為安邊成川乙酉以世孫輔導功特除知中樞遷刑曹判書一日 上講小學至呂榮公德器成就語
教曰世孫成就南某之功也 命加正憲公年六十九用朱子告老故事乞致仕明年得請 上親臨宣麻賜詩公進箋
稱謝 世孫又引見問為學之方優禮而送之丁亥崇政公嘗撰明書正綱起自 洪武訖 永曆以寓春秋尊攘之法
會 命修明史諸臣多言公書宜刊行 上入其書 命近臣續奏至 弘光紀帝在南都 上驚曰此必生事於國
家亟 命洗草用李仕魯書殺事罷公職既叙 召見便殿詢明史事公對以宋末帝昺在崖海舟中而史與正統 弘
光以下三帝立國江南一時忠義之士悉奉正朔今以附偏下比僭國則恐非夫子正名之義也 上久之不答蔡已崇
祿以是年七月十三日卒壽七十六 上輟朝親製文祭之 東宮亦遣官致吊賻 正宗即阼 賜謚文清又 命印
文集以 御製弁其首錄孫麟者為初仕 遣承旨閣臣諭祭者五 臨送稱爵謚不名 教不肯曰此子尊師之意也
聖朝崇報之典可謂至矣公事親以至孝勸母夫人之不幸養有終身之慕其處兄弟教子孫皆可為有家者法居官清
嚴人莫敢干以私退而視其家甌石屢空至卒而無棺平生罕交遊與伯氏太華公兄弟而為知己月谷吳公瓊臨齋尹
公心衡數公最為得意及喜為文酒山水之遊晚年益閉戶以書史自娛當時賢士大夫慕其德而造謁門下者亦多公
引進教誘色辭溫粹風流弘長至語及 王室惓惓不能忘也為文章本之六經參以諸子百家嘗言文章有道有術道

南公墓誌

不可以不正術不可以不慎其辭婉其氣醇其立論簡而明其取法古而雅力追韓歐之正音一洗羅麗之陋俗卒之於
道純如也詩亦敦厚淵博尤長於古體書法自成一家人得之皆以為寶蓋公立 朝出處專以儒術自輔不以尺寸枉
其守 上雖信其心而疑於用間嘗阨于權貴不能一日安於 朝其所學之正所抱之大一未所施為然至今三十年
士讀其書論其世而翕然尊之其所不遇者時也其所定者天也元配俞氏判書命弘女次配崔氏士人糖女皆 贈貞
敬夫人三配金氏道德即錫泰女封貞敬夫人俱賢淑有女士則元配生子公輔進士早卒三配生不肖公轍參判進士
一男一女男麟者牧使麟者一男周獻縣令周獻二男大淳餘幼嗚呼公之執友君子今皆不在立言者鮮矣不肖敢取
官閥言行之大者泣血而刻之石以俟百世之考信焉
崇禎紀元後三乙丑 月 日立

刑曹判書大提學致仕奉朝賀贈諡文清雷淵南公墓碣(篆額)

【前面】

有明朝鮮國崇祿大夫行刑曹判書兼弘文館大提學藝文館大提學知成均館事同知 經筵春秋館事 世子左副

賓客 元孫師傅致仕奉 朝賀 贈諡文清雷淵南公墓碣

男嘉義大夫禮曹參判兼同知 經筵義禁府春秋館事成均館大司成五衛都摠府副摠管 奎章閣直提學知製教 公轍撰

孫 通訓大夫光州牧使兼羅州鎮管兵馬同僉節制使 麟耆書

曾 孫 宣略將軍行世子 翊衛司侍直 周獻篆

我皇考文清公府君墓在廣州石馬之鄉公嘗位於 朝崇顯矣其事行可述者多而今不碑而碣者蓋追公平日撝謙之遺命也公諱有容字德哉號雷淵南氏出宜寧曾祖諱龍翼吏曹判書大提學爲 四朝名臣祖諱正重慶尙道觀察使 贈吏曹判書考諱漢紀同知敦寧府事 贈議政府左贊成妣沈氏 贈貞敬夫人處士漢章女副提學攸孫也公以 肅宗二十四年戊寅十一月二十三日生方生赤氣覆屋上年十四五通論孟詩書尤喜太史公書陶菴李文正公粹嘗見其詩歎曰君氣像清遠必有晚節可觀也 景宗元年進士 英宗四年授 康陵參奉不就後四年復除 康陵參奉由翊衛司侍直屢轉爲永春縣監庚申及第拜司諫院正言上疏論大訓仍極言時政 上示大臣宋寅明趙顯命等謂其言不滿大訓遂竄海南有還 命行館錄領議政金公在魯奏言南某文學舉世共稱之昔蘇軾有疾歐陽修請退試期臣謂館錄宜待某給牒 上命給牒及選居準點已而 上因言者忤 旨以爲黨習專由於名類釀成之也削公名錄中翌年復錄拜弘文館副修撰歷校書兼校理舍人漢學教授歲首以應教上疏以十條陳戒辭甚剴切公前後居 經幄不久而事有可言盡忠不諱故事重生進壯元擇一時有文望者擢爲榜首至是 上欲罷之公言生進壯

【左側面】

元哀然以一儒冠爲百人之首始陞於太學非凡流所可與也且成 國朝故例不可罷 上怒甚公屢爭之竟罷職乞養得忠州因大臣言內遷侍講院弼善仍 命久任戊辰陞通政拜承政院同副承旨陞右副時三司討逆臣李光佐等罪李宗城上疏營護公陳 啓嚴斥之除谷山府使丁憂服闋拜刑曹參議差承文院副提調壬申擢嘉善參判諸曹拜大司成 上幸潛邸止輿門外 下小紙諭以傳禪之意公以侍衛進諫且曰臣未承收還之 命則不敢退矣 上曰予之此心已久矣且此宰臣予嘗難之然今日雖卿不能回予心 命除同春秋往江都考實錄公同百官庭請不敢行

既而 上得 仁元大妃諺札 還宮事乃已拜藝文提學選 元孫輔養官三日一進見尊賢閣差備局提調拜同
經筵兼 世子左副賓客除大司憲授 元孫師傅初公以母老乞郡 上特留公調從子公弼守令以養老公嘗入對
元孫侍立 教曰元孫德性漸長此卿之功也文章人或能之而端粹如卿者豈易得哉遂 賜虎皮曰今賜卿臯比欲

【後面】

令知師道之尊非爲卿也爲 宗社也 上仍流涕俄拜兩館大提學公天資剛正每自誦曰聖人之道無古今皆可行
外是而言治者僞也未嘗以得喪欣憾動其心鄭翬良挾主家圖爲文衡人皆言公薦代不舉翬良則禍且不測公竟以
李公存中應薦 上以墨抹存中名黜補公蔚山洪鳳漢權傾中外世皆趨附之鳳漢求爲婚姻公不應公於是乎大忤
當世矣屢求外爲安邊成川乙酉以 世孫輔導功特除知中樞遷刑曹判書一日 上講小學至呂榮公德器成就語
教曰世孫成就南某之功也 命加正憲公年六十九用朱子告老故事乞致仕明年得請 上親臨宣麻賜詩公進箋
稱謝 世孫又引見問爲學之方優禮而送之丁亥崇政公嘗撰明書正綱起自 洪武訖 永曆以寓春秋尊攘之法
會 命修明史諸臣多言公書宜刊行 上入其書 命近臣讀奏至 弘光紀帝在南都 上驚曰此必生事於 國
家亟 命洗草用李仕魯書殺事罷公職既叙 召見便殿詢明史事公對以宋末帝昺在崖海舟中而史與正統 弘
光以下三帝立國江南一時忠義之士悉奉正朔今以附編下比僭國則恐非夫子正名之義也 上久之不答癸巳崇
祿以是年七月十三日卒壽七十六 上輟朝親製文祭之 東宮亦遣官致吊賻 正宗卽阼 賜諡文清又 命印
文集以 御製弁其首錄孫麟耆爲初仕 遣承旨閣臣諭祭者五 臨筵稱爵諡不名 教不肖曰此予尊師之意也
聖朝崇報之典可謂至矣公事親以至孝慟母夫人之卒養有終身之慕其處兄弟教子孫皆可爲有家者法居官清
嚴人莫敢干以私退而視其家甌石屢空至卒而無棺平生罕交遊與伯氏太華公兄弟而爲知己月谷吳公瑗臨齋尹
公心衡數公最爲得意友喜爲文酒山水之遊晚年益閉戶以書史自娛當時賢士大夫慕其德而造謁門下者亦多公
引進教誘色辭溫粹風流弘長至語及 王室惓惓不能忘也爲文章本之六經參以諸子百家嘗言文章有道有術道

【右側面】

不可以不正術不可以不慎其辭婉其氣醇其立論簡而明其取法古而雅力追韓歐之正音一洗羅麗之陋俗卒之於
道純如也詩亦敦厚淵博尤長於古體書法自成一家人得之皆以爲寶蓋公立 朝出處專以儒術自輔不以尺寸枉
其守 上雖信其心而疑於用問嘗阨于權貴不能一日安於 朝其所學之正所抱之大一未所施爲然至今三十年

士讀其書論其世而翕然尊之其所不遇者時也其所定者天也元配俞氏判書命弘女次配崔氏士人禱女皆 贈貞
敬夫人三配金氏通德郎錫泰女封貞敬夫人俱賢淑有女士則元配生子公輔進士早卒三配生不肖公轍參判進士
一男一女男麟耆牧使麟耆一男周獻縣令周獻二男太淳餘幼嗚呼公之執友君子今皆不在立言者鮮矣不肖敢取
宦閥言行之大者泣血而刻之石以俟百世之考信焉

崇禎紀元後三乙丑 月 日立

【譯 文】

형조판서대제학차사봉조증시문청뇌연남공묘갈

유명조선국 승록대부 행 형조판서 겸 홍문관대제학 예문관대제학 지성균관
사 동지경연춘추관사 세자좌부빈객 원손사부 차사 봉조하 증시문청 뇌연 남공
(南公)묘갈

아들인 가의대부 예조참판 겸 동지경연금부춘추관사 성균관대사성 오위도총
부부총관 규장각직제학 지제교 공철(公徹)은 글을 짓고,
손자인 통훈대부 광주목사 겸 나주진관 병마동첨절제사 인구(麟耆)는 글을

쓰고,
증손인 선략장군 행 세자의위사시직 주헌(周獻)은 전액을 쓰다.

우리 황고(皇考) 문청공(文淸公) 부군(府君)의 묘소는 광주(廣州) 석마(石
馬) 고을에 계신다. 공께서는 일찍이 조정에서 높은 벼슬을 하셨으므로 기
술 한 만한 사실이 너무도 많지만, 지금까지 비갈(碑碣)을 세우지 않았던 것은
대개 공이 평소 겸손해 하는 뜻으로 남기신 유명(遺命)을 감안한 것이다.

공은 이름은 유용(有容), 자는 덕재(德哉), 호는 뇌연(雷淵)이며, 본관은
의령(宜寧)이다. 증조부는 이름이 용익(龍翼)으로서 이조 판서와 대제학을 하
여 네 조정에 걸쳐 명신(名臣)이 되었고, 조부는 이름이 정중(正重)으로서 경
상도 관찰사(慶尙道觀察使)를 지내고 이조 판서(吏曹判書)에 추증되었으며,
아버지는 이름이 한기(漢紀)로서 동지돈녕부사(同知敦寧府事)를 지내고 의정
부 좌찬성(議政府左贊成)에 추증되었으며, 어머니는 심씨(沈氏)로서 정경부인
(貞敬夫人)에 추증되었는데, 처사(處士) 한장(漢章)의 따님이고 부제학(副提
學) 유(旣)의 손녀이기도 하다.

공은 숙종 24년인 곧 무인년(戊寅年) 11월 23일에 탄생하셨는데, 탄생할 적
에 붉은 기체가 옥상을 덮었다. 나이 14, 5세 적에 《논어》(論語)·《맹자》(孟
子)·《시경》(詩經)·《서경》(書經)을 통하고, 더욱 태사공(太史公)의 글을
좋아하셨다. 도암(陶菴) 이 문정공 재(李文正公穉)가 언젠가 공의 시를 보고

서 찬탄하기를 『그대는 기상이 청원(淸遠)하니, 반드시 늘그막에 볼 만한 것
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경종(景宗) 원년에 진사(進士)에 합격하고, 영종(英宗)·英祖 4년에 강릉
참봉(康陵參奉)을 임명받았으나 나아가지 않으셨는데, 4년 뒤에 다시 강릉참
봉을 임명받았다. 익위사 시직(翊衛司侍直)으로 말미암아 여러 번 전직하여
영춘현감(永春縣監)이 되셨다. 그리고 경신년(庚申年)에 대과에 급제하여 사
간원 정언(司諫院正言)을 임명받고서는 상소를 올려서 대훈(大訓)을 논하고,
따라서 시정(時政)에 대해 극력 말씀하셨는데, 영조 임금은 대신인 송인명(宋
寅明)과 조현명(趙顯命) 등에게 이 상소를 보이면서 「대훈에 불만을 가지고
한 말이다.」¹⁾고 하였다. 공은 결국 해남(海南)으로 귀양갔다가 풀려 돌아왔다.
이때 영조 임금이 관록(館錄)²⁾을 행하도록 명하자, 영의정(領議政) 김공 재로
(金公在魯)가 아뢰기를 『남모(南某)·南有容)의 문화에 대해서는 온 세상이 모
두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 소식(蘇軾)이 절명을 앗자 구양수(歐陽修)는
시험보일 기일을 늦추도록 청하였습니다. 관록은 모(某)·南有容)에게 직접
지금될 때를 기다려야 마땅할 줄로 신은 생각합니다.』라고 하니, 영조 임금은
남모(南有容)에게 직접을 지급하도록 명하였다. 선발할 때에 가서는 공이 준
점(準點)을 차지하였다. 이윽고 영조 임금은 말하는 사람이 자신의 뜻을 거슬
리는 것을 가지고 『당습(黨習)은 오로지 명류(名類)로 말미암아 양성(釀成)된
다.』고 하고는, 공의 이름을 관록 속에서 삭제해버렸다. 이듬해에는 공을 다

1) 대훈(大訓) : 국민에 대한 영조 임금의 훈시(訓示)인데, 《영조실록》(英祖實錄) 권 54 17
년 9월 조에 보인다.
2) 대훈에 : 말이다. 남유용의 상소에 있는 「국론(國論)이 약간 정해졌다.」는 말을 지적한
것이다.
3) 관록(館錄) : 홍문록(弘文錄)·홍문관(弘文館)의 고리(校理)·수찬(修撰)을
선거 임명하는 기록. 고리·수찬의 선거는 먼저 7품 이하의 홍문관원이 뽑일 만한 사
람의 명단을 만들면 홍문관 부제학(副提學) 이하 여러 사람이 모여 의종의 사람 이름
위에 권점(圈點)을 찍는데, 이것을 기록하는 것을 홍무록이라고 한다. 이것은 다시 의
정(議政)·참찬(參贊)·대제학(大提學)·이조 판서(吏曹判書)·이조 참판(吏曹參判)·이
조 참의(吏曹參議) 등이 행하는 도당록(都堂錄)을 거쳐서 임금에게 올리면 차점(次點)
이상의 득점자를 고리 또는 수찬에 임명하였다.
4) 공의 : 삭제해버렸다. 영조 임금은 어필로 「자범대훈 기사행의(自犯大訓 其赦幸矣)」란
여덟 글자를 써서 내리고는 남유용의 이름을 홍문록에서 삭제해버렸다.

시 관록하도록 해서 흥문관 부수찬(弘文館副修撰)에 임명하였다. 공은 교서(校書)를 거쳐서 교리(校理)·사인(舍人)·한학교수(漢學敎授)를 겸하였다. 연초에 응교(應敎)로서 상소를 올렸는데, 10조목으로 진언한 계사(戒辭)는 매우 적절한 것이었다. 공은 전후에 걸쳐 경연(經筵)에 있는 기간이 그리 오래지는 않았지만, 임금에게 꼭 말씀드려야 될 일이 있을 경우에는 숨김없이 충성을 다해서 말씀드렸다. 예전부터 전해 오는 관례에 생원시의 장원과 진사시의 장원을 귀중하게 여겨서, 한때 문망(文望)이 있는 사람을 가려 뽑아 방수(榜首)로 삼았다. 그런데 이때에 와서 영조 임금이 그 관례를 없애려고 하였다. 그러자 공은 『생원시의 장원과 진사시의 장원은 화려하게 한 유관(儒冠)으로 백인(百人)의 우두머리를 삼아 비로소 태학(太學)에 오르게 하니, 보통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구나 국조고례(國朝故例)를 이루고 있는 것이니, 절대로 없애서는 아니 됩니다.』라고 말씀드리니, 영조 임금은 몹시 노여워하였다. 공은 그 일에 대하여 여러 번 간쟁(諫諍)을 버리다가 결국 파직을 당하였다. 공은 어버이를 봉양하기 위하여 자청해서 충주목사(忠州牧使)에 임명되었다. 뒤에 대신(大臣)의 권의로 인하여 영조 임금은 공을 시강원 필선(侍講院弼善)으로 옮기고 따라서 필선의 직을 오래 맡도록 명하였다. 무진년(戊辰年)에는 통정대부(通政大夫)에 올라 승정원 동부승지(承政院同副承旨)에 임명되었다가 우부승지(右副承旨)로 승진되었다. 이 때에 삼사(三司)가 역신(逆臣) 이광좌(李光佐)의 죄를 성토했다. 이종성(李宗城)이 상소를 올려서 이광좌를 두둔하자, 공은 진계(陳啓)해서 엄하게 배척하였다. 뒤에 곡산부사(谷山府使)에 임명되었다. 찬성공(贊成公)의 상을 당하였다. 복을 벗고 나서는 형조 참의(刑曹參議)에 임명되고 승문원 부제조(承文院副提調)에 차임되었다. 임신년(壬申年)에는 가선대부(嘉善大夫)로 올라 여러 조(曹)의 참판(參判)을 거친 다음 대사성(大司成)에 임명되었다.

영조 임금이 잠저(潛邸)에 행차하여 문밖에 수레를 멈추고 작은 종이쭉지를 내려서 전위(傳位)할 의사를 전달하자, 공은 시위(侍衛)로서 들어가서 간하고 또 『신은 「내리신 분부를 도로 거두어들이겠다.」는 명을 받지 못하면 감히 물러가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니, 영조 임금은 『내가 이런 마음을 먹은 지 이미 오래다. 이는 재신(宰臣)이기 때문에 나는 일찍이 어렵게 여겼다. 그러

나 지금은 비록 경(卿)이라 하더라도 나의 마음을 돌릴 수 없을 것이다.』고 하였다. 그리고 동지춘추관사(同知春秋館事)에 임명하여 강도(江都)에 가서 실록을 상고하도록 명하니, 공은 백관(百官)과 함께 궁정(宮庭)에 가 앉드려서 감히 행하지 못할 것을 청하였다. 이윽고 영조 임금은 「환궁(還宮)하라.」는 인원대비(仁元大妃)의 언문 편지를 받고서야 그 일이 취소되게 되었다.

예문관 제학(藝文館提學)에 임명되고, 원손 보양관(元孫輔養官)에 뽑혀 3일에 한 차례씩 존현각(尊賢閣)에 가서 원손을 보살폈다. 비변사 제조(備邊司提調)로 차출되고, 동경연(同經筵)에 임명되고, 세자 좌빈객(世子左賓客)을 겸하고, 대사헌(大司憲)에 제수되고, 원손 사부(元孫師傅)를 임명받았다.

처음에 공이 어머니의 연로 때문에 고을 수령으로 나가서 어머니를 봉양하도록 해주기를 애걸하니, 영조 임금은 특별히 공은 그대로 중앙에 머물러두고 종자(從子)인 공필(公弼)을 수령으로 기용해서 공을 대신하여 그 노친을 봉양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공이 언젠가 입대(入對)의 할 적에 원손이 상감 곁에 모시고 서 있었는데, 영조 임금이 전교(傳敎)하기를 『원손의 덕성(德性)이 점점 성장해 가니, 이것은 바로 경(卿)의 공이다. 문장은 더러 잘 할 사람이 있지만, 정치럼 단정하고 순수한 사람은 어찌 쉽게 얻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고 나서, 호피(虎皮)를 하사하면서 『지금 경에게 고비(梟比)·호피(虎皮)를 주는 것은 원손으로 하여금 사도(帥道)의 존중함을 알 수 있게 하려는 것인데, 이것은 경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중요 사직을 위하는 것이다.』고 하고는 이내 눈물을 흘렸다.

얼마 후에 공은 예문관(藝文館)과 춘추관(春秋館)의 대제학(大提學)에 임명되었다. 공은 타고난 자질이 굳세고 정직하였는데, 매일 되뇌기를 『성인의 도

5) 연초에: 올렸는데... 남유용의 연보에는 『정월에 세수전제차를 올렸다.』(正月, 歲首陳戚)라고 되어있다.

6) 삼사(三司) : 사헌부(司憲府)·사간원(司諫院)·홍문관(弘文館).

7) 잠저(潛邸) : 아직 왕위에 오르기 전에 살던 집.

8) 영조 임금이: 명하니... 남유용의 연보에는 『상(上)이 창의궁(彰義宮)에 행차하여 작은 종이쭉지를 내려서 전위할 의사를 전달하자, 공은 시위로 따라갔다가 들어가서 간언을 하였고, 상이 특별히 공에게 동지춘추관사를 임명하여 강도에 가서 실록을 상고하게 하였으니, 그것은 대개 국조고사(國朝故事)를 상고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되어있다.

9) 입대(入對) : 대권에 들어가서 임금의 자문에 응하는 일.

리는 고금을 따질 것 없이 다 행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벗어나서 정치를 한답시고 말하는 사람은 모두 허위인 것이다.」라고 하였다. 공은 또한 득실문제나 기쁘고 슬픈 일을 가지고 마음을 동요하지 않았다. 화완옹주(和緩翁主)에 장가들어 영조 임금의 부마가 된 정치달(鄭致達)의 숙부인 정휘량(鄭暉良)이 옹주의 세력을 업고 문형(文衡)이 되기를 도모하였는데, 사람들이 모두 「공이 대신을 추천할 때에 정휘량을 천거하지 않았다.」고 말하였으니, 그 대가로 받을 화는 예측할 수 없었다. 그러나 공은 결국 이공 존중(李公存中)을 천거대상에 올렸다. 그러자 영조 임금은 「이존중의 이름을 몽개고 공을 울산 부사(蔚山府使)로 좌천해버렸다.」

홍봉한(洪鳳漢)의 권세가 천지를 뒤흔들었으므로 온 나라 사람들이 모두 그를 불쫓아 따랐다. 이때 홍봉한이 공에게 혼인하기를 요구하였는데, 공은 응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공은 당세에 크게 미움을 샀다.

공은 여러 번 외직을 요구하여 안변부사(安邊府使)와 성천부사(成川府使)가 되었다. 을유년(乙酉年)에는 세손을 잘 보도(輔導)한 공으로 특별히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를 제수 받았다가 형조 판서(刑曹判書)로 전직되었다. 하루는 영조 임금이 「소학(小學)을 강론하다가 「여형공(呂榮公)은 덕기(德器)가 성취하였다.」란 대문에 이르러서 전교하기를 『세손의 성취는 남모(南某)·南有容)의 공이었다.』라고 하고, 특별히 정헌대부(正憲大夫)로 승급시켰다.

공은 나이 69세 때에 주자(朱子)가 연로함을 내세워 사직을 청했던 고사를 이용해서 치사(致仕)¹⁰⁾를 요청하여 이듬해에 영조 임금의 승낙을 얻었다. 그리하여 퇴임식을 할 때에 영조 임금이 직접 나와서 선마(宣麻)¹¹⁾ 의식을 거행하고 나서 시를 주었고, 공은 전문(箋文)을 올려 사례하였으며, 세손은 또 공을 접견하고 학문하는 방법을 물어본 뒤에 융숭한 의식을 갖추어서 공을 전송하였다.

정해년(丁亥年)에는 숭정대부(崇政大夫)에 올랐다¹²⁾. 공은 일찍이 「명서정강(明書正綱)을 찬(撰)하되, 홍무(洪武)에서 시작하여 영력(永曆)에서 마무리하였는데, 여기서는 「춘추(春秋)에서 주(周)나라를 높이고 오랑캐를 물리치던 방법을 따랐다. 이때에 마침 영조 임금이 명(明) 나라 역사를 편수하도록 명하니, 여러 신하들은 「공이 찬한 책을 간행하는 것이 마땅하겠다.」고 많이 말하였다. 그러자 영조 임금은 그 책을 들이게 해서 근신(近臣)¹³⁾으로 하여금

위도록 하였다. 근신이 읽어 내려가 홍광기(弘光紀)에 「제(帝)가 남도(南都)에 있었다.」란 대문에 이르자, 영조 임금은 감짝 놀라면서 『이는 반드시 우리 나라에 일을 낼 것이다.』라고 하고, 속히 세초(洗草)를 하도록 명하고, 「이사(李仕魯)를 죽였다.」는 일을 가지고 공을 파직시켰다¹⁴⁾. 얼마 후에 영조 임금은 공을 다시 서용(敍用)하고 곧 편전(便殿)으로 불러들여서 명사(明史)에 대한 일을 묻자, 공이 「송(宋)의 말제(末帝)인 병(昞)은 애해(崖海)의 뱃속에 있었으나 역사에서는 그를 정통(正統)으로 인정하였고, 홍광 이하 3제(帝)가 강남(江南)에 나라를 세우니, 한때 충의(忠義)의 인사들은 모두 그 정삭(正朔)을 받들어 썼습니다. 그러니 지금 부편(附編)을 가지고 깎아내려 참국(僭國)에 비유한다면 이는 공자께서 명분을 바로잡던 의의가 아닌 득실입니다.』라고 대답하니, 영조 임금은 오랜 시간이 흐르도록 답이 없었다.

계사년(癸巳年)에 숭록대부(崇祿大夫)에 올랐다. 이 해 7월 13일에 작고하셨으니, 수(壽)는 76세였다. 영조 임금은 조회 보는 일을 폐하고 손수 제문을 지어서 제사를 지냈고, 동궁(東宮) 역시 관원을 보내서 부의를 전달하고 조의를 표하였다. 정종(正宗)·정조(正祖) 임금이 즉위해서는 문정(文靖)이란 시호를 내리고, 문집(文集)을 간행하도록 명한 다음, 그 문집의 서문을 친히 지었다.

- 10) 치사(致仕) : 나이가 많아서 벼슬을 사양하고 물러나는 일.
- 11) 선마(宣麻) : 임금이 신하에게 제장(几杖)을 줄 때에 교서(敎書)를 마지(麻紙)에 써서 뜰에서 천고(宣告)하게 되는데, 이것을 선마라 한다.
- 12) 올랐다 : 남유용의 연보에는 「영조 임금이 영수각(靈壽閣)에 행차하여 기사(舊紙)의 여러 신하들을 입시(入侍)하게 해서 술을 하사하고, 따라서 입시한 기사의 여러 신하들에게 아울러 가자(加資)하도록 명하였다.」고 되어 있다.
- 13) 근신(近臣) : 임금 곁에서 가까이 모시는 신하.
- 14) 그 책을 파직시켰다 : 남유용의 연보에는 「영조 임금이 시신(侍臣)에게 명하여 태조기(太祖紀)를 읽게 해서 「대리시경(大理寺卿) 이사로(李仕魯)를 죽였다.」 「殺」는 대문에 이르자, 영조 임금은 「남모(南某)·南有容도 또한 황명(皇明)의 신자(臣子)인데, 어떻게 그리 살(殺)자를 바로 쓸 수 있는가?」라고 하였고, 또 홍광기(弘光紀)를 읽게 하여 「제(帝)가 남도(南都)에 있었다.」는 대문에 이르자, 영조 임금은 감짝 놀라면서 「서법(書法)이 이와 같다면 반드시 우리나라에 일을 낼 것이다.」라고 하고는, 공에게 명하여 세초하도록 한 다음, 이사(李仕魯)의 일을 가지고 서용(敍用)하지 못할 전법으로 공을 견책하였다.」라고 되어 있다.

남공철(南公轍) 묘갈

指定番號 .. 郷土遺蹟 第4號

所在地 .. 壽井區 金土洞 山 64-2

建立年代 .. 朝鮮 憲宗 15年(1835)

撰 .. 南公轍

書 .. 顏眞卿 集字

篆 .. 李陽水 倣字

追記 .. 南芝耆

規模 .. 總高 .. 258 cm, 碑高 .. 156 cm, 幅 .. 60 cm, 厚 .. 30 cm

材質 .. 臺石 .. 花崗岩, 碑身 .. 大理石, 臺石 .. 花崗岩

남공철 묘갈은 판교에서 신촌동으로 가는 23번국도에서 금토동으로 좌회전하여 내동으로 가서 보국사를 지나 계곡을 따라 올라가다가 능안골의 우측 다리를 건너가면 큰 바위 좌측 위에 있다.

1835년에 건립된 이 비는 비좌 개석(碑座蓋石)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개석은 팔각지붕으로 서까래의 표현이 사실적이고, 대석에는 문양이 없으나 장방형 판석 위에 세워져 있다.

제액(題額)은 『丞相大學士奎章閣學士致仕金陵南公自備銘(승상대학사규장각학사치사금능남공자갈명)』이라고 이양빙(李陽氷)의 글자를 모방하여 전서(篆書)로 썼는데 자경(字徑)은 10·5cm, 작은 글씨로 『倣李陽氷篆(방이양빙전)』이라고 쓴 전서의 자경은 3·5cm이고, 음기(陰記)는 안진경(顏眞卿)의 글씨를 집자(集字)하였고 자경은 2·5cm이며, 비문은 자명(自銘)·南公轍(南公轍)이고, 추기(追記)는 아들 남지구(南芝耆)가 하였다.

비의 상태는 양호하며, 묘소는 정정부인 청주한씨(淸州韓氏)와 상하분. 상석·족석·향로석·훈유석·계체석·망주석이 있다.

남공철(1760~1840)은 조선 후기의 문장가·정치가. 본관은 의령(宜寧)。자는 원평(元平), 호는 사영(思穎)·금릉(金陵)。아버지는 대제학 유용(有容)이다.

1784년에 아버지가 정조의 사부였던 관계로 음보(陰補)로 세마(洗馬)를 제수받았고, 이어 산청·임실현감을 지냈다. 1792년에 친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홍문관 부교리·규장각 직각에 임명되어 「규장전운(奎章全韻)」의 편찬에 참여하면서 정조의 지극한 우대를 받았다. 초계문신에 선임되었으며, 친우이자 후일의 정치적 동지인 김조순(金祖淳)·심상규(沈象奎)와 함께 패관문체를 일신하려는 정조의 문체반정운동에 지목되어 그뒤 순정한 육경고문(六經古文)을 깊이 연찬함으로써 정조 치세에 나온 인재라는 평을 받았다. 정조 때에는 주로 대사성으로서 후진 교육문제에 전념하였다. 순조 즉위 뒤 「정종실록」 편찬에 참가하였으며, 아홉 번씩 이조판서를 제수받고, 대제학을 역임하였다.

1807년(순조 7)에는 동지정사(冬至正使)로서 연경(燕京)에 다녀왔고, 1817년에 우의정에 임명된 뒤 14년간이나 재상을 역임하였으며, 1833년에 영의정으로 치사(致仕)하여 봉조하가 되었다. 평소애 김상임(金相任)·성대중(成大中)·이덕무(李德懋) 등과 친하게 지내면서 독서를 좋아하였고, 경전의 뜻에 통달하였다. 구양수(歐陽修)의 문장을 순정(淳正)한 법도라 하여 가장 존중하였고, 많은 금석문·비갈을 남긴 당대 제일의 문장가였다.

순조·의종의 「열성어제(列聖御製)」를 편수하였고, 저서로는 「고려명신전(高麗名臣傳)」, 자편의 시문집으로 「귀은당집(歸恩堂集)」, 「스그름집(金陵集)」, 「영옹숙고(穎翁續藁)」, 「영옹재숙고(穎翁再續藁)」, 「영이문집(瀛隱文集)」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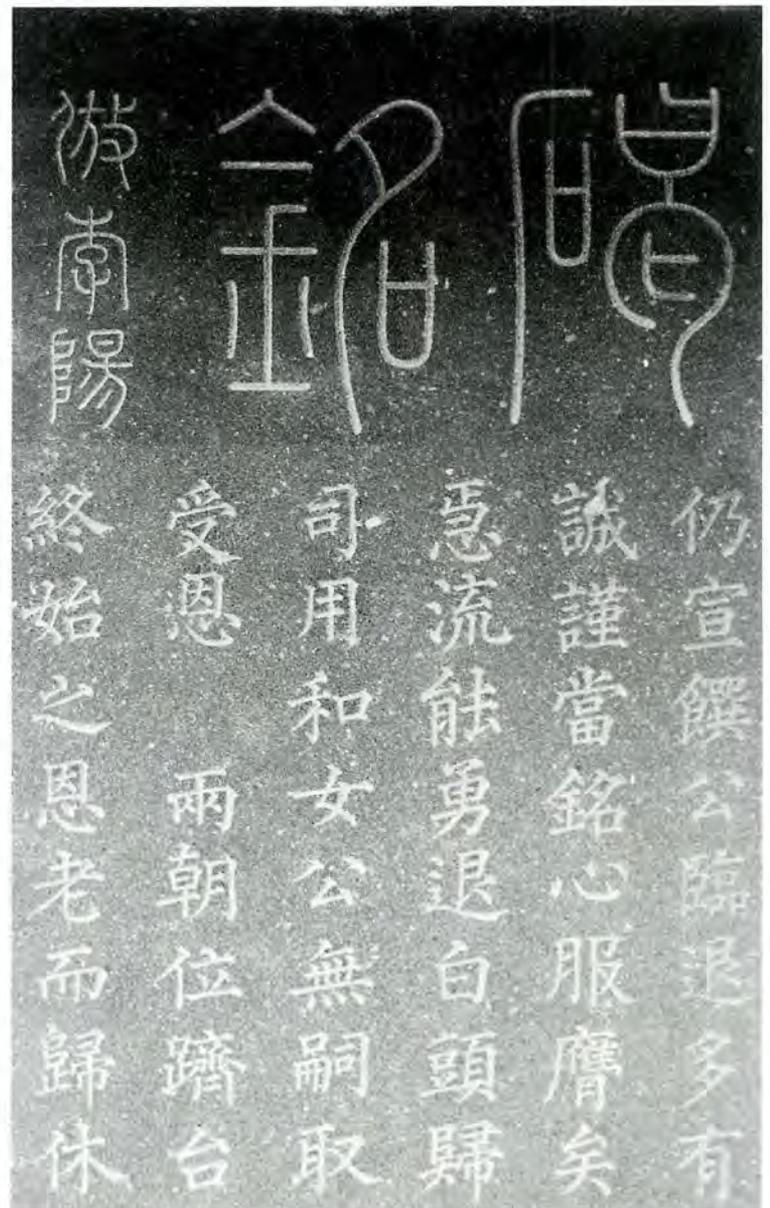
시호는 문헌(文憲)이다.



남공철 묘소 전경



묘 갈



묘갈 비문 일부

啓學閣

教曰如玉其人也。善備邊司副提調。徵見文稿下。御札褒以雅潔。有古法。戊午擢嘉善。賜金帶。歷諸曹。叅判。提舉。諸寺。復差籌司堂上。仍管有司。出為江原道觀察使。公既行。賜詩而寵之。內遷弘文館副提學。命仍任庚申。貞純王后垂簾同聽政。命選閣臣五人。自內入侍。勸講。公與焉。既還。授都承旨。同知。經筵事。復拜副提學。兼奎章閣直提學。與修。正宗實錄。今上二年壬戌。拜慶尚道觀察使。甲子丁母憂。歸廣陵。服闋。還朝。丁卯。擢資憲判工曹。禮曹連。以勞賞。加崇政。授判義禁知。經筵事。充正使。赴燕時。玉水曹江玉方陳希祖。刑部主事李林松。俱以文詞擅名。海內見公文。皆作序以贈之。江則曰。其文本之。經術老成。有法度。其光黜然而味悠。然深而長。所宗尚。尤在歐陽。而不屑屑求合於字句。此其所以善學歐陽子者也。希祖謂清廟之瑟。一唱而三歎。林松稱詩學中唐。而不滿其真。稱道甚盛。

承相亦學亦南亦章

有明朝鮮國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兼領。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世子師。致仕奉朝賀。金陵南公自碣銘。集唐光祿大夫行吏部尚書上柱國魯郡開國公顏真卿字公諱公轍。字元平。宜寧之南。以新羅英毅伯諱敏為始祖。入我朝。有諱在開國功臣領議政。謚忠景。高祖諱龍翼。吏曹判書。大提學。謚文憲。文章忠節為四朝名臣。曾祖諱正重慶尚道觀察使。贈吏曹判書。祖諱漢。紀同知敦寧府事。贈議政府左贊成。考諱有容。刑曹判書。大提學。謚文清。文章名德。有朝野山斗之仰。妣安東金氏。封貞敬夫人。道德郎諱錫。恭女。公以英宗三十六年庚辰十一月十六日子時生。母夫人方娠而夜夢拜上帝。公少孤。能自知讀書。十六始學。為古文。俞蒼厓漢雋題其卷曰。小韓愈醇。菴吳文靖公載。純見而評之曰。韓法歐。趣弱冠。携文謁大學士江漢黃公景源。黃公曰。古文絕於世久矣。子其勉之。赴國子試。發解。正宗八年甲辰。蔭補世子洗馬。陞六品。出監山清任。實王子對策魁人。日製殿試。擢丙科。上賜內鼓吹。命張蓋乘厯馬遊街。拜兵曹正郎。特付別兼春秋入參賞花釣魚宴。上目屬之曰。此子風儀如鸞鳳。真聖世瑞物也。拜奎章閣直閣知製。教未經玉堂。直入內閣。自公始召見。便殿。賜牙笏。朝服一襲。自是朝夕侍。上與聞機密。拜弘文館副校理。兼中學漢學教授。移司諫院。正言獻納。陞應教。禁衛營辟為從事官。拜司僕寺正。與編奎章全韻。癸丑。陞通政。除承政院右副承旨。後屢拜叅議。諸曹因懲討事。竄江華。旋宥。兼成均館大司成。乙卯。上謂諸閣臣曰。近日權妖出。近列朝紳多連累者。而獨南某。矚然泥而不滓。又

世濟金陵南水自

在道拜吏曹判書其後凡九拜或出或不出拜藝文館提學授弘文館大提學藝文館大提學知成均館事除兵曹判書兼奎章閣提學求外留守西京兼元子諭善命入對于資政殿諭曰卿朝廷之老師宿儒也元良輔導之任須盡心對揚歷議政府左叅贊北使至充館伴使遷戶曹判書拜世子賓客兼宣惠廳舟橋司提調丙子進秩輔國王世子入學為博士丁丑以特旨拜議政府右議政諭以卿容儀愷悌可以矜式百僚志操恬雅可以砥礪頽俗公每欲於未老得致仕願主恩益隆而身又當重任未能遽上乞骸之章置亭龍山廣陵之間多植梅菊松竹時以幅巾野服出往道遙客至焚香清坐討論經史傍列古今法書名畫銅玉彝鼎評品賞玩泊然無榮利之慕而愛君憂國之思屢見於篇什後之君子必有讀其書而知其心者矣公自年六十屢乞致仕教以子之倚卿如副手於千斛之舟卿其卧閣論道不允辛巳陞左相兼世子傅壬午始解相癸未拜領議政兼世子師翌年遼丁亥王世子聽政復拜相連遣亞卿正卿諭以卿余之師傅也教導必以正協贊必有方國勢岌業民生遑憑卿須思濟艱之道肩輿遂朝也以睿筆書下公以代聽之初有是命迫然後出膺兼廟宮藥院司譯院禁衛營都提舉己丑入耆社遼相職庚寅復拜世孫冊封充正使翌年遼壬辰復為領相屢疏固辭上連遣正卿諭以卿身佩一國安危之元老也時事多艱捨卿而誰與圖治仍下躬迎之命鹵簿儀衛皆具公惶恐不得已出肅拜扈衛大將癸巳公又屢疏懇乞致仕批以昔先王以卿簡拔遺予自冲齡輔導啓迪使予得免大過奠邦基於泰磐非卿忠誠何以此至今若成就晚節可以趾先美而輔世教臣主俱榮矣特許之上親臨宣麻訖召見便殿自榻上斟法酒勸飲

賜銘

仍宣饌公臨退多有勉式聖德之語上曰卿立朝四十餘年忠勤貞亮之操嘗所欽歎所陳出於進退皆憂之至誠謹當銘心服膺矣時朝中諸公多作詩序為賀以比二疏故事公作詩曰優游林壑夙心存十載經營始踐言繼愧憲流能勇退白頭歸卧亦君恩遂以歸恩扁其堂公既老自撰誌碣仍命勿樹豐碑公娶清州韓氏封貞敬夫人監司用和女公無嗣取族子芝考為後所著有金陵集十二卷頴翁續纂歸恩堂集高麗名臣傳各幾卷銘曰受恩兩朝位躋台司謂之遇也亦宜才弱寡與蘊而莫施謂之不遇亦宜嘗欲頴尾求田翺翔乎一壑一丘賴上終始之恩老而歸休

世濟
崇禎紀元後四乙未刻

先考撰自疏既刻後二年 當丁酉嘉慶正使庚子十二月三十日卒于正寢壽八十一計開 上教曰此大臣以端亮愷悌之姿溫醇清慎之操加之學術淵粹文章爾雅克趾乃家之美早荷 正廟之眷而自 純祖睿慈之初逮予寡躬任三世輔導之責厥功茂焉不但廊廟翺贊之勞而已成服日禮承旨致祭弘文館不待狀葬前議謚文獻始 命禮葬不肖以遺言三辭不獲 命會大臣奉故相意寢之 命便賜葬需以辛丑三月十五日葬于廣州通村祖妣墓下土坐之原亦治命也不肖孤逆考泣血謹記

丞相大學士奎章閣學士致仕金陵南公自碣銘 倣李陽冰篆(篆額)

【前 面】

有明朝鮮國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兼領 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 世子師致仕奉朝
賀金陵南公自碣銘

集唐光祿大夫行吏部尚書上柱國魯郡開國公顏真卿字

公諱公轍字元平宜寧之南以新羅英毅伯諱敏爲始祖入我 朝有諱在開國功臣領議政諡忠景高祖諱龍翼吏
曹判書大提學諡文憲文章忠節爲 四朝名臣曾祖諱正重慶尙道觀察使 贈吏曹判書祖諱漢紀同知敦寧府
事 贈議政府左贊成考諱有容刑曹判書大提學諡文清文章名德有朝野山斗之仰妣安東金氏封貞敬夫人通
德郎諱錫泰女公以 英宗三十六年庚辰十一月十六日子時生母夫人方娠而夜夢拜上帝公少孤能自知讀書
十六始學爲古文俞蒼厓漢雋題其卷曰小韓愈醇菴吳文靖公載純見而評之曰韓法歐趣弱冠携文謁大學士江
漢黃公景源黃公曰古文絕於世久矣子其勉之赴國子試發解 正宗八年甲辰蔭補 世子洗馬陞六品出監山
清任實壬子對策魁人日製殿試擢丙科 上賜內鼓吹 命張蓋乘廐馬遊街拜兵曹正郎特付別兼春秋入參賞
花釣魚宴 上目屬之曰此子風儀如鸞鳳眞聖世瑞物也拜 奎章閣直閣知製 教未經玉堂直入內閣自公始
召見便殿賜牙笏朝服一襲自是朝夕侍 上與聞機密拜弘文館副校理兼中學漢學教授移司諫院正言獻納陞
應教禁衛營辟爲從事官拜司僕寺正與編奎章全韻癸丑陞通政除承政院右副承旨後屢拜參議諸曹因懲討事
竄江華旋有兼成均館大司成乙卯 上謂諸閣臣曰近日權妖出近列朝紳多連累者而獨南某嶮然泥而不滓又

【左側面】

教曰如玉其人也差備邊司副提調徵見文稿下 御札褒以雅潔有古法戊午擢嘉善賜金帶歷諸曹參判提學諸
寺復差籌司堂上仍管有司出爲江原道觀察使公旣行賜詩而寵之內遷弘文館副提學 命仍任庚申 貞純王
后垂簾同聽政 命選閣臣五人自內入侍勸講公與焉旣還授都承旨同知 經筵事復拜副提學兼 奎章閣直
提學與修 正宗實錄今 上二年壬戌拜慶尙道觀察使甲子丁母憂歸廣陵服闋還朝丁卯擢資憲判工曹禮曹
連以勞賞加崇政授判義禁知 經筵事充正使赴燕時玉水曹江玉方陳希祖刑部主事李林松俱以文詞擅名海
內見公文皆作序以贈之江則曰其文本之經術老成有法度其光勳然而味悠然深而長所宗尙尤在歐陽而不屑

屑求合於字句此其所以善學歐陽子者也希祖謂清廟之瑟一唱而三歎林松稱詩學中唐而不漓其真稱道甚盛

【後面】

在道拜吏曹判書其後凡九拜或出或不出拜藝文館提學授弘文館大提學藝文館大提學知成均館事除兵曹判書兼奎章閣提學求外留守西京兼元子諡善命入對於資政殿諭曰卿朝廷之老師宿儒也元良輔導之任須盡心對揚歷議政府左參贊北使至充館伴使遷戶曹判書拜世子賓客兼宣惠廳舟橋司提調丙子進秩輔國王世子入學爲博士丁丑以特旨拜議政府右議政諭以卿容儀愷悌可以矜式百僚志操恬雅可以砥礪頽俗公每欲於未老得致仕顧主恩益隆而身又當重任未能遽上乞骸之章置亭龍山廣陵之間多植梅菊松竹時以幅巾野服出往逍遙客至焚香清坐討論經史傍列古今法書名畫銅玉彝鼎評品賞玩泊然無榮利之慕而愛君憂國之思屢見於篇什後之君子必有讀其書而知其心者矣公自年六十屢乞致仕教以予之倚卿如副手於千斛之舟卿其臥閣論道不允辛巳陞左相兼世子傅壬午始解相癸未拜領議政兼世子師翌年遻丁亥王世子聽政復拜相連遣亞卿正卿諭以卿余之師傅也教導必以正協贊必有方國勢岌岌業民生遑急卿須思濟艱之道肩輿遻朝也以睿筆書下公以代聽之初有是命迫然後出膺兼廟宮藥院司譯院禁衛營都提舉己丑入耆社遻相職庚寅復拜世孫冊封充正使翌年遻壬辰復爲領相屢疏固辭上連遣正卿諭以卿身佩一國安危之元老也時事多艱捨卿而誰與圖治仍下躬迎之命鹵簿儀衛皆具公惶恐不得已出肅拜扈衛大將癸巳公又屢疏懇乞致仕批以昔先王以卿簡拔遺予自冲齡輔導啓迪使予得免大過奠邦基於泰磐非卿忠誠何以至此今若成就晚節可以趾先美而輔世教臣主俱榮矣特許之上親臨宣麻訖召見便殿自榻上斟法酒勸飲

【右側面】

仍宣饌公臨退多有勉戒聖德之語上曰卿立朝四十餘年忠勤貞亮之操嘗所欽歎所陳出於進退皆憂之至誠謹當銘心服膺矣時朝中諸公多作詩序爲賀以比二疏故事公作詩曰優游林壑夙心存十載經營始踐言縱愧急流能勇退白頭歸臥亦君恩遂以歸恩扁其堂公既老自撰誌碣仍命勿樹豐碑公娶清州韓氏封貞敬夫人監司用和女公無嗣取族子芝考爲後所著有金陵集十二卷穎翁續藁歸恩堂集高麗名臣傳各幾卷銘曰

受恩兩朝位躋台司謂之遇也亦宜才弱寡與蒞而莫施謂之不遇亦宜嘗欲穎尾求田翱翔乎一壑一丘賴上終始之恩老而歸休

先考撰自碣既刻後二年 當寧丁酉差嘉禮正使庚子十二月三十日卒于正寢壽八十一訃聞 上教曰此大臣以端亮愷悌之姿溫醇清慎之操加之學術淵粹文章爾雅克趾乃家之美早荷 正廟之眷而自 純祖睿筵之初逮予寡躬任三世輔導之責厥功茂焉不但廊廟翊贊之勞而已成服日遣承旨致祭令弘文館不待狀葬前議諡諡文獻始 命禮葬不肖以遺言三辭不獲 命會大臣奏故相意寢之 命優賜葬需以辛丑三月十五日葬于廣州遁村祖妣墓下壬坐之原亦治命也不肖孤芝耆泣血謹記

崇禎紀元後四乙未刻

【譯 文】

승상태학사규장각학사차사금릉남공자갈명(丞相大學士奎章閣學士致仕金陵南公自碣銘)、이양빙(李陽氷)의 전자를 모방하였다.

유명 조선국 대광보국 승록대부 의정부영의정 겸 영경연 홍문관 예문관 춘추관 관상감사 세자사 차사 봉조하 금릉 남공(南公) 자갈명(自碣銘)

당(唐) 나라 광록대부 행 이부상서 상주국 노군개국공 안진경(顔眞卿)의 글씨를 집자하였음.

공은 이름은 공철(公轍)、자는 원평(元平)이다. 의령 남씨(宜寧南氏)는 신라 때 영의백(英毅伯)을 지내고 이름을 민(敏)이라 한 분을 시조(始祖)로 삼는다. 그리고 아조(我朝)는 조선(朝鮮)에 들어와서는 재(在)라는 이름을 가지고서 개국공신(開國功臣)에 영의정(領議政)을 지내고 시호는 충경(忠景)이란 분이 계시다. 고조부는 이름이 용익(龍翼)인데, 이조 판서(吏曹判書)에 대제학(大提學)을 지내고 시호는 문헌(文憲)이며, 문장(文章)과 충절(忠節)이 네 조정에 걸쳐 명신(名臣)이 되신 분이다. 증조부는 이름이 정중(正重)인데, 경상도 관찰사(慶尙道觀察使)를 지내고 이조 판서에 추증되었으며, 조부는 이름이 한기(漢紀)인데, 동지돈녕부사(同知敦寧府事)를 지내고 의정부 좌찬성(議政府左贊成)에 추증되었으며, 아버지는 이름이 유용(有容)인데, 형조 판서(刑曹判書)에 대제학을 지내고 시호는 문청(文淸)이며, 문장과 명덕(名德)은 조야(朝野)에서 태산북두(泰山北斗)처럼 우리러볼 정도로 뛰어났다. 어머니는 안동 김씨(安東金氏)로 정경부인(貞敬夫人)에 봉해졌는데, 통덕랑(通德郎)을 지내고 이름이 석태(錫泰)란 분의 따님이시다.

공은 영종(英宗) 36년인 곧 경진년(庚辰年) · 1760) 11월 16일 자시(子時)에 태어났다. 모부인(母夫人)께서 막 회임(懷妊)했을 때 밤에 자면서 상제(上帝)께 절을 하는 꿈을 꾸셨다.

공은 어렸을 적에 아버지를 여의었는데, 능히 스스로 책을 읽을 줄 알았다.

16세에 비로소 고문(古文) 짓는 방법을 배웠다. 창애(蒼厓) 유한준(兪漢準)은 그 책에 「소한유(小韓愈)」¹⁾라고 적었고, 순암(醇菴) 오 문정공 재순(吳文靖公載純)은 공의 글을 보고 평하기를 『한유(韓愈) · 퇴之』의 문법에 구양수(歐陽修)의 취지를 가진 문장이다.』라고 하였다. 공이 약관(弱冠) · 20세에 글을 지어가지고 태학사(太學士)인 강한유로(江漢遺老) 황공 경원(黃公景源)을 찾아가 보니, 황공은 말하기를 『고문이 세상에 끊어진 지 오래이니, 자네는 고문에 힘을 쓰게.』라고 하였다.

공은 국자시(國子試)에 응시해서 발해(發解)²⁾하였다. 정종 임금 8년인 곧 갑진년(甲辰年) · 1784)에 문음(門蔭)으로 세자세마(世子洗馬)에 보임(補任)되었다가 6품으로 승진하여 산청군수(山淸郡守)와 임실현감(任實縣監)으로 나갔다. 그리고 임자년(壬子年) · 1792)에는 인일제(人日製) 대책(對策)에서 괴장원(魁壯元)을 하고 전시(殿試)에서 병과(丙科)로 뽑히니, 상(上) · 正祖)은 내고취(內鼓吹)의 음악을 하사하는 동시에 일산을 퍼 들고 구마(廐馬)를 타고 유가(遊街)³⁾를 하도록 명하였다. 그리고 상은 공을 병조 정랑(兵曹正郎)에 임명하고 특별히 별겸춘추(別兼春秋)를 부여해서 상화조어언(賞花釣魚宴)에 참석시켰다. 또한 상은 공은 지복하기를 『이 사람은 풍의(風儀)가 난봉(鸞鳳)과 같으니, 참으로 성세(聖世)의 상서로운 인물이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공을 규장각 직각(奎章閣直閣)과 지제교(知製敎)에 임명하였다. 옥당(玉堂)을 거치지 않고 곧장 내각(內閣)에 들어가는 것은 공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상은 공을 편전(便殿)으로 불러보고 아홉(牙笏)과 조복(朝服) 한 벌을 하사하였다. 공은 이때부터 조석으로 상을 모시고 국가 기밀(機密)을 의논하는 자리에 참여하였다. 공은 이어서 홍문관 부교리(弘文館副校理)에 임명되어 중학한(中學漢學敎授)을 겸하였으며, 사간원(司諫院)의 정언(正言)과 헌납(獻納)으로 옮겼다가 응교(應敎)로 승진되었고, 그리고 금위영(禁衛營)이 공을 불러다가 종사관(從事官)으로 삼았다. 공은 또 사복시정(司僕寺正)에 임명되

1) 소한유(小韓愈) · 제2의 한유(韓愈)란 뜻.

2) 발해(發解) · 과거(科擧)의 초시(初試)에 합격되는 일.

3) 유가(遊街) · 과거에 급제한 자가 광대를 데리고 풍악을 잡으면서 거리를 돌며 좌주(座主) · 선진자(先進者) · 친척 등을 찾아보는 일. 보통 사흘 동안 행하였다.

었고, 스규장전운(奎章全韻)의 편찬사업에도 참여하였다.

계축년(癸丑年)에는 통정대부(通政大夫)로 승진되어 승정원 우부승지(承政院右副承旨)에 임명되었고, 뒤에 여러 번 여러 조(曹)의 참의(參議)에 임명되었고, 한때 징토(懲討)하는 일로 인하여 강화(江華)에 유배되었다가 곧 풀려 나서 성균관 대사성(成均館大司成)을 겸임하였다.

을묘년(乙卯年)에는 상이 여러 각신(閣臣)들에게 이르기를 『근일에 권세를 부리는 요망한 것들이 근열(近列)에서 나오기 때문에 조정 관원 중에는 그에 연루된 자가 많은데, 유독 남모(南某)만이 워낙 깨끗하므로 진흙에서도 더럽히지 않는다.』고 하고, 또 전교(傳敎)하기를 『옥처럼 깨끗한 사람이다.』라고 하고, 공을 비변사 부제조(備邊司副提調)에 임명하였다. 상은 또 공의 문고(文稿)를 가져오게 해서 읽어보고는, 어찰(御札)을 내려서 『문장이 아결(雅潔)하여 고법(古法)이 있다.』라고 포장(褒獎)하였다.

무오년(戊午年)에는 상이 공을 가선대부(嘉善大夫)로 발탁하고 금대(金帶)를 하사하였다. 공은 여러 조(曹)의 참판(參判)과 여러 시(寺)의 제조(提調)를 역임하고, 다시 주사당상(籌司堂上)에 차임되어 이내 유사(有司)들을 관리하였으며, 또한 외직으로 나아가 강원감사(江原監司)가 되었다. 공이 강원감사의 부임길에 오르자, 상은 공에게 시를 지어줌으로써 총애의 뜻을 표시하였다. 공은 다시 내직으로 들어왔는데, 홍문관 부제학(弘文館副提學)은 그대로 맡게 되었다.

경신년(庚申年) 1800에 정순왕후(貞純王后)가 수렴청정(垂簾聽政)을 하면서 각신(閣臣) 다섯 사람을 뽑아 쥬내로 들여보내 임금을 모시고 권강(勸講)을 하도록 명하였는데, 공이 거기에 참여되었다. 이미 본직으로 돌아오자, 도승지(都承旨)와 동지경연사(同知經筵事)에 임명되었다. 뒤에 다시 부제학(副提學)을 임명받고 규장각 직제학(奎章閣直提學)을 겸하여 『정조실록(正祖實錄)』의 편찬에 참여하였다.

금상(今上) 純祖 2년인 곧 임술년(壬戌年) 1802에는 경상도 관찰사(慶尙道觀察使)에 임명되었으며, 갑자년(甲子年) 1804에는 모친상을 당하여 광릉(廣陵)으로 돌아갔고, 3년상이 끝나자 조정으로 돌아왔다.

정묘년(丁卯年) 1807에는 자헌대부(資憲大夫)로 발탁되어 공조 판서

(工曹判書)와 예조 판서(禮曹判書)를 차례로 역임하였다. 그리고 연달아 공로를 가지고 상으로 승정대부(崇政大夫)에 올리고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와 지경연사(知經筵事)에 임명하였다.

공이 정사(正使)로 연경(燕京)에 갔을 때 청(淸) 나라의 옥수(玉水) 조강(曹江)와 옥방(玉方) 진희조(陳希祖), 그리고 형부 주사(刑部主事) 이임송(李林松)은 모두 문사(文詞)를 가지고 해내(海內)에 이름을 날리고 있었는데, 그들은 공의 글을 보고는 모두 서문을 지어서 주었다. 조강의 경우는 『그 문(文)은 경술(經術)을 기본으로 해서 법도 있게 노련하게 이루어졌으니, 그 광채는 은은하고, 그 의미는 심장하다. 문장가(文章家)에 대해서는 구양공(歐陽公) 修)를 더욱 숭상하였으나 구차하게 자구(字句)에 합치되는 것을 구하지 않았으니, 이것이 바로 구양공을 제대로 배운 것이다.』라고 하였고, 진희조의 경우는 『청묘(淸廟)의 슬(瑟)이 일창삼탄(一唱三歎)하듯이 청아한 소리를 내는 문장이다.』라고 하였고, 이임송의 경우는 『시(詩)는 중당(中唐)을 배우되 그 참뜻을 흐리지 않았다.』라고 칭하였는데, 그들의 칭찬이 매우 드높았다.

공은 도중에서 이조 판서(吏曹判書)에 임명되었다. 그 뒤 무려 아홉 번이나 이조 판서에 임명되었는데, 혹은 임명을 받고 나가기도 하고 혹은 임명을 받고 나가지 않기도 하였다. 공은 이어서 예문관 제학(藝文館提學)에 임명되었고, 홍문관 대제학(弘文館大提學)과 예문관 대제학(藝文館大提學) 그리고 지성균관사(知成均館事)에 임명되었고, 또는 병조 판서(兵曹判書)에 임명되어 규장각 제학(奎章閣提學)을 겸하였다. 공은 또 외직을 자청해서 서경유수(西京留守)로 나가고, 원자유선(元子諭善)을 겸하였다.

상은 공을 자정전(資政殿)으로 들어오게 해서 유시(諭示)하기를 『경은 조정의 노사숙유(老師宿儒)이니, 원량(元良) 世子) 보도(輔導)하는 책임에 대하여 모름지기 마음을 다하시오.』라고 하였다. 공은 이어 의정부 좌참찬(議政府左參贊)을 역임하였다. 중국 사신이 왔을 때에는 관반사(館伴使) 4)로 뽑혔다. 공은 이어 호조 판서(戶曹判書)로 전직되고, 세자빈객(世子賓客)에 임명되었으며, 선혜청 제조(宣惠廳提調)와 주교사 제조(舟橋司提調)를 겸하였다.

4) 관반사(館伴使) 外 國 사신을 접대하기 위하여 임시로 둔 벼슬.

병자년(丙子年) 1816)에는 보국(輔國)으로 승진되고, 왕세자(王世子)가 입학하자 박사(博士)가 되었다.

정축년(丁丑年) 1817)에는 상이 특명으로 공에게 의정부 우의정(議政府 右議政)을 임명하고 유시하기를 『경은 용의(容儀)가 여러 관리들의 모범이 될 만하고, 지조(志操)가 무너지는 풍속을 바로잡을 만하오.』라고 하였다.

공은 매번 아직 늙기 전에 치사(致仕)하고 싶었으나 주상(主上)의 은혜는 더욱 융숭하고 자신은 또 증책을 맡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갑자기 사직상소를 올리지 못하였다. 그래서 용산(龍山)과 광릉(廣陵) 사이에 정자를 지은 다 음 매화와 국화 그리고 소나무와 대나무를 많이 심어 놓고 수시로 복건(幅巾)에 야복(野服) 차림을 하고서 그곳에 나가서 산책을 하였다. 손님이 오면 향을 피우고 조용히 앉아서 경사(經史)를 토론하였고, 곁에는 고금의 법서(法書)와 명화(名畫) 그리고 동(銅)·옥(玉)·이(彝)·정(鼎)들을 죽 나열해두고는 품평도 하고 구경도 하곤 하였으며, 삶에 있어서는 영달이나 이익을 탐모 하는 마음이 전혀 없이 담담하게 살았다. 그리고 임금을 사랑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생각이 자주 저술한 편집(篇什)에 나타났으니, 후세의 군자 중에는 반드시 그 글을 읽고 그 마음을 알아줄 자가 있을 것이다.

공은 60세 때부터 여러 번 치사(致仕)를 요구했으나 상은 『내가 정에게 의 지하는 것은 마치 천곡(千斛)의 배에 있어서의 부수(副手)와 같은 격이니, 경은 힘들게 조정에 나오지 말고 편안히 집에 누어서 도(道)를 논하시오.』라고 전교하고, 윤택하지 않았다.

신사년(辛巳年)에는 좌상(左相)에 승진되고 세자부(世子傅)를 겸임하였고, 임오년(壬午年)에는 비로소 정승의 직위를 해면(解免)되었다. 계미년(癸未年)에는 영의정(領議政)에 임명되고 세자사(世子師)를 겸임하였다가 그 이듬해에 체직되었다.

정해년(丁亥年)에 왕세자(王世子)가 대리청정(代理聽政)하면서 다시 정승에 임명하고 연달아서 아경(亞卿)과 정경(正卿)을 공에게 보내서 『경은 나의 사부(師傅)이기 때문에 교도(敎導)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바른 도리를 가지고 교도할 것이고, 협찬(協贊)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방법을 가지고 협찬할 것이오. 국세(國勢)가 위태로운 지경에 놓이고 민생(民生)이 위급한 상태에 빠졌으니,

경은 모름지기 어려움을 구제할 방도를 생각하여 견여(肩輿)를 타고 조정에 나오시오.』라는 내용을 가지고 위유(慰諭)하였는데, 예필(睿筆)로 친히 써서 내린 것이었다. 그래서 공은 왕세자가 대리청정을 하게 된 초기에 이런 분부가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나가지 않고서는 아니 되는 절박한 입장을 당한 연 후에야 부득이 나가서 명을 받들고, 묘궁(廟宮)·약원(藥院)·사역원(司譯院)·금위영(禁衛營)의 도제조(都提調)를 겸하였다.

기축년(己丑年)에는 기사(耆社)에 들어가서 한편 정승의 직위가 체직되었고, 정인년(庚寅年)에는 다시 정승으로 임명되었다. 그리고 세손(世孫)이 책봉(冊封)될 적에는 정사(正使)로 뽑혔다가 이듬해에 갈렸다.

임진년(壬辰年)에 다시 영상(領相)이 되었는데, 여러 번 상소를 올려서 곧 이 사직하였더니, 상은 연달아 정경(正卿)을 보내서 『경은 몸에 한 나라의 안위(安危)가 매인 원로(元老)인데, 어려움 많은 때에 경을 놓아두고 누구와 더불어 국사를 의논하겠소.』라는 내용으로 위유하고, 이내 「몸소 가서 맞이하겠다.」는 명을 내리고는 행차에 따르는 노부(鹵簿)와 의위(儀衛)를 모두 갖추었다. 그러자 공은 황공하여 부득이 나가서 숙배(肅拜)를 하였더니, 호위대장(扈衛大將)에 임명하였다.

계사년(癸巳年)에 공이 또 여러 번 상소를 올려서 치사(致仕)를 빌었더니, 상은 『옛날 선왕(先王)께서 경을 뽑아서 나에게 물려주셨는데, 경은 내가 어릴 적부터 도와주셔서 나로 하여금 큰 허물을 면할 수 있게 하였고, 따라서 나라의 기반을 튼튼하게 다져서 태산반석 위에 올려놓았으니, 경의 충성이 아 니었다면 어떻게 여기에 이를 수 있었습니까? 지금 만일 나무리를 잘하여 선 대의 아름다운 기업을 계승하고 세상을 바르게 교화할 수 있도록 보좌한다면 신하와 임금이 다 영광일 것이오.』라고 비답하고는, 특별히 사직을 허락하였다. 그리고 상은 친히 남시어 선마(宣麻)를 마치고 나서는 공을 편전(便殿)으로 불러보고는 탐(榻) 위로부터 법주(法酒)를 따라서 마시도록 권하고 또 안주를 하사하였다. 공이 물러가려고 할 때에 성덕(聖德)을 힘써 닦도록 권하는 말을 많이 하니 상은 『경이 40여 년 동안 조정에 있으면서 보여준 충근(忠

5) 선마(宣麻) : 임금이 신하에게 궤장(几杖)을 하사하는 일.

勤)하고 정량(貞亮)한 지조는 일찍이 흠탄(欽歎)해 온 바이었고, 진언한 바는 관직에 나오거나 관직에서 물러가거나 모두 나라에 대해 걱정하는 지극한 성근(誠勤)에서 나온 것들이니, 마땅히 명심하고 가슴에 간직할 것이요.』라고 하였다.

이 때에 조정의 제공(諸公)들이 많이들 시(詩)와 서(序)를 지어서 경하(敬賀)하기를 마치 이소(二疏)의 고사(高事)처럼 하였다. 이 때에 공은 다음과 같은 시를 지었다.

산림에서 한가롭게 노닐 생각 일찍부터 가졌었지만,

십년을 경영해온 뒤에야 비로소 실천할 수 있게 됐네.

금류에서 용퇴를 하지 못한 건 부끄러운 일이지만,

백두에 산림으로 돌아와 늙는 것도 임금의 은혜일세.

그리고 공은 드디어 「귀은(歸恩)」이란 두 글자를 가지고 그 당(堂)의 편액(扁額)을 하였다. 또한 공은 이미 노경이 되자, 스스로 지갈(誌觴)을 짓고, 따라서 커다란 비를 세우지 말도록 명하였다.

공은 청주 한씨(淸州韓氏)에게 장가들었는데, 정경부인(貞敬夫人)에 봉해지고, 감사(監司)를 지낸 용화(用和)의 따님이셨다. 공은 아들을 두지 못해서 죽친의 아들 지구(芝耇)를 데려다가 후계자를 삼으셨다. 그리고 저술에는 스금릉집(金陵集) √ 12권과 스영옹속고(穎翁續稿) √ 스귀은당집(歸恩堂集) √ 스고려명신전(高麗名臣傳) √ 각각 몇 권씩이 있다.

다음과 같이 명을 한다.

양조(兩朝)에서 성은 받고, 관직이 정승의 자리까지 올랐으니, 시대를 잘 만났다고 해도 역시 옳은 말이다.

재주는 약하고 활약이 적어서, 쌓은 지식 다 펼치지 못했으니,

시대를 잘 만나지 못했다고 해도 역시 틀린 말은 아니다.

일찍부터 영미(穎尾)에 토지를 구하여, 구학(丘壑)에서 한가롭게 노닐려고 했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성은 입고는, 늙어서야 전원으로 돌아와 쉬노라.

선고(先考)께서는 스스로 지은 갈명(碣銘)을 일단 비석에 새기고 난 2년 후인 당적(當宅) · 憲宗) 정유년(丁酉年) · 1837)에 가례정사(嘉禮正使)에 차임되었고, 경자년(庚子年) 12월 30일에 정침(正寢)에서 작고하시니, 향년 81세였다. 부음(訃音)이 전해지자, 상감은 전교하기를 『이 대신(大臣)은 당량(端亮)하고 개제(愷悌)한 자질과 온순(溫醇)하고 청신(淸愼)한 지조를 가지고 게다가 학술은 조예가 깊고 문장은 운치가 뛰어난 사람으로서 그 가문의 아름 다음을 잘 계승하고, 일찍이 정조대왕의 총애를 받았으며, 그리고 순조대왕께서 왕세자가 되신 초기부터 나의 몸에 이르기까지 3세대의 보도(輔導)하는 책임을 맡았으므로 그 공이 매우 크니, 단지 낭묘(廊廟) · 朝廷)에서 익찬(翼贊)을 한 공로만 있을 뿐이 아니었다.』라고 하였고, 성복(成服)하던 날 승지(承旨)를 보내서 장수(葬憲)를 넉넉하게 하사하였다.

신축년(辛丑年) 3월 15일에 광주(廣州) 둔촌(遁村) 조비(祖妣) 묘소 아래 임좌(壬坐)의 자리에 장사지냈으니, 이것은 공이 청신을 말할 때 이곳에 장사지내도록 분부하셨기 때문이다.

불초자 지구(芝耇)는 피눈물을 흘리면서 삼가 기록함.

숭정(崇禎) 기원(紀元) 후 네 번째 돌아온 을미년(乙未年)에 비석에 새김.

6) 이소(二疏)의 고사 · 이소(二疏)는 한(漢) 나라의 소광(疏廣)과 소수(疏受)를 가리킴. 소광은 조카인 소수와 함께 동시에 관직에서 떠나기로 하였는데, 이들이 떠날 때에 조정의 관원들은 시와 서를 지어서 이들에게 기념으로 주면서 성대하게 환송을 해준 일이 있었다.

안 구(安玖) 묘갈

所在地…盆唐區 栗洞 山 56

建立年代…1915년(乙卯)

撰…金 霽 漢

書…尹 用 求

規 模…總高…210cm, 碑高…125cm, 幅…55cm, 厚…27cm

材 質…蓋石…花崗岩, 碑身…花崗岩, 臺石…花崗岩

안 구 묘갈은 울동공원을 지나 국궁(國弓) 연습장 앞의 다리를 건너 남유용(南有容)의 묘소 앞길로 가면 응달평골 좌측산 남서쪽에 있다.

1915년에 건립된 이 비는 비좌 개석(碑座蓋石)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개석은 팔작지붕으로 단조롭고, 대석은 장방형 판석 위에 세워져 있다.

비문은 김영한(金寧漢)이 지었고, 앞면 글씨의 자경(字徑)은 10·0cm, 음기(陰記)의 자경은 2·4cm로 윤용구(尹用求)가 해서로 썼다.

비의 마멸 상태는 양호하나 좌측면 상부에 6자(字)를 임의로 훼손한 흔적이 있으며, 묘소는 증정부인 전주이씨(全州李氏)와 합장, 상석·족석·향로석·혼유석·계체석·문인석 2기가 있다. 그리고 조선 초기에 건립된 비좌 하엽의 묘표가 있다.

안 구(?~1441)는 조선 초기의 문신. 본관은 순흥(順興)。초휘(初諱)는 치(致)。호조참판 겸 예문관제학 침(琛)의 할아버지이고, 해주목사 종약(從約)의 아들이다.

1417년(태종 17) 진사 장원하였으며, 같은 해 4월 경희루 친시문과에 등과하여 한원(翰苑)에 임명되었다. 홍문관 직제학을 역임하고, 통정판서·군자감사(通政判書軍資監事)에 올랐으며, 가선대부 이조판서(嘉善大夫吏曹判書)에 증직되었다.



안 구 묘소 전경



묘 표



묘 갈



묘갈 비문 일부



문인석[II]



문인석[I]

判軍資員監事

贈議政府左

參贊兼大提學順興安公致

之墓

贈貞夫人全州李氏祔左

通政大夫判軍資監事弘文館直提學 贈嘉靖大夫議政府左叅黃無同知 經筵春秋館成均館義禁府事
弘文館大提學藝文館大提學安公墓碣銘并引

安東金甯漢撰

海平尹用求書

粵在 英陵盛際明良相遇蔚然有唐虞都俞之美于斯時也有釋褐登廷而交口賀 聖朝簡拔之明者順興
安公諱致是已公於永樂丁酉進士文科入翰苑無何拜侍講院弼善轉弘文館修撰校理遷吏禮兩曹郎特授
兩館直提學陞通政判軍資監事後 贈嘉善大夫吏曹叅判以子知歸貴也加 贈嘉靖大夫議政府左叅贊無
同知 經筵春秋館成均館義禁府事弘文館大提學以孫琰貴也公遭遇 聖明恩眷日渥治化方隆於是
乎聚精會神啓沃知多敷奏切實將欲太舊庸經術責飭泰乎如許文敬稠柳文簡寬諸公傾心獎誦遇以公輔器
自 上亦將大用而遽以微恙告終在正統辛酉六月二十六日也是歲九月葬于廣州突馬坊栗里靈長山南坤
向之兆今馬四百餘歲隧無刻後孫恭鎮恭燮懼夫德行事烈愈久而愈泯踏繭宿春請余一言謹按公文成公
晦軒先生諱裕六世孫也父諱從約吏曹叅議 贈判書以直道見重大父諱瑗刑曹典書景質公嚴亾守罔僕
之義曾高以上累公累卿世有名德判書公聘東萊鄭氏其考蓬原君良度公諱良生貞泐有壺範公以共武其

甲生生而聰悟蚤成學業及長汎濫百家探源剝實咀爵膏腴發之文詞如泉湧雲興肩視漢唐諸子而且上之自
 以雕華無足貴日駸駸乎洛閩正路漸涵以誠敬之工事父母愛兄弟無愧文公小學居喪戚易一遵文公家禮慎
 交遊非其徒不親遇事明斷有斬釘截鐵底規模人莫敢干以私賢哉公也 贈貞夫人李氏配公柔嘉葬用魚禮宗
 室完川君叔之女義安大君和之孫也有二男四女男知歸大司成知頌典書壻許認收使李景昌直長成文致洪
 錫南城君知歸男朔參判璿副正玟判書琮郡守璣典籍知頌男位縣監其下繁不記云嗚呼士之懷抱利器不遇
 而埋剗者已矣如公之有德有才且遇時而迫於大限蘊諸中者不能發二三尚論者安得不掩卷長吁致詰於彼

蒼者耶雖然居位崇卑烏足以屈伸公也在世又近烏足以顯晦公也惟善繼文成遺緒以考亭夫子為無上準範此
 蓋公之宏綱大要則不朽者在此而不在彼也凡為公之後者一以公為師正直家風不以隱顯有間人皆稱某之孫某
 之孫云爾則公所以益不朽者又在是矣如晚生蕪辭敢曰不朽之歟石既具矣請益勤矣辭不可得矣敢為之銘曰
 思皇文成厥有肖孫植志劬學實接淵源 聖人在上親榮揀掄璀璨溢發如珎出崑崙坦雲程驥展鳳騫 法筵文
 苑碩畫名言胡不永年卒酬 鴻恩不食之報爰及遺昆廣陵之陽粟里之原螭首屹屹昭示長存
 旃蒙單闕 鍾永 宗昱 鍾浩 秉鎔 秉詰 性鎮 淋 榮 虛 在益 炳 謙 炳 億 立

【前 面】

判軍資監事 贈議政府左

參贊兼大提學順興安氏玖

之墓

贈貞夫人全州李氏附左

【後 面】

通政大夫判軍資監事弘文館直提學 贈嘉靖大夫議政府左參贊兼同知 經筵春秋館成均館義禁府事

弘文館大提學藝文館大提學安公墓碣銘并引

安東金甯漢撰

海平尹用求書

粵在 英陵盛際明良相遇蔚然有唐虞都兪之美于斯時也有釋褐登廷而交口賀 聖朝簡拔之明者順興

安公諱玖是已公於永樂丁酉進士文科入翰苑無何拜侍講院弼善轉弘文館修撰校理遷吏禮兩曹郎特授

兩館直提學陞通政判軍資監事後 贈嘉善大夫吏曹參判以子知歸貴也 贈嘉靖大夫議政府左參贊兼

同知 經筵春秋館成均館義禁府事弘藝文館大提學以孫琛貴也公遭遇 聖明恩眷日渥治化方隆於是

乎聚精會神啓沃弘多數奏切實將欲奮庸經術賁飾泰平如許文敬稠柳文簡寬諸公傾心獎翊遇以公輔器

自 上亦將大用而遽以微恙告終在正統辛酉六月二十六日也是歲九月葬于廣州突馬坊栗里靈長山南坤

向之兆今焉四百餘歲隧無刻後孫泰鎮泰燮懼夫德行事烈愈久而愈泯踏繭宿春請余一言謹按公文成公

晦軒先生諱裕六世孫也父諱從約吏曹參議 贈判書以直道見重大父諱瑗刑曹典書景質公麗亡守罔僕

之義曾高以上累公累卿世有名德判書公聘東萊鄭氏其考蓬原君良度公諱良生貞淑有壺範公以洪武某

【右側面】

甲生生而聰悟蚤成學業及長汎濫百家探源剝實咀嚙膏腴發之文詞如泉湧雲興肩視漢唐諸子而直上之自

以雕華無足貴曰駸駸乎洛閩正路漸涵以誠敬之工事父母處兄弟無愧文公小學居喪戚易一遵文公家禮慎

交遊非其徒不親遇事明斷有斬釘截鐵底規模人莫敢干以私賢哉公也贈貞夫人李氏配公柔嘉葬用魯禮宗

室完川君淑之女義安大君和之孫也有二男四女男知歸大司成知碩典書壻許認牧使李景昌直長成文致洪錫南城君知歸男瑚參判璿副正琛判書琮郡守璣典籍知碩男位縣監其下繁不記云嗚呼士之懷抱利器不遇而埋剗者已矣如公之有德有才且遇時而迫於大限蘊諸中者不能發二三尙論者安得不掩卷長吁致詰於彼

【左側面】

蒼者耶雖然居位崇卑烏足以屈伸公也在世久近烏足以顯晦公也惟善繼文成遺緒以考亭夫子爲無上準範此蓋公之宏綱大要則不朽者在此而不在彼也凡爲公之後者一以公爲師正直家風不以隱顯有間人皆稱某之孫某之孫云爾則公所以益不朽者又在是矣如晚生蕪辭敢曰不朽之歟石旣具矣請益勤矣辭不可得矣敢爲之銘曰
思皇文成厥有肖孫植志勛學實接淵源 聖人在上親策揀掄璀璨溢發如珍出岷坦坦雲程驥展鳳騫 法筵文苑碩畫名言胡不永年卒酬 鴻恩不食之報爰及遺昆廣陵之陽栗里之原螭首屹屹昭示長存

旃蒙單闕□□□□□鍾永宗昱鍾浩秉容秉喆性鎮 淋 榮虎在益炳謙炳億 立

【譯 文】

판군자감사 증의정부좌참찬겸대제학순흥안공구지묘 증정부인전주이씨부좌

통정대부 판군자감사 홍문관직제학 증가정대부 의정부좌참찬 겸동지경연춘추관성판관의금부사 홍문관대제학 예문관대제학 안공(安公) 묘갈명 병인(并引)

안동(安東) 김영한(金寧漢)은 글을 짓고, 해평(海平) 윤용구(尹用求)는 글을 쓰다.

세종 임금의 덕정(德政)을 베풀던 융성한 시대에 현명한 임금과 어진 신하가 서로 만났으니, 울연(蔚然)히 당우(唐虞)¹⁾ 적 군신간에 다정하게 대화하던 아름다운 광경이 이때에 있었다. 관복(官服)을 입고 조정에 나아가자, 여러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성조(聖朝)에서 인재를 잘 선발하였다고 축하하였으니, 순흥(順興) 안공(安公) 이름이 구(攻)인 분이 바로 그였다.

공은 영락(永樂) 정유년(丁酉年)에 진사(進士)를 거친 다음 문과(文科)에 급제하여 한원(翰苑)²⁾에 들어갔고, 얼마 후에는 시강원 필선(侍講院弼善)에 임명되었다가 홍문관(弘文館)의 수찬(修撰)과 교리(校理)로 전직되고, 이조(吏曹)와 예조(禮曹)의 낭관(郎官)으로 옮겨갔으며, 또한 특별히 홍문관과 예문관의 직제학(直提學)을 제수받고, 통정대부(通政大夫)에 올라 판군자감사(判軍資監事)를 역임하였다. 그리고 뒤에 가선대부(嘉善大夫) 이조 참판(吏曹參判)에 추증되었으니, 이것은 아들 지귀(知歸)가 귀하게 된 덕분이고, 또 가정대부(嘉靖大夫) 의정부 좌참찬(議政府左參贊)에 추증되고 동지경연춘추관성판관의금부사 홍·예문관 대제학(同知經筵春秋館成均館義禁府事弘藝文館大提學)을 겸하였으니, 이것은 손자 침(琛)이 귀하게 된 덕분이었다.

공은 성스럽고 명철한 임금이 통치하는 시대를 만났다. 임금의 은혜가 날로 베풀어지고 정치 교화가 바야흐로 융성해갔다. 이때에 임금과 신하가 서로 잘 만났으니, 임금은 진심으로 신하에게 도움을 청하고 신하는 임금에게 절실하게 진언을 하였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장차 경술(經術) 등을 이용하여 태평

시대를 이룩하려고 하였다.

문경공(文敬公) 허조(許稠)와 문간공(文簡公) 유관(柳寬) 같은 제공(諸公)들은 공에 대해서 진심으로 추장(推獎)하여 정승 감으로 대우하였고, 임금도 한 공을 장차 크게 쓰려고 하였는데, 공은 갑자기 하찮은 병으로 작고하였으니, 그때는 바로 정통(正統) 신유년(辛酉年) 6월 26일이었다. 이 해 9월에 광주(廣州) 돌마방(突馬坊) 율리(栗里)의 영장산(靈長山) 남쪽 곤향(坤向)의 언덕에 장사지냈는데, 지금 4백여 년이 흘렀는데도 묘소에 비석이 없었다. 그 후손인 태진(泰鎭)과 태섭(泰燮)이 공의 덕행(德行)과 사공(事功)이 오래 되면 오래될수록 더 없어질 것을 염려하여 발이 부르트도록 먼 길을 달려와서 나에게 한 마디 적어달라고 청한다.

내가 삼가 살펴보니, 공은 문성공(文成公) 회헌(晦軒)선생 이름이 유(裕)인분의 6세손이었다. 아버지는 이름이 종약(從約)으로서 이조 참의(吏曹參議)를 지내고 이조 판서(吏曹判書)에 추증되었는데, 공은 도리를 지키는 분으로 추증을 받았고, 조부는 이름이 원(瑗)으로서 형조 전서(刑曹典書)를 지내고 시호는 공질(景質)인데, 고려가 망하자 남의 나라에 종이 되지 않는 의리를 지켰다. 증조와 고조 이상은 정승, 판서가 여럿이어서 대대로 명예와 덕망을 유지하였다.

판서공이 동래 정씨(東萊鄭氏)를 부인으로 맞이하였는데, 부인의 아버지는 봉원군(蓬原君)에 봉해지고 시호는 양도(良度)이며 이름은 양(良)이다. 부인은 태어나면서부터 정숙(貞淑)하고 규범(閨範)이 있었다.

공은 홍무(洪武) 모갑(某甲)에 태어났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총명하고 영리하여 일찍이 학업을 이루었고, 장성함에 미쳐서는 백가서(百家書)를 두루 섭렵하여 원리를 깨고 진수를 맛보았다. 그러므로 문사(文詞)를 지으면 마치 샘물이 솟듯, 구름이 피어오르듯 하여 한(漢)·당(唐)의 제자(諸子)들과 어깨를 겨루며 수직상승을 하였다. 그러나 공은 「문장은 족히 귀하게 여길 것이 못된다.」고 여기고는, 낙민(洛閩)·程朱(程朱)의 정로(正路)로 들어가서 성경(誠敬)의

1) 당우(唐虞) · 당(唐)은 요제(堯帝)의 나라, 우(虞)는 순제(舜帝)의 나라.

2) 한원(翰苑) · 한림원(翰林院)과 예문관(藝文館)의 별칭.

